

안국동 윤보선가의 역사

- 사료 조사 개요 -

- 조사경위 : 정부수반유적 중 하나인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의 복원·정비 시 역사적 사실과 유적의 정확한 성격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정밀 사료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 2010. 9 ~ 2010.12
- 조사자 : 김수정(서울시 문화재과 조사연구팀장·학예연구관)
- 조사자료
 -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윤치호일기』 『매천야록』 『조선개화사』 등 문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한국통감부문서 등 조선~대한제국 시기 문서
 - 황성신문·독립신문·대한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등 신문과 『별건곤』 『개벽』 『삼천리』 등 잡지
 - 경성부지적목록(1917년)·경성부지형명세도(1929년)·구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대장

I.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연혁

I-1.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 사적 제438호(2002.1.29 지정)

- 명 칭 : 안국동 윤보선가(安國洞 尹潽善家)
- 문화재 지정대상 : 건물 총 11동(총 961.87㎡), 토지 총 4,664㎡
 - 건물 목록

구분	지번	구조	면적(단위 : ㎡)	소유자
안채	안국동 8-1	목조, 화가	409.98	(주)영안
사랑채	"	"	72.20	"
별채	"	"	50.10	"
창고(1)	"	"	44.97	"
창고(2)	"	"	6.45	"
보일러실	"	"	21.36	"
산정채	안국동 8-4	"	96.73	"
사무실	"	"	70.68	"
행랑채	"	"	53.93	"
관리실	안국동 6-1	"	89.26	윤보선
창고(3)	안국동 5	"	46.21	윤보선

- 토지 목록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단위 : ㎡)	토지 소유자
안국동 5	대지	162	162	(주)영안 (종로1가 40)
안국동 6-1	"	164.2	164	
안국동 6-5	"	22.2	22	
안국동 8-1	"	2,668	2,668	
안국동 8-4	"	1,512.8	1,512	
안국동 8-5	"	26.7	26	
안국동 8-6	"	60.7	60	
안국동 8-7	"	50.2	50	

I-2. 문화재 지정·관리 연혁

○ 1978년 서울시 민속자료 지정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보호구역	지정일자
지방 민속자료 제27호	안국동 공덕귀가	1곽	종로구 안국동 8-1	공덕귀 (종로구 안국동 8-1)	종로구 안국동 8-1 일원 (1,411.7평)	1978.8.18

○ 2000년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변경일자 : 2000.4.10
- 변경내용 : 안국동 공덕귀가 ⇒ 안국동 윤보선가

II. 문화재 관련 기관의 <윤보선가> 소개내용

II-1. 문화재청 지정 고시 당시 관보 및 홈페이지 상 소개 내용

○ 지정 고시 당시 관보

- 윤보선가는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양반가옥으로 구한말 세도가의 위용과 건축양식 및 우리 주거의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어 건축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높은 보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산실 역할의 장소가 되는 등 한국 근대정치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의의가 큼

○ 문화재청 홈페이지

윤보선 전대통령이 살았던 집으로, 고종 7년(1870)에 건립되어 윤보선 전대통령의 부친 치소(致昭)공이 1910년경 매입한 것이다. 윤보선 전대통령은 7~8세경에 이곳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청와대가 아닌 이곳에서 집무를 하였다.

이 집은 1910년 이후에 박영호 선생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잠시 머물기도 하였다. 서울의 상류 민가로서 비교적 넓은 대지 안에 바깥 사랑채, 안 사랑채, 안채, 대문 및 행랑채,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각 건물은 외형상으로는 한옥같이 보이나 세부적인 것은 중국 청나라 말기 수법을 보인다. 이는 윤보선 전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 중국에서 보고 느낀 중국적인 양식을 가미한 것으로 거주 당시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내장식 및 가구는 중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경험한 것을 기본으로 실생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양식 가구임에도 전통기법을 가미하여 새로운 의장으로 개선하였다. 바깥사랑채의 현판인 ‘남청헌’은 순조가 쓴 것으로 생각되며 김옥균이 쓴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는 현판도 걸려 있는 등 각 건물에는 어필이나 유명인사가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사랑채 뒤뜰에는 연못이 있고 매화, 향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 조경은 아니지만 19세기 말 새롭게 조성된 근대조경의 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옥은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산실 역할을 한 장소이고 1950~1970년대 야당의 사무실 겸 회의실로 사용되었으며 민주운동의 본부이자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한 한국정치사적 의의가 큰 곳이다.

140여년 전의 양반가옥으로 목조 한와지붕은 전통 건축으로 하고 세부장식과 생활가구 등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한 이 집은 구한말 세도가의 위용과 건축양식 및 주거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어 건축 문화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사적으로도 한국 최초의 민주정당의 산실 역할을 한 장소로서의 의의가 있다.

II-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개내용

안국동 윤보선가는 종로구 안국동과 가회동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였다. 제2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尹潽善)의 저택으로도 유명한 이 집은 1870년대에 민대감(閔大監)이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고종이 이 집을 사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주인이 바뀌었다가 윤보선 전 대통령 선친인 윤치소(尹致昭)가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넓은 대지에 대문간채·사랑채·안채·안사랑채·별당채·기타 광채들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안채·안사랑채는 각각 따로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건물들의 구조 역시 건실하고 치밀하다.

대지의 서쪽에 위치한 솟을대문간을 들어서면 나오는 행랑마당 동남쪽에 사랑채가, 서북쪽에 안사랑채·안채·별당채가 자리잡고 있다.

솟을대문간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에 대문을 두었으며 옆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협문을 내었다. 'ㄱ'자로 꺾인 곳에 차고가 자리잡고 있으며, 대문 밖 북쪽으로는 노들돌이 놓여 있다.

사랑채는 남향하였는데, 그 뒤에 잔디밭과 직사각형 연당으로 사랑 뒷마당을 꾸몄고, 서쪽으로는 차양을 달았다. 사랑채 전면의 사랑마당에는 높다랗게 잘 다듬은 석주가 놓였으며, 북측 담장 아래에는 전돌을 쌓아 화계(花階)를 꾸몄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작은 대청, 정면 2칸 측면 2칸의 사랑방이 자리잡았다. 사랑방 앞에는 반칸 크기의 골마루를 두었으며, 옆으로 1칸 폭을 물러선 자리에는 1칸 크기의 합살아궁이 부엌을 두었다. 작은 대청과 사랑방 전면에는 반칸 폭의 툇마루를 두었고, 이보다 폭이 좁은 툇마루를 서측면과 뒷면에 달아내었다. 작은 대청과 사랑방 뒤 북쪽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큰 사랑대청, 정면 1칸 측면 2칸의 침방을 두었고, 그 동쪽으로 화장실을 새로 증축하였다. 사랑채는 굴도리로 결구한 소로 수장집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을 하였다. 사랑채 전면을 중심으로 서측과 뒷면 툇마루에는 '아(亞)'자살로 궁창부를 짠 난간을 둘렀으며, 사랑방과 침방 사이문은 월문으로 되었다.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안채는 내부구조가 많이 변해서 확실한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건넌방과 대청·큰방·누마루를 두었다. 부엌 뒤에는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을 두어 창고류의 용도로 쓰고 있다. 대청의 동쪽으로 작은 대청이 있고, 그 북쪽으로 화장실과 침방이 있는데, 본래 화장실과 침방은 커다란 하나의 윗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개수한 것이다. 안방은 작은 대청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안채의 기단은 화강석으로 세벌대 장대석으로 쌓았고, 주춧돌은 네모뿔형이며, 기둥은 사각 기둥으로 되었다. 도리는 납도리이며, 도리 밑에는 장혀를 놓고 안방과의 사이에 소로를 끼우고 있다. 보뿔목은 초각을 하였으며, 보아지를 받치게 하였다. 상중도리 밑에는 동자주를 쓰지 않고 포대공을 사용하였으며, 상도리 파련대공으로 받치고 있고 처마는 겹처마이다. 안채의 외벽은 본래 회반죽 마감이었으나, 1960년 개수하면서 붉은 벽돌로 바꾸었다. 안채의 창호는 덧창·사창(망사창)·쌍창·갑창이 네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시대 양반집의 창호 구성을 잘 보여준다.

안사랑채는 안채의 서쪽에 담장을 둘러 따로 만들었고, 역(逆) 'ㄴ'자형의 평면을 이루는데, 2칸 크기의 큰방을 동쪽에 두고 가운데에 대청을 두었으며 그 옆으로 건넌방을 배치했고, 이 방들 앞에는 툇마루가 시설되었다. 각 건물의 앞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유행했던 긴 채양이 달려 있었으나 현재는 차양을 지지하는 기둥의 주초만 남아있다.

이 가옥은 건축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광복 후 한국 민주당의 산실 역할을 한 장소로서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78년 8월 18일 '안국동 공덕귀가(安國洞 孔德貴家)'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 4월 10일 '안국동 윤보선가'로 문화재 지정명칭이 바뀌었다.

Ⅲ.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Ⅲ-1. 가옥의 건립연대 및 건립자

○ 건립연대

- 문화재청에서는 현재의 가옥이 고종 7년(1870)에 건립되었고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양반 가옥으로 단정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870년대에 민대감(閔大監)이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들 서술들은 사료에 근거하기보다는 가옥 소유자의 전언(傳言)에 기초한 것이어서 구체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 사료조사 결과 안국동 8번지 상에 존재했던 가옥들은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80년대~1930년대까지 크게 3차례의 큰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의 가옥은 맨 마지막 단계인 1925년~1934년 고 윤보선(尹潽善 : 1897~1990) 전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尹致昭 : 1871~1944)에 의해 신축된 일제 강점기 건물들이다.
- 다만, 안채는 큰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 원형을 추정하기 곤란하나 김용달(金容達 : 생몰연대 불명)에 의해 신, 증축되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 건립주체

- 그동안은 1870년대 민대감에 의해 건립되었다고만 알려졌으나 안국동 8번지 상의 건물은 3차례의 큰 변화를 겪은 만큼 각 시기마다 건립자가 달라 총 3명의 건립주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안국동 8번지 상의 건물은 1880년대 민영주【閔泳柱 : 1846(헌종 12)~ ?】에 의해 375칸 규모로 최초로 건립되고,
- 다시 1900년대 초반에 김용달(金容達)이 180칸으로 신, 증축하였으며,
- 1925년~1934년 윤치소에 의해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이 신축되어졌다.

Ⅲ-2. 안국동 8번지상의 가옥이 박영효가 1910년 일본 망명에서 귀국하여 머문 박영효의 집인가의 문제

- 박영효가 1차 일본 망명(1884년~1894년)에서 돌아온 직후인 1894년 11월~1895년 7월, 2차 일본 망명(1895년~1907년)에서 돌아온 직후인 1907년 6월 20일~1907년 6월 22일 박영효가 일시 안국동 8번지상의 가옥에 머물고, 동 가옥이 금릉위궁(錦陵尉宮)으로 불려진 것은 사실이나
- 동 가옥은 1899년 폭발사건으로 건물 2~3동이 파괴되었고, 또 1900년대 초에 당시 돈을 펄펄 띄기로 유명했던 김용달이 가옥을 180칸 규모의, 장안에서 가장 훌륭한 가옥으로 신, 증축하였으며, 또 다시 1925년~1934년 새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현재 안국동 8번지에 남아 있는 가옥을 박영효가 거주하던 금릉위궁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박영효가 거주하던 금릉위궁의 '터'에 신축된 가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박영효가 일본 망명에서 돌아오는 시기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894년과 1907년이고, 1910년은 제주도에서 귀양갔다가 돌아오는 시기로 이 때 돌아오는 곳은 안국동 8번지가 아니라 경운동 89번지 상의 집이다.

Ⅲ-3. 고 윤보선 전대통령 일가가 안국동 8번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 그동안은 윤치소가 1910년경 매입해 고 윤보선 전대통령이 7~8세경에 이곳에 살기 시작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졌으나

- 사료조사 결과 안국동 8번지는 1918년 6월 3일 고 윤보선 전대통령이 어린 시절이 아닌 만 19세 되던 청년 시기에 매입하였으며, 실질적 소유자는 윤치소였으나 고 윤보선 전대통령이 명의상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 현재의 가옥 배치와 규모는 1925년~1934년 윤치소에 의해 그 틀이 만들어졌다.

IV.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인 <안국동 8번지>의 역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IV-1. 민영주(閔泳柱 : 1846~ ?)에 의해 최초 건립

① 1880년대 민영주 최초 건립(375칸 규모)

- 정확한 신축 연대는 불확실하나 장안에 ‘망난이’로 소문났던 민영주가 1894년 기준으로 그 이전 10여 년간 방방곡곡을 다니며 떡과 장을 팔았다고 되어 있고, 1881년부터 벼슬을 했으며, 1887년 칠석제(七夕製) 때 정식으로 급제하였는 바 1870년대보다는 늦은 시기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 신축규모는 1907년 12월 24일자 황성신문의 <민씨 청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토대로 추정하면 한 울타리 담 내 4곳의 기와집 375칸(小安洞 所在 一牆內 四處 瓦家 三百七拾五間)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몇 개의 동(棟)이 있었는지는 확인 곤란하다.
- 한편, 1895년~1899년 이 가옥에 거주한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가 쓴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의 자서(自序)에 따르면 토지가 깊고 한적하고 아취가 있었으며 많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1894년 11월~1895년 7월 박영효 거주

- 1884년 12월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1차 망명했다 1894년 8월 귀국한 박영효가 집이 없어 같은 해 11월 고종이 탁지아문에 저택을 사주도록 해 민영주의 저택이 박영효의 가옥의 선택되었다.
- 이곳에서 박영효는 1895년 7월 반역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해 2차 일본 망명길에 오를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이 때 서광범, 죽은 김옥균의 처와 딸이 함께 거주했다.
- 이 때 집값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원주인인 민영주가 1907년 탁지부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③ 1895년 7월~1899년 6월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김용준(金龍俊)·박영효 일족 등 거주, 1899년 폭발사건으로 가옥 2~3동 전복

- 박영효가 1895년 7월 또 다시 반역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해 2차 일본 망명길에 오르게 되자 박영효의 정치적 동지인 츠네야가 동 가옥에 거주하며 가옥 전체를 관리하고, 박영효의 가족을 보호하게 된다.
- 츠네야 모리노리는 1894년 8월 박영효(朴泳孝)·유혁로(柳赫魯)·이규완(李圭完)·정난교(鄭蘭敎) 등이 귀국할 때 함께 조선에 온 일본 사람인데 박영효의 추천으로 내각 보좌관으로 일하며 기록·편찬·관보 사무를 감독하였다. 1895년 아관파천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박영효가 1895년 7월 일본으로 망명한 후 1899년 6월 박영효의 저택에서의 폭발사건을 계기로 일본 영사의 명령에 의해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박영효의 옛 저택에 머물며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를 집필했다.
- 1899년 6월 13일 동 가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츠네야 모리노리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의 남측 건물 2~3동이 전복, 파괴되고 2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은 이 전에도 반역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되어 1897년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구 박영효 가옥 일부에 살고 있던 김준용(金俊龍)과 관련된 사건으로 추정되며, 사건의 여파로 동 가옥에 거주하던 15명의 남녀가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 속에 박영효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 ④ 1900년 9월~1902년 11월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산하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 입주
- 경의·경원선 철도 부설 추진을 위해 1900년 9월 13일 궁내부 내장원 산하에 신설된 서북철도국이 입주한 것으로 보이며 동 기관은 1902년 11월 궁내부 고문으로 부임하는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입주하는 때까지 안국동 8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서북철도국은 총재(總裁) 1인, 국장(局長) 1인, 기사(技師) 1인, 주사(主事) 2인, 기수(技手) 2인 등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 서북철도국으로의 사용을 위해 1899년 전복된 건물을 대체하는 건물의 신축 또는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07년 김용달이 탁지부에 청원하면서 훼손되고 남은 가옥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 규모는 1899년 폭발사건의 여파로 원래보다 작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철도국은 일본이 1904년 8월 10일 경의선을 기공하면서 폐지한다.
- ⑤ 1902년 11월 말~1907년 5월말 또는 6월 초 궁내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거주
- 일본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관을 그만둔 후 1902년 11월~1907년 6월 대한제국의 궁내부(宮內府) 고문(顧問)과 농상공부(農商工部) 고문관(顧問官)을 지내다 12월에 한국을 떠난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거주하게 된다.
 - 그런데 황성신문 1903년 3월 5일자에는 가토 마스오가 거주할 당시인 1903년 가옥 수리를 위해 가토 마스오의 여관비와 가옥 수리비 3천원이 지불되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 1899년 폭발 사고 이후 훼손된 집에 대한 수리가 행해진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1907년 5월에는 박영효가 2차 일본 망명에서 귀국하기 직전 그의 집을 가토 마스오가 거주하던 소안동으로 정하고 가토 마스오는 엄준원(嚴俊源)¹⁾의 집으로 이주하게 된다.
- ⑥ 1907년 6월 20일~1907년 6월 22일 박영효 일시 입주
- 박영효가 2차 망명에서 귀국하기 전인 1907년 6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에서 박영효가 거주할 수 있도록 또 다시 가옥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영효는 1907년 귀국하여 6월 20일 안국동 8번지에 일시 입주하게 되나 어떤 사정에서인지 동 가옥에 머물지 않고 6월 22일~7월 10일 오늘날 경운동 89번지에 위치하던 민영찬의 집을 조정에서 구입해주고 입주하게 될 때까지 남산의 파성관 등지를 전전하게 된다.
- ⑦ 1907년 7월 이후 ~1909년
- 1894년 박영효에게 거주할 집을 구해주면서 탁지부에서 1894년 원주인인 민영주에게 집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아 18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세가 급격히 기울 민영주가 1907년 12월 대리인을 통해 탁지부에 청원을 내고, 1909년에는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IV-2. 김용달이 신축 또는 증축(180칸 규모)

- ① 1909년 이후~1917년 경 김용달(金容達)의 대대적 신축과 증축
- 당시 장안에서 돈 잘 쓰기로 이름을 떨치던 김용달이 안국동 8번지 일대를 처음 소유한 시기는 불확실하나 그가 안국동 8번지를 소유할 당시 서울에서 제일가는 저택이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의 규모로 신축 또는 증축을 했으며, 그 규모는 180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건물 동(棟)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엄준원(嚴俊源, 1855~1938)은 고종 황제의 비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동생으로 진명여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을 지낸 인물이다.

- 1917년 『경성부지적목록(京城府地籍目錄)』을 보면 1917년 안국동 8번지를 김용달(金容達)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적이 1,310평(4,330.5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자료가 일반적으로 등기부보다 소유권 변동사항이 약간 늦게 등재되는 점을 고려해도 1917년 전까지는 김용달이 안국동 8번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1917년 전후~1918년 6월 3일 : 한성은행과 조동윤 남작 소유

- 김용달이 한성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하자 한성은행(漢城銀行)에서 안국동 8번지 상의 김용달의 저택을 인수하였고
- 그 후 박동에 살던 조동윤(趙東潤 : 1871~1923) 남작이 그의 소실을 위해 동 저택을 구입했다가 마가 꺾었다는 말을 듣고 1918년 6월 3일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에게 매각하게 된다.

IV-3. 윤치소 또는 윤보선에 의한 신축(6동)과 구조변경(1동)

① 1918년 6월 3일~1964년 : 윤보선 소유하며 가옥 1동 구조변경하고 총 6동 신축

- 구 등기부등본에는 만 19살인 윤보선(尹潽善 : 1897~1990)이 1918년 6월 3일 매매에 의해 안국동 8번지 토지와 가옥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27년 『경성부지적목록(京城府地籍目錄)』에도 윤보선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윤치호일기』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尹致昭 : 1871~1944)가 안국동 8번지 집을 12,000원을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 잡지에는 문패가 ‘윤치소’로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동 가옥의 실질적 소유자는 윤치소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가옥에서 윤치소는 아버지 윤영렬(尹英烈 : 1854~1939)을 모시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 그런데 『윤치호일기』를 보면, 1925년 윤치소가 왕궁 양식의 허식적인 사랑채를 신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 사랑채의 신축 시기가 1925년으로 이번에 새롭게 분명히 규명되었다.
- 또 구 등기부등본(건축물)을 보면 昭和 9년, 즉 1934년 본채에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목조와즙(124.2평 : 410.58㎡)·목조 도단즙(13.62평 : 45.02㎡)·연와조 도단즙(6.46평 : 21.36㎡)이 혼재된 총 144.85평(478.84㎡)으로 변화하고, 부속건물 총 6동이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신축된 부속건물은 목조와즙(29.26평 : 96.73㎡)과 목조 도단즙(15.15평 : 50.1㎡)이 혼재된 44.41평(146.8㎡), 목조와즙 16.31평(53.93㎡), 목조와즙 21.38평(70.68㎡), 목조와즙 21.84평(72.2㎡), 목조와즙 18.4평(60.82㎡), 목조와즙 1.95평(6.45㎡) 등이다.
- 따라서 안국동 8번지 상의 건물은 김용달이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 중 본채 일부만 남고 모두 새로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② 1964년~현재 주식회사 영안 소유

- 현재의 가옥대장에는 안국동 8-1번지에 아래와 같은 총 9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934년 1동으로 기록된 건물들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 표시된 것일 뿐 수량과 면적 증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의 건물들은 1925~1934년 신축된 건물들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옥은 목조 와즙 409.98㎡, 목조 도단즙 44.97㎡, 목조 도단즙 21.36㎡, 목조 와즙 96.73㎡, 목조 도단즙 50.1㎡, 목조 와즙 53.93㎡, 목조 와즙 70.68㎡, 목조 와즙 72.2㎡, 목조 와즙 6.45㎡ 등이다.

안국동 윤보선가 관련 사료

I

민영주 또는 민영우 관련

■ 민영주【閔泳柱 : 1846년(헌종 12)~ ?】 인적사항

본관은 여흥(驪興). 서울 출신. 민장호(閔璋鎬)의 아들이다. 나중에 민영우(閔泳雨)로 개명하였다.

원래 망나니로 소문났으나 친척인 민영휘(閔泳徽)가 사람노릇을 시키려면 과거에 합격시켜 주어야 한다고 고종에게 극간한 덕분에 1887년 칠석제(七夕製) 때 정식으로 과거에 합격했고,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이조 참의(吏曹參議)·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학부 협판(學部協辦)·중추원 1등 의관·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함경남도 관찰사·시종원경(侍從院卿)·비서원경(祕書院卿)·장례원경(掌禮院卿)·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등을 지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한 후로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은 죄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1899년에는 전 비서원승(祕書院丞) 송정섭(宋廷燮), 궁내부수륜과장(宮內府輪轉課長) 강견희(姜見熙) 등과 공모, 정부로부터 월미도 개척권을 인가받아 그 이권을 일본인 요시카와(吉川佐太郎)에게 일화 3만9천원을 받고 팔았다가 발각되어, 송정섭이 구속되었다. 이에 민영주의 아들인 내부협판 민경식(閔景植)이 아버지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알고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에게 사건의 해결방안을 상의하였다. 이 때 왕을 러시아공사관에 옮기게 하고 민영환(閔泳煥)·민병석(閔丙奭)·심상훈(沈相薰) 등을 죽임으로써 정권을 잡게 되면 사건이 자연적으로 무마되리라는 김영준의 제의에 동의, 군부협판 주석면(朱錫冕)·김필규(金弼奎) 등과 함께 이의 실천을 모의하였다. 모의 진행 중 김영준이 민경식과의 이해관계로 월미도사건의 전모를 고발함으로써 민영주가 투옥되었다. 또한, 민경식도 김영준과의 음모사실을 고발하여 김영준은 사형되고 민경식·주석면 등은 유배되었다.

1890년대 후반부터 가세가 급격히 몰락했고, 몰년(沒年)은 미상이다.

■ 윤치호일기 7권 - 1918년 6월 3일자

3rd. Monday. Beautiful—Cool.

Y.M.C.A. as usual.

Second cousin 致昭 came to see me about 5 p.m. Informed me that he had just concluded a bargain for the big Korean house which 金容達 had built or rather improved(180Kan) in 小安洞. That house was originally built or owned by 閔泳雨 (민망난 or 민부처). It was given to Prince Pak (朴泳孝) by the then Empress in 1894. After Prince Pak quit the house to save his life in the summer of 1895, the house was occupied by 恒屋成服, Mr. P's Japanese confidant. After Mr. 恒屋 left Seoul, Mr. 加藤增雄 lived in it.

Then 金容達 the notorious spendthrift bought it, and improved it to such an extent as to make the house reputed being the finest Korean house in Seoul. Then the 漢城銀行 took it over for a debt which 金 owed to the Bank. Lately Baron 趙東潤 bought it for his concubine. His concubine was told by a sorcerer that the house was unluck, so Baron 趙 decided to sell it. My cousin bought it for ¥12000. I didn't fancy the house. So big with no decent styles leading to it. Cousin may see money in it.

그를 놓아주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감히 자주 나오지 못하였다. 그 무뢰배들은 이범진을 범보라고 불렀다. 그 범보라는 이름은 거의 망나니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 1894년 이전 - 망나니 민영주의 급제

민영주(閔泳柱)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개가한 후 금수 같은 행동을 자행하고 도둑처럼 약탈을 감행하였다. 그는 10여 년 동안 망나니로 소문이 나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급제를 하기 위해 과거시험이 있을 때마다 유생 수십 명을 사서 시권(試券) 수백 장을 써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바쳤다. 어느 때는 과거에 급제도 하였지만, 고종은 특명을 내려 그의 이름을 과방(科榜)에서 삭제하였다. 민영주의 원망은 날로 깊어 더욱 난폭한 생활을 하였다.

민영준(閔泳駿)은 그를 매우 걱정하여, 공사(公使)의 임무를 띠고 일본으로 떠날 때 고종에게 말하기를, “민영주를 사람을 만들려면 그를 과거에 급제시켜 그를 얹어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고종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해년(1887년) 칠석제(七夕製)를 치를 때 그를 발탁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직각(直閣)까지 승진하였다. 직각이 망하는 것은 민영주가 임명된 후 극도에 달하였다.

■ 『승정원일기』 - 1880년(고종 17) 9월 22일

이비가 2차 정사를 하였다. 민영주(閔泳柱)를 동몽교관으로 삼았다. 좌윤에 김성근(金聲根)을 단부하고, 우윤에 민영익(閔泳翊)을 단부하고, 행 좌부승지에 김석근(金皙根)을 단부하였다.

■ 『고종실록』 18권 - 1881년(고종 18) 7월 17일

十七日。刑曹啓：“以土豪禁斷事，前後飭教，何等截嚴？而前參判李僖魯·李泰應、前承旨金永奭、副司果鄭寅協·沈鎮圭、童蒙教官閔泳柱、進士李昌宰，俱以武斷之習，侵漁平民。事關民隱，固當禁斷。係是卿宰以下，臣曹不敢擅便，令廟堂稟處何如？”教曰：“以班戶武斷事，前後筵飭，果何如也？恣行不法，侵虐無辜，至於平民莫保厥業，其呼號怨恨，亦足以干和致戾。苟有一分嚴畏，寧容若是？此不可尋常處之。竝令王府拿來，捧招後遠地竄配。李昌宰，令秋曹舉行。”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토호(土豪)를 금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로 척교(飭教)가 얼마나 엄절(嚴截)하였는데, 전 참판(前參判) 이희로(李僖魯)·이태응(李泰應), 전 승지(前承旨) 김영석(金永奭), 부사과(副司果) 정인협(鄭寅協)·심진규(沈鎭圭), 동몽교관(童蒙教官) 민영주(閔泳柱), 진사(進士) 이창재(李昌宰)는 모두 무단(武斷)하는 버릇을 가지고 백성들을 침탈하였습니다. 일이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만큼 마땅히 금단해야 하겠지만 경재(卿宰) 이하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반집들에서 무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후로 연식(筵席)에서 신칙(申飭)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불법을 자행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원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재앙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심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봉초(捧招)한 뒤에 원지찬배(遠地竄配)하고, 이창재(李昌宰)는 추조(秋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18권 - 1881년(고종 18) 7월 23일

義禁府以“李僖魯，肅川府；李泰應，南原府；金永奭，居昌府；鄭寅協，密陽府；沈鎭圭，高原郡；閔泳柱，求禮縣；竝定配。”秋曹亦以“李昌宰，長城府定配。”啓。

의금부(義禁府)에서, ‘이희로(李僖魯)를 숙천부(肅川府)에, 이태응(李泰應)을 남원부(南原府)에, 김영석(金永奭)을 거창부(居昌府)에, 정인협(鄭寅協)을 밀양부(密陽府)에, 심진규(沈鎭圭)를 고원군(高原郡)에, 민영주(閔泳柱)를 구례현(求禮縣)에 모두 정배(定配)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고, 형조(刑曹)에서도 ‘이창재(李昌宰)를 장성부(長城府)에 정배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19권 - 1882년(고종 19) 2월 20일

命竄配罪人金永奭、沈鎮圭、閔泳柱、鄭寅協，定配罪人趙秉友等七人放。

찬배 죄인(竄配罪人) 김영석(金永奭)·심진규(沈鎮圭)·민영주(閔泳柱)·정인협(鄭寅協)과 정배 죄인(定配罪人) 조병우(趙秉友) 등 7인을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 『승정원일기』 - 1887년(고종 24) 2월 9일

초경(初更). 상이 건청궁(乾淸宮)에 나아갔다. 과차(科次)에 입시할 때, 행 도승지 조병세(趙秉世), 좌승지 조신희(趙臣熙), 우승지 민정식(閔正植), 좌부승지 이우면(李愚冕), 우부승지 이위(李緯), 동부승지 윤조영(尹祖榮), 거주서 - 원문 빠짐 - 별검춘추 김희수(金喜洙)·김춘희(金春熙)·윤용식(尹容植)·이정직(李貞植)·이무로(李茂魯)·민종식(閔宗植)·김영직(金永迪)·조형하(趙衡夏), 검열 이석영(李石榮)·권숙(權肅), 직제학 민영환(閔泳煥)·조동면(趙東冕), 검교직각 박봉빈(朴鳳彬)·김문현(金文鉉)·정하원(鄭夏源)·김세기(金世基), 직각 유진필(兪鎭弼), 검교대교 정인승(鄭寅昇)·이완용(李完用), 교리 이민영(李敏英), 수찬 민희태(閔義泰)가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관은 앞으로 나오라.”

하였다. 대독관이 제1장을 읽어 아뢰었다. 상이 그치라고 명하였다. 독권관이 아뢰기를,

“등급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1장은 정삼하(正三下)로 쓰고, 9장은 초삼하(草三下)로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차상(次上)으로 쓰라.”

하였다. 독권관이 차례로 등급을 썼다. 상이 승지에게 봉미를 뜯으라고 명하니, 승지가 차례로 봉미를 뜯어 읽어 아뢰었다. 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제술로 강(講)을 대신하여 시행하였을 때 부(賦)에서 수석으로 삼하(三下)를 맞은 유학 전건하(田健夏)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고, 그 다음으로 초삼하를 맞은 진사 권석현(權碩鉉) 등 9인은 모두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고, 그 다음으로 차상을 맞은 진사 민영주(閔泳柱) 등 12인에게는 모두 2분(分)을 주고, 그 다음으로 차상을 맞은 유학 정찬용(鄭贊容) 등 12인에게는 모두 1분을 주고, 그 다음으로 차상을 맞은 유학 권억(權億) 등 16인은 모두 감시 초시의 방목 끝에 붙이고, 그 다음으로 차상을 맞은 유학 이응선(李凝善) 등 50인에게는 각각 《규장전운(奎章全韻)》 1전씩을 사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입격한 유생은 내일 대령하라.”

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이어 물리가라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리나왔다.

■ 『고종실록』 24권 - 1887년(고종 24) 6월 11일

設七夕製于泮宮。賦，幼學金台濟、進士閔泳柱，竝直赴殿試。

성균관에서 칠석제(七夕製)를 베풀었다. 부에서 유학(幼學) 김태제(金台濟), 진사(進士) 민영주(閔泳柱)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 『승정원일기』 - 1888년(고종 25) 11월 29일

윤기원에게 전교하기를,

“천안군수(天安郡守) 민영주(閔泳周)를 내금위장에 제수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27권 - 1890년(고종 27) 12월 11일

以閔泳柱·申敬善爲弘文館校理，李鍾弼·鄭敬源爲副校理，權流·鄭冕錫爲修撰，尹達榮·李鼎淵爲副修撰。竝中批也。

민영주(閔泳柱), 신경선(申敬善)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종필(李種弼), 정경원(鄭敬源)을 부교리(副校理)로, 권연(權沆), 정면석(鄭冕錫)을 수찬(修撰)으로, 윤달영(尹達榮), 이정연(李鼎淵)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 『고종실록』 28권 - 1891년(고종 28) 6월 30일

直閣圈：閔泳柱、吳春泳、鄭敬源、沈九澤、尹達榮。待敎圈：宋憲卿、朴昌緒、李範世、洪淳九、趙漢復。以閔泳柱爲奎章閣直閣，宋憲卿爲待敎。

직각(直閣) 권점(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민영주(閔泳柱)·오춘영(吳春泳)·정경원(鄭敬源)·심구택(沈九澤)·윤달영(尹達榮)이고, 대교(待敎)에서는 송헌경(宋憲卿)·박창서(朴昌緒)·이범세(李範世)·홍순구(洪淳九)·조한복(趙漢復)이다. 민영주(閔泳柱)를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송헌경(宋憲卿)을 대교(待敎)로 삼았다.

■ 『고종실록』 33권 - 1895년(고종 32) 3월 18일

十八日。總理大臣金弘集、法務大臣徐光範奏：“同知中樞院事閔泳柱이 本來無賴호 流로 悖類를 締結호야 京鄕人民의 財産을 攘奪호음이 不可勝記호와 稔惡이 既久호미 怨毒이 溢世호오니 此는 一國의 武斷元惡이라 法에 在호야 罔赦호니 法務衙門으로 호야곰 拿囚懲辦호음이 何如호을지?” 允之。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법무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영주(閔泳柱)는 본래 무뢰배로서 불량배와 결탁하여 경성과 지방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이 오래 쌓이고 원한이 세상에 넘쳐나니, 이는 나라의 횡포를 부리는 원흉입니다. 법으로 보아 용서할 수 없으니,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 가두고 징계하여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고종실록』 33권 - 1895년(고종 32) 7월 3일

法部謹依六月二十七日詔勅，徒流罪人閔泳駿、趙秉式、閔泳柱、閔炯植、金世基、閔丙奭、李容泰、金文鉉、李容直、趙弼永、趙秉甲、閔應植、金昌烈、曹萬承、任釋宰、徐廷喆、沈能弼、趙駿九、閔泳純，其外二百六十人放送之意上奏。制曰：“可。”

법부(法部)에서 6월 27일 조칙에 의하여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인들인 민영준(閔泳駿), 조병식(趙秉式), 민영주(閔泳柱), 민형식(閔炯植), 김세기(金世基), 민병식(閔丙奭), 이용태(李容泰), 김문현(金文鉉), 이용직(李容直), 조필영(趙弼永), 조병갑(趙秉甲), 민응식(閔應植), 김창렬(金昌烈), 조만승(曹萬承), 임치재(任釋宰), 서정철(徐廷喆), 심능필(沈能弼), 조준구(趙駿九), 민영순(閔泳純) 외 260명을 풀어주자는 뜻으로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 독립신문 - 1899년 1월 12일

민씨 칭송

민영주씨는 시종원경과 비서원경으로 잇스면서 그 두 므을 관원들과 원역들의게 엇더케 선심을 씻으며 두 므을 일을 엇더케 구페를 잘 호였던지 민씨가 그 두 므을 경을 갈닌 후에도 두 므을에서 항상 민씨의 말들을 호며 칭송호기를 마지 아니한다는지라 갑오 이전에 세상 사람의 말을 드론즉 민씨가 별명이 잇던이라 호더니 지금은 이 민씨가 전일 별명은 간디 업고 도로혀 남의게 칭송을 받는 모양이니 연즉 민영주씨는 전일 별명을 누이쳐 호야 새 므음을 가지고 올흔 일문 히호는 줄노 짐작호고 또흔 간절히 치사호노라

○민씨 칭송) 민영주씨는 시종원경과 비서원경으로 잇스면서 그 두 므을 관원들과 원역들의게 엇더케 선심을 씻으며 두 므을 일을 엇더케 구페를 잘 호였던지 민씨가 그 두 므을 경을 갈닌 후에도 두 므을에서 항상 민씨의 말들을 호며 칭송호기를 마지 아니한다는지라 갑오 이전에 세상 사람의 말을 드론즉 민씨가 별명이 잇던이라 호더니 지금은 이 민씨가 전일 별명은 간디 업고 도로혀 남의게 칭송을 받는 모양이니 연즉 민영주씨는 전일 별명을 누이쳐 호야 새 므음을 가지고 올흔 일문 히호는 줄노 짐작호고 또흔 간절히 치사호노라

■ 대한매일신보 - 1899년 5월 25일

○ 민씨 이사
민영주씨는 남대문밖 청과 근처
조리 산하에다 집 하나를 의지
여 살더니 전 판서 민응식씨의
던 서울 원동 집으로 리일 이사
하여 들어온다더라

민씨 이사

궁내부 비서원경 민영주씨는 남대문밖 청과 근처 조리 산하에다 집 하나를 의지하여 살더니 전판서 민응식씨의 살던 서울 원동 집으로 리일 이사하여 들어온다더라

■ 『고종실록』 39권 - 1899년(광무 3) 7월 13일

特進官李鍾健、贊政李允用、議官李根命、秘書院卿朴容大，命法規校正所議定官。宮內府大臣李載純、度支部大臣趙秉稷、特進官李鍾健、贊政李道宰、貴族院卿俞箕煥、外部協辦閔商鎬，命兼任表勳院議定官。特進官趙漢國，任議政府參贊，敍勅任官二等；正二品閔泳柱，任宮內府特進官，敍勅任官三等。參將趙東潤，任元帥府軍務局長。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 찬정(贊政) 이운용(李允用), 의관(議官) 이근명(李根命), 비서원경(秘書院卿) 박용대(朴容大)를 법규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政官)에 임용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 찬정(贊政) 이도재(李道宰), 귀족원경(貴族院卿) 유기환(俞箕煥), 외부협관(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를 겸임 표훈원 의정관(兼任表勳院議政官)에 임용하였다. 특진관 조한국(趙漢國)을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고, 정2품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참장(參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군무국장(元帥府軍務局長)에 임용하였다.

■ 『고종실록』 39권 - 1899년(광무 3) 8월 13일

詔曰：“向日閔泳柱之舉措駭悖，反不足深究，卽令法部流配。因法部覆奏，黃州郡鐵島流十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 번에 민영주(閔泳柱)의 해괴하고 고약한 행동은 도리어 깊이 따질 나위도 없었으므로 즉시 법부(法部)로 하여금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법부에서 복주(覆奏)한 것으로 인하여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에 10년 동안 유배를 보내라.”

하였다.

■ 『고종실록』 39권 - 1899년(광무 3) 8월 28일

命鐵島流十年罪人閔泳柱放逐鄉里。

철도(鐵島)에 10년 유배 처분을 받은 죄인 민영주(閔泳柱)를 방축향리(放逐鄉里)하라고 명하였다.

■ 『고종실록』 39권 - 1899년(광무 3) 10월 5일

命放逐鄉里罪人閔泳柱放。

방축향리(放逐鄉里) 죄인 민영주(閔泳柱)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 『고종실록』 39권 - 1899년(광무 3) 12월 11일

命正二品閔泳柱，特免懲戒。

정2품 민영주(閔泳柱)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 『고종실록』 43권 - 1903년(광무 40) 4월 1일

正二品閔泳柱任宮內府特進官，敍勅任官三等。

정2품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민영우(閔泳雨)는 동아친영회(東亞贊英會)를 설립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고, 또 윤진학(尹進學)은 국민들에게 10錢씩 거두어 그의 사당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며, 혹 어떤 사람들은 그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비(碑)를 세우려고 하기도 하여 미친 개처럼 분주히 다녔다. 영우(泳雨)는 민영주(閔泳柱)가 바꾼 이름이다.

이등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주창하던 전판서 민영우씨
 그 심혈이 점점 민란을 야
 기한 권속들을 일전에 종
 부의 등 월세나 집을 얻어
 서 주정제하고 민씨는 무
 슴 한양을 못미가 잊는지 형
 략개집 일명을드리고 마동
 등지에서 각거훈다더라

이등씨의 동상을 세우자고 주창하던 전관서 민영우씨는 상황이 점점 곤란하여 그 집 권속들을 일전에 중부 어의동 월세사집을 얻어서 주접하게 하고 민씨는 무섭 한양홀 즈미가 있는지 헝랑계집 일명을 드리고 마동 등지에서 각거한다더라

- 14 -

박원양(朴元陽)은 신의 형제들을 늘 경계하기를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려면 위험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나이 어리고 식견이 얕아서 그 말을 듣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성은(聖恩)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생각을 하였으나, 사리에 맞는가 거슬리는가를 가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갑신년(1884) 겨울에 이르러 시국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나라의 정세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고는 걱정스럽고 삼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어서 바로잡을 방도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충성을 다하기도 전에 누명을 뒤집어써서 위로는 임금에게 걱정을 끼치고 아래로는 집안에 화를 미치게 하였으며 부모형제는 거의 다 죽고 이 한 몸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나라에 도망쳤습니다. 신이 지은 죄는 한 시각이라도 하늘 땅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이 한평생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푸른 하늘에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번 드러내지 않고 개천과 수렁 속에서 스스로 목을 맨다면 애매한 누명은 천 년 후에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잘것없는 **몸이 떠돌아 다닌 지도 거의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가까이 됩니다.** 삼가 듣건대, 요즘 전하의 정사와 교화가 개혁되어 허물을 벗겨준다고 하기에, 신은 기쁨을 금할 수 없고 뒤이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의 이번 걸음은 단지 전하의 얼굴을 다시 우러러보고 구구한 심정을 다 하소연하려는 것이 첫째였고, 부모형제의 해골이나 수습하여 장사 지내는 것이 둘째였습니다. 이 소원만 성취한다면 설사 개천과 수렁에 물러가서 죽는다 해도 한 뼘 것이 없겠습니다. 신이 이미 임금에게 죄를 짓고 부모에게 화를 끼쳤으니 그저 천지간에 있는 하나의 곤궁한 사람일 뿐입니다. 일본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11년 동안 잠을 자도 편치 않고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았습니다. 처자를 두지도 않았고 음악을 즐기는 데 참여하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근심과 황송함에 싸여 오직 우리 성상께서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성밖에 엎드려 있는 지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으나 구중궁궐 속에 보잘것없는 정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강음(江陰)에서 대명(待命)하니 천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감(下鑑)하시고, 신에게 결코 딴 생각이 없음을 살피시어 법 말은 관청으로 하여금 도망하고 명령을 어긴 죄를 의논하게 하신다면, 도끼로 찍고 끓는 가마에 집어 넣는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아뢰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답하기를,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32권 - 1894년(고종 31) 8월 4일

初四日。敎曰：“向日朴泳孝事，論其形跡則孰不曰可誅，察其心曲則實有可原。今見原情，十年漂泊之餘，猶不忘戀國之心。其罪名特爲爰周，以示朝家寬大之意。”

전교하기를,

“지난날 박영효(朴泳孝)의 문제는 그 형적(形迹)을 논한다면 누구인들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마는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 이제 원정(原情)을 보니 10년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도 오히려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의 죄명을 특별히 말소하여 조정의 관대한 뜻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改革 수행 의사표시로 야기된 소동 보고

발 송 일 : 1894년 9월 7일 오전 11시 15분 발신 (1894-09-07)

수 신 자 : 大臣 陸奧

朴泳孝가 자신의 입각으로 가장 급진적 개혁을 수행하겠다고 몇몇 朝鮮 관리들에게 한 의사 표시는 갑작스런 큰 반대를 초래하여 국왕과 大院君의 감정을 상하게 했음. 朝鮮駐在 美國·露國公使는 그 문제에 대해 특별히 본인에게 조언하기 위해 9월 5일 찾아왔음. 본인은 그의 장래에 대해 숙고 중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內政改革에 관한 朝鮮政府의 內情 報告

문서번호 : 機密第185號 本108

발 송 일 : 1894년 9월 7일 오전 11시 15분 발신

발 송 자 :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수 신 자 : 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이 나라에 신정부가 창립된 이래 3~4週 간은 외형상 개혁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은 개혁은 조선 관리의 수완으로는 도저히 그 실효를 올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요즘의 정권쟁탈로 大院君 및 그의 손자인 李垞鎔과 金嘉鎭 외 일본과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서 일본과의 사람들은 한편으로 국왕과 왕비에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밀히 우리나라의 聲援을 믿고 있는 것 같으며, 대원군은 굳이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 손자인 이준용 씨는 일본과와 겨루기 위해 갑자기 李仙得을 끌어들여 러시아인·영국인과 결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파벌 간의 괴리는 朴泳孝가 자극함으로써 현격히 그 도를 높여 이준용 씨는 마침내 미국인과 영국인을 끌어들여 일단의 親衛兵을 조직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總理大臣 金宏集 씨만이 중간에 서서 자못 고심하고 있지만 미력하여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매사가 이에 따라 새로이 진흥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개혁의 대업도 혹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여 은근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우리 정부가 조선 정부를 유도해서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를 방관하고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저들은 서로 극심한 음모를 일삼아 끝내는 私鬪와 암살에 미쳐 四分五裂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이 간섭하게 되면 그 독립권을 침해하게 되고 따라서 외국의 간섭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영효가 지난번에 李峻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국왕을 협박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와 미국의 두 공사가 일부러 본관을 찾아와 충고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사정을 소상히 진술하여 閣下께서 참고하시게 해드리으로써 일본 정부가 장래 취할 對韓方針을 수립하는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本野 參事官을 귀국시켰사오니 그의 말을 상세히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참사관은 이곳에 주재하면서 내외교섭사무에 참여하여 매우 필요한 인물이오니 용무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출장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上申 드립니다.

1894년 9월 17일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殿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朝鮮政府가 새로 親衛營을 설치하고 外國人을 더 많이 雇用해서 訓練시키려 한 件

문서번호 : 機密第186號 本109

발 송 일 : 1894년 9월 21일

발 송 자 :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수 신 자 : 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親衛營은 새로운 관제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近衛兵과 같이 왕궁의 호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달 상순 朴泳孝가 대궐을 범한다는 와전으로 한 차례 궁 안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명으로 갑자기 이를 설립하고 외국인을 끌어다가 통솔 훈련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설립은 극히 비밀이어서 軍務와 外務의 관리라 할지라도 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이곳 우리 공사관에서 그 대략을 탐지한 것도 이달 8일경이며 그 다음날 9일 그레이트 하우스 씨가 우리 공사관에 와서 왕명이라 칭하고 총기 차용을 요구해서 겨우 그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원군도 역시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대원군을 위시해서 왕실 주변은 근래 외

국민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인의 발호를 제압할 수 없다는 얕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바, 박영효의 와전이 촉진제가 되어 갑자기 이와 같은 거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이를 전담하여 주선한 사람은 그레이트 하우스이고 전 육군교사 닐스테드와 그 밖의 러시아인 한 명을 끌어들였다고 하니 러시아 공사가 뒤에서 후원해 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서 본관은 지난 18일 이 나라 외무대신을 면회하여 엄하게 그 부당성을 꾸짖고 속히 이를 폐지할 것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재차 杉村 書記官을 보내 외무대신에게 “귀국이 이번에 외국인을 증원해서 친위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종전에 우리나라에 군대의 편제와 훈련을 의뢰한 취지에 위배되니 우리 정부는 철두철미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 3일 이내에 이를 폐지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측에서도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무대신도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있던 사건이었으므로 실로 그 조치에 대해 난처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필경 이 나라 왕실은 소인배들의 소굴로서 국왕은 그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각국인들은 각각 그들의 통역인 한국인을 보내서 각종 이간하는 말이나 계책을 진언했고, 또 왕궁으로부터도 이들 통역에게 의뢰해서 누차 각국 사신의 의견을 탐지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상한 일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차 권고해서 그 폐단의 근원을 근절시키려 시도했지만 해묵은 구습을 일조일석에 폐지시킬 가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에 의한 훈련을 폐지하는 일은 엄히 담판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각하의 훈령을 받아서 결연한 조치를 취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上申 드립니다.

1894년 9월 21일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 殿

■ 고종실록 32권 - 1894년(고종 31) 11월 13일

敎曰: “故相臣洪淳穆、判書朴元陽、參判徐相翊, 竝令復官爵。” 又敎曰: “錦陵尉朴泳孝職牒還授, 仍爲蕩滌敘用。” 又敎曰: “纔有處分矣, 一視之下, 不可異同。 事關甲申諸罪人罪名, 特爲爰周, 支屬散配者, 竝令放送, 以示朝家廣大之意。”

전교하기를,

“죽은 상신(相臣) 홍순목(洪淳穆), 판서(判書) 박원양(朴元陽), 참판(參判) 서상익(徐相翊)에게 모두 관작(官爵)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금릉위 박영효에게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이어서 죄를 탕척하여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방금 처분하였지만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한다는 원칙에서 차이를 둘 수 없다. 갑신년 사건에 관계된 죄인들의 죄명을 특별히 말소하고, 그 관련자들로서 여기저기 귀양 보낸 사람들도 모두 놓아 보내어 조정의 관대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 고종실록 32권 - 1894년(고종 31) 11월 18일

敎曰: “錦陵尉既已復爵矣, 永惠翁主房折受, 依前定式還給, 第宅亦令買給事, 分付度支衙門。”

전교하기를,

“금릉위(錦陵尉)가 이미 관작을 회복하였으니, 영혜옹주방(永惠翁主房)의 절수전(折受田)은 전의 정식(定式)대로 환급(還給)하고, 저택도 매입해서 사주도록 탁지아문(度支衙門)에 분부하라.”

■ 『매천야록(梅泉野錄)』 - 1894년 - 박영효와 서광범의 환국

한기동을 공무대신에 임명하고 이견창을 법무협관에 임명했는데 한기동은 상소를 올려 사퇴했고, 이견창 또한 고사하고 나가지 않았다. 박영효를 내무대신으로, 조희연을 군무대신으로, 서광범을 법무대신으로, 신기선을 공무대신으로, 윤웅렬을 경무사로 임명하였다.

박영효가 귀국했을 때부터 좋지 않은 무리들이 벌써 몰래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자 사대부들도 쫓리듯 달라붙어 그의 대문은 저자와 같았다. 그러나 박영효는 원수가 된 집에서 틈을 노릴까 두려워하여 왜군의 파견을 받아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며 방어하였다.

서광범도 뒤이어 귀국하여 함께 발탁, 기용되었다. 이때에 정치를 하는 것과 인사에 관한 일은 모두 일본쪽의 의중에서 나왔다. 김홍집이 행하도록 상주하면 임금은 받아들여 결재를 할 뿐이었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2권 - 1895년(고종 32)

朴泳孝追行其父母服視務，則起復焉，甲申(高宗二十一年)後，泳孝等第宅，皆入折毀，至是泳孝籍閱泳柱家，與光範分居之，泳柱家在大安洞，宏麗侔大內，人以為悖入之報，泳孝所尚主早夭，上嘗賜妾，妾亦死，又妾厥妾之妹，皆甲申前事也，至是，上又爲之買妾焉。

박영효는 그 부모의 상복을 뒤늦게 입다가 정무를 보기 위하여 기복하였다. 1884년 갑신년(고종 21) 박영효 등의 저택은 모두 부수어버렸기 때문에 이때(1895년)에 이르러 박영효는 민영주(閔泳柱)의 집을 적몰하여 서광범(徐光範 : 1859~1897)과 나누어 거처하였다. 민영주의 집은 대안동(大安洞)에 있었는데, 거대하고 화려하기가 대궐과 비슷하여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하여 축적한 것이라고 여겼다. 박영효가 장가든 옹주가 일찍 사망하자 임금은 그에게 첩을 내려주었는데, 그 첩마저 사망하자 고종은 다시 그 첩의 동생을 첩으로 삼아 주었다. 이것은 모두 갑신정변 이전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1895년) 고종은 또 그에게 첩을 얻어 주었다.

■ 황성신문 - 1907년 12월 24일 - 閔氏請願

閔氏請願 水典洞居閔泳雨氏代
語人閔元植氏가度支部에請願하되
小安洞所在一牆內四處瓦家三百七拾五間을
本人의族叔泳雨가多年所居이더니
去甲午年拾一月八日에自度支部로
辭意中에以司謁로口傳下敎內에
錦陵尉朴泳孝가已復爵矣
니永惠翁主房折受依定式還給第宅
無令買給事로分付度支部이시다
고該家舍를不日空置하다
하기矣叔이即爲判給이고家舍價는
以待度支部劃下이더니其翌年正月에
度支部로催促하든其時協判安駟壽가來言
曰今無貯金하니姑俟하라
함으로願望速下이더니尙無支撥하
니民之家屋을頓無判給이
是豈政理乎잇가四處內
毀撤餘存家舍를還給하
던지價文을出給하
던지兩端間에一一支撥하
라하얏더라

水典洞居 閔泳雨氏 代語人 閔元植氏가 度支部에 請願하되 小安洞 所在一牆內 四處 瓦家 三百七拾五間을 本人의 族叔 泳雨가 多年 所居이더니 去甲午年 拾一月 八日에 自度支部로 辭意中에 以司謁로 口傳下敎內에 錦陵尉 朴泳孝가 已復爵矣니 永惠翁主房 折受依定式 還給第宅 無令買給事로 分付 度支部이시다 하고 該家舍를 不日 空置하다 하기 矣叔이 即爲判給이고 家舍價는 以待度支部劃下이더니 其翌年正月에 度支部로 催促하든 其時 協判 安駟壽가 來言曰 今無貯金하니 姑俟하라 함으로 願望速下이더니 尙無支撥하니 民之家屋을 頓無判給이 是豈政理乎잇가 四處內 毀撤餘存家舍를 還給하던지 價文을 出給하던지 兩端間에 一一支撥하라 하얏더라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 復爵과 甲申罪犯赦免 및 金玉均의 妻·女 發見의 件
문서번호 : 發제130號

발 송 일 : 1894년 12월 21일 (1894-12-21)

발 송 자 :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수 신 자 : 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朴泳孝의 罪科는 이미 지난 8월 중 한국에 돌아온 후 머지않아 곧 사면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 復爵 처리가 되지 않은 동안 다시 혐의를 받고 일시 仁川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상순 다시 入京, 이달 9일에 이르러 겨우 錦陵尉의 職牒을 돌려받는 동시에 박씨의 亡父 朴元陽, 徐光範의 亡父 故 參判 徐相翊 및 박영호 등과 일을 같이 하여 非命의 죽음을 당한 故 洪英植의 亡父 故 相臣 洪淳穆 세 사람은 모두 官爵 회복되고 기타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죄인도 하나같이 그 죄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示達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朝鮮國開國 503년 11월 13일 (明治 27년 12월 9일) 官報抄錄

傳教 : 故相臣 洪淳穆 故判書 朴元陽 故參判 徐相翊 등을 모두 官爵에 복귀시킨다.

傳教 : 前錦陵尉 朴泳孝에게 職牒을 다시 내린다. 그의 죄를 사면하여 敍用한다.

傳教 : 이제 겨우 처분을 내렸으나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달리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건이 갑신년에 해당되는 죄인들은 죄명을 모두 제거해 주고 멀리 유배된 사람들도 모두 방면하여 조정의 관대한 뜻을 보인다.

그 후 3일이 지나 12월 13일 서광범 일행이 인천에 도착하고 다음날인 14일 입경하였는데, 이날 우연히 金玉均의 처와 딸이 忠淸道 沃川에서 호송되어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초에 김옥균의 처와 딸에 대해서는 금년 봄 이래 누차 이들을 찾아내려 힘썼지만 혹은 생존해 있다고도 하고 혹은 살해되었다고도 해서 그 설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이번 동학당을 토벌하는 일본 군대가 옥천 근방에서 수괴를 수색하던 중 뜻밖에도 위의 모녀 2인을 찾아냈으므로 일본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 通辯 朴允榮으로 하여금 그 보호를 담당하게 하여 경성으로 호송, 현재 朴·徐 두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옥천에서 극히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경성에 도착하기까지는 김옥균이 살해된 사실마저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박영호는 復爵되었으므로 전례에 따라 저택을 하사받고** 서광범은 전의 관직인 僉知中樞院事를 다시 제수 받았으며, 17일에 이르러 마침 박영호는 內務大臣으로, 서광범은 法務大臣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단 위 두 사람을 따르던 柳赫魯·李圭完·鄭蘭教·申應熙·鄭勳教 등은 아직 任官의 소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세히 보고 드립니다.

1894년 12월 21일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殿

■ 고종실록 33권 - 1895년(고종 32) 4월 27일

二十七日。命內部大臣朴泳孝，署理內閣總理大臣事務。

내부대신(內部大臣) 박영호(朴泳孝)에게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宮中과 內閣 사이의 알력 조짐

발 송 일 : 1895년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발신

발 송 자 :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杉村

西園寺 外務大臣代理

궁중과 내각 사이가 점차 벌어져 매우 성가시게 된 것 같음. 이 때문에 박정양(朴定陽)이 사직하겠다고 말해 박영효는 대단히 고심하고 있다고 함.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 세력의 꾀를 받아 궁중의 정황이 일변하고 그 사이에 소위 '서양인과(西洋人派)'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들과 연락하여 박영효, 즉 일본과 등에게 반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현재와 같은 형세로는 머지않아 궁중과 내각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음.

■ 고종실록 33권 - 1895년(고종 32) 윤5월 14일

十四日。詔曰：“朕以朴泳孝甲申事，或有可恕，故不記前罪，特爲顯庸，使之效忠自贖。乃反怙終，陰圖不軌，事已發覺。方令法部嚴覈正罪，而元惡斯得，餘人悉置不問，以示廣蕩之典。”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박영효(朴泳孝)의 갑신년(1884)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죄를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좋은 벼슬에 임명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끝까지 나쁜 생각을 고치지 않고 반역을 은근히 꾀하여 그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바야흐로 법부(法部)에서 엄격히 신문하여 정죄(正罪)를 하게 하였는데 고약한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음으로써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恩典)을 보이라.”

하였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 1895년 - 박영효의 음모 발각

박영효(朴泳孝)가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개화 이후, 고종은 밖으로는 일본의 견제를 받고 안으로는 의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하여 어떤 사안 하나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궁은 이를 매우 분통하게 여기고 점차 고종의 복권(復權)을 꾀하여 러시아와 내통하고 있었다.

이때 박영효는 중궁의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으나 그는 중궁의 권위를 두려워하여 중궁을 시해하지 않으면 그 화근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날짜를 정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는 일본으로 병력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유길준(兪吉濬)이 자기와 친한 사이여서 자기의 뜻을 내통하였으나 유길준은 그 사실을 고종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박영효는 자기의 음모가 누설된 것을 알고 양복으로 변장한 후 일병에게 호위를 요청하여 용산(龍山)으로 가서 기선을 타고 도주하였다. 그의 일당 신응희(申應熙), 이규완(李圭完) 등도 그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때 소문으로는 일본인 히데오(日出雄)이 우리측 한재익(韓在益)에게 박영효의 흉계를 말하자 한재익은 심상훈(沈相薰)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서광범(徐光範)이 고변(告變)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고변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후 을사년(1905)에 우리 나라 사람인 이기(李沂)가 일본의 에도에서 박영효를 만났는데, 이때 박영효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이기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간직(姦賊) 유길준 때문에 국사를 그르쳐 오늘과 같은 꼴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이기에게 들은 것이다. 박영효가 도주하자 서광범은 불안해하며 사직상소를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박영효의 치죄를 명하고 그 외에는 불문에 부쳤다.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國王과 內閣의 충돌에 따른 朴泳孝에 대한 忠告

발 송 일 : 1895년 6월 30일 오후 4시 30분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宮中ト内閣トノ衝突ニ付朴氏等ハ我ニモ相談セス過激手段ヲ執ルノ恐レアリ旁米魯兩公使内談ノ趣キモ有之ニ付昨今兩日朴氏ヘ面會ノ上之ヲ戒メタル處朴氏モ略同意セリ其他魚允中金允植申箕善ノ三大臣モ頗ル本官ノ意見ヲ同意シ此際過激手段ヲ取ルハ外患ヲ招クノ恐アルニ付決シテ斯カル非策ヲ執ル可ラズト斷言セリ就テハ此方ハ稍々安心ナレハ此上ハ宮中ノ方ヲ和クル事ニ悉力スベシ今夜金宗漢ニ面會スル積リナリ○一昨日魯公使ハ長文ノ電信ヲ本國ニ發セントシタレトモ電線斷絶ノ爲メ見合セタリト聞ク

근래 국왕과 내각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특히 왕궁 호위병을 교체하는 일로 해서 국왕이 매우 걱정하고 계시다고 함. 어제 오후 美·露의 두 공사가 와서 박영효의 거취에 관해서 內談이 있었으므로 본관은 박영효에게 좋지 못한 소행이 있으면 우의상 충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밖의 일 즉 그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같은 일은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라고 대답해 두었음. 그리고 오늘 아침 박영효와 면회해서 그 사연을 고하고 또한 왕실에 대해 과격한 수단을 취하는 것은 화를 재촉하는 것이니 매우 좋지 않다고 경고해 두었음. 풍문에 의하면 국왕께서는 사세가 더욱 절박해지면 외국의 水兵을 왕궁에 받아들여서 호위시키려는 생각을 품고 계시다 하므로 본관은 朴氏 외에 金 外部 魚 度支 두 대신에게 과격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두었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王妃의 閔氏勢力 回復 企圖에 관한 보고

발 송 일 : 1895년 7월 1일 오후 5시 30분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지난 달 30일자 貴電의 뜻에 따라 비밀히 朴泳孝를 심방해서 다음과 같은 회답을 받았음.

去月三十日貴電ノ趣ニ從ヒ秘密ニ朴泳孝ニ尋ネ左ノ返答ヲ得タリ○王妃ト魯國公使トノ間柄ハ突留メタルコトナキモ王妃ハ同公使ノ力ヲ藉リテ閔氏ノ勢力ヲ恢復セントシ居レハ愈々深クナリ居ルニ相違ナシ○朴ト國王王妃トノ間柄ハ先日中ト雖中心ヨリ打解ケタルニアラズ唯近日ニ至リテハ時ニ之ヲ形迹ニ顯スニ至レリ○義和宮ノ出立ハ陰曆本月中ノ豫定ナレトモ慥ナラズ乍去今日トナリテハ同君ヲ止メル譯ニ至ラサルベシ

○ 왕비와 러시아 공사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왕비는 동 공사의 힘을 빌려 閔氏의 세력을 만회하려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임. ○ 朴과 국왕·왕비와의 관계는 그전에도 마음속으로부터 터놓고 지내지는 못했었지만 다만 최근에 와서는 때때로 그 흔적을 나타내기에 이름. ○ 의화궁(義和宮)의 출발은 음력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확실치 않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1

발 송 일 : 1895년 7월 7일 오전 9시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昨夜王宮ニ各大臣ヲ召集セラレ(朴徐二人ノ他)俄ニ朴泳孝ノ官ヲ免シ且謀反ノ嫌疑ヲ以テ之ヲ捕縛ス可キ旨警務廳ニ命令アリタリ右ニ付朴ハ今朝竊ニ仁川ニ赴キ同地ヨリ日本ヘ潛行スヘシト云ヘリ朴泳孝謀反ノ嫌疑ニ就テハ探偵書類多ク國王ノ手許ニ集マリ居ル由ナルモ其ノ内日本人佐々木留藏ナル者ノ筆談ハ其重ナルモノナリト聞ク申箕善李允用ハ其職ヲ免セラレ安駟壽ハ警務使ニ任セラレタリ其他ハ聞込ミ次第電報スベシ

어젯밤 왕궁에 각 대신을 소집하시고 (朴과 徐 2명은 제외) 갑자기 박영효의 관직을 파면하고 아울러 모반의 혐의로 그를 체포하라고 경무청(警務廳)에 명령하였음. 이 때문에 朴은 오늘 아침 몰래 인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본으로 잠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박영효의 모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담 서류가 많이 국왕 수중에 모아져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 사사키(佐佐木留藏)이란 자의 필담은 중요한 것이라고 들었음. 신기선(申箕善)과 이운용(李允用)은 관직에서 파직되었고 안경수(安駟壽)는 경무사(警務使)에

임명되었음. 기타 사항은 청취하는 대로 전보할 것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2

발 송 일 : 1895년 7월 7일 오후 4시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探偵ノ報告并ニ佐々木某之口供ニ依レハ朴泳孝ノ謀反トハ王妃ヲ弑害セントシタル事ニテ三四ノ日本人モ加ハリ多少ノ隱謀アリシ事ヲ右佐々木ニ於テ聞込ミ筆談ヲ以テ之ヲ朝鮮人韓在益ニ告ケ韓在益ハ金宏集ニ告ケ夫ヨリ國王ノ許ニ達スル事ニナリタリ又朴ノ反對ニハ金弘集申箕善趙義淵等氣脈ヲ通シ更ラニ舊派ノ人々ヲ以テ內閣ヲ組織スル計劃アリト云フ尙探偵ニ依レハ昨日午後四時金弘集參內引續キ申箕善俞吉濬尹致昊李耕植朴定陽李夏英〔榮〕等參內夜半後安馴壽ヲ召シテ警務使ニ任セラレ李允用ヲ拘引シ訓練第一大隊長申應熙ヲ已メテ申泰休ヲ以テ之ニ代セタリ本日晝頃ハ徐光範ヲ除クノ他各大臣孰レモ參內シ居ルト云フ依テ考フルニ此度ノ事件ハ全ク王宮ヨリ起リシヤ又ハ舊黨ノ企謀ニ出テタルヤ若シハ朴泳孝等實ニ隱謀アリテ之ヲ促シタルモノナルヤ未タ判然セサル處アリ目下探偵中ナリ朴李圭完申應熙等今朝七時頃洋服ニテ京城ヲ出テ直チニ龍山ヨリ乘船シ仁川ニ於テ本日出帆ノ汽船ニ乗り込ミ日本ニ赴クベシ徐光範ハ在京ナリ同人及金嘉鎮權在衡ノ三人ハ危險ノ恐レアリト云フ唯今迄ノ處ニテハ外國トノ關係アリトモ見ヘズ

정탐의 보고와 사사키(佐佐木某)의 구술에 의하면 박영효의 모반이라는 것은 왕비를 시해하려 했다는 것으로서 3,4명의 일본인도 가담해서 약간의 은모가 있었다는 것을 위 佐佐木이 얻어듣고 필담으로 이를 조선인 韓在益에게 고하고 한재익은 金弘集에게 고해서 그로부터 국왕에게 까지 이르게 된 것임. 또朴의 반대편에서는 김홍집·신기선·趙義淵 등이 서로 기맥을 통하고 다시 구과 사람들로 내각을 조직할 계획이 있었다고 함. 그리고 더 정탐해본 바에 의하면, 어제 오후 4시에 김홍집이 입궐하고 이어서 신기선·俞吉濬·尹致昊·李耕植·朴定陽·李夏英 등이 입궐, 한밤중이 지난 후 안경수를 불러 경무사에 임명하고 이운용을 抱引, 訓練 第1大隊長 申應熙를 파면하여 申泰休로 이에 대치시켰음. 오늘 정오경에는 徐光範을 제외한 기타 각 대신이 모두 입궐해 있다고 함. 그래서 생각건대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왕궁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는 舊黨의 企謀로써 나온 것인지, 혹은 박영효 등의 실질적인 음모가 있어서 이 일이 촉진된 것인지 아직 확인치 않은 점이 있어 현재 정탐 중임. 朴·李圭完·신응희 등이 오늘 아침 7시경 양복차림으로 경성을 떠나 곧 용산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 인천에서 오늘 출범하는 기선에 타고 일본으로 향할 것임. 서광범은 경성에 있으며 同人과 金嘉鎮·權在衡 3명은 위태로울 것이라 함. 지금까지 본바로는 외국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3

발 송 자 : 加藤

수 신 일 : 1895년 7월 7일 오후 6시 접수

수 신 자 : 代理公使 杉村

朴泳孝不軌ヲ謀リ逃走セシニ付捕縛セヨトノ命アリタルヤニ聞ク果シテ然ルヤ事實詳細御通知ヲ乞フ

박영효가 반역을 도모하다 도주했으나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들었음. 과연 그런지 사실을 상세히 통지 바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5

발 송 일 : 1895년 7월 7일 오후 7시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加藤山坐上野

朴泳孝不軌ヲ圖リ逃亡シタルニ付我船舶ニ乗船ヲ差止メ吳レ候様朝鮮外部大臣ヨリ依頼アリタリ依テ右御注意マテニ申シ進ム

박영효가 반역을 도모하다 도망쳤으므로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조선 外部大臣으로부터 의뢰가 있었음. 이에 따라 유의하시기 바라 말씀드립니다.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6

발 송 자 : 山坐

수 신 일 : 1895년 7월 8일 오전 12시 30분 접수

수 신 자 : 代理公使 杉村

朴一行唯今無事乘込メリ

朴 일행이 방금 무사히 배에 올라탔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謀反事件에 관한 보고 7

발 송 자 : 山坐

수 신 일 : 1895년 7월 8일 오전 9시 접수

수 신 자 : 代理公使 杉村

朴泳孝一行乗込ミタル御用船富士川ハ今朝四時過キ釜山ニ向ケ當港出帆セリ田中賢道他二名同船

박영효 일행이 탄 관용선 富士川은 오늘 아침 4시를 지나 釜山을 향해 當港을 출발하였음. 田中賢道 외 2명이 同船했음.

III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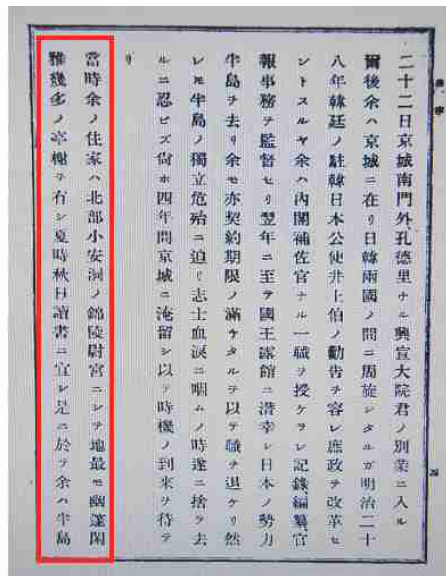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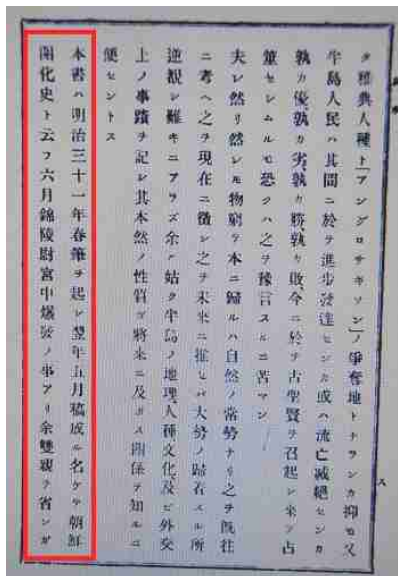
■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 : 1855~1909년) 인적사항

메이지 시대의 국가주의자. 1894년 청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같은해 8월 박영효(朴泳孝)·유혁로(柳赫魯)·이규완(李圭完)·정난교(鄭蘭敎) 등이 귀국할 때 함께 조선에 와서 박영효의 추천으로 내각 보좌관으로 일하며 기록·편찬·관보 사무를 감독하였다. 1895년 아관파천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박영효가 1895년 7월 일본으로 망명한 후 1899년 6월 박영효의 저택에서의 폭발사건을 계기로 일본 영사의 명령에 의해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박영효의 옛 저택에 머물며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를 집필했다.

■ 츠네야 모리노리,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東亞同文會, 1901년

자서(自序)

(前略)메이지 27년(1894년) 8월 6일 박영효(朴泳孝)·유혁로(柳赫魯)·이규완(李圭完)·정난교(鄭蘭敎), 이의고(李誼果)·이규현(李圭鉉) 등과 함께 동경을 출발해 같은 달 10일 부산에 도착하여 같은 달 22일 경성 남문 밖 공덕리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별업(別業)에 들어갔다. 이후 나는 경성에 있으면서 일한 양국 간의 주선(周旋)에 노력했다. 메이지 28년(1895년) 한국 조정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백작의 권고를 따라 서정(庶政)을 개혁하는 데 노력했으며 나는 내각 보좌관이라는 직을 하나 받아 기록, 편찬, 관보 사무를 감독했다. 이듬해에 이르러 아관파천으로 일본의 세력이 반도에서 쇠약해지게 되고 나 역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반도의 독립이 위태로워지고 지사들은 피눈물을 삼킬 때 버리고 떠나는 걸 참고 4년간 경성에 체류하며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게 되었다.



당시 내 거소는 북부 소안동의 금릉위궁(錦陵尉宮)이었는데 땅이 무엇보다도 가장 깊고 그윽하며 한적하고 아취가 있었으며 또 많은 정사(亭榭)가 있어 여름과 가을 책 읽기에 적합했다. 이에 나는 반도의 성격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한 편의 책을 쓸 결심을 하였다(중략)

본서는 메이지 31년(1898년) 봄 쓰기 시작해 다음해 5월 원고를 완성하였고 이름은 『朝鮮開化史』라고 하였다. 6월에는 금릉위궁 안에 폭발사건이 일어나 나는 양친을 돌보기 위하여 도쿄로 돌아왔다.(후략)

■ 『별건곤』 제23호 - 1929년 9월 27일

碧海桑田가티 激變한 서울의 넷날집과 只今집

(전략) 第一高普와 金玉均家·博文局

지금 第一高普는 元 金玉均 집터요, 安國洞 尹致昭氏家は 元 朴泳孝집이다. 甲申政變 때가 불과 몇해 안이언만은 桑田碧海 그 얼마나 變遷이 되었는가.²⁾ 그리고 慶雲洞 師範學校 女子演習科 教室 附屬普通學校 師範科 寄宿舍는 元 博文局이니 朝鮮의 新聞 元祖 漢城旬報를 創刊한 곳이다.(후략)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事件 수습책 지시와 이에 따른 回報

발 송 일 : 1895년 7월 10일 오전 6시 발신

발 송 자 : 代理公使 杉村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西園寺

昨九日發井上公使ノ電報二通落手セリ本官ハ始メヨリ朴派ノ過激手段ヲ執ル事ヲ戒メ頗ル苦心シタル程ナリ顧問官ノ中ニモ今日トナリテハ朴派ヲ保護スルモノナシ但朴氏逃亡之日民間ニ激昂ノ模様アリシモ是レヲモ防キ止メタリ依リテ御安心相成タシ○朴ノ餘類ハ李圭完申應熙ハ逃亡シ其他ハ依然出勤シ淺山恒屋モ同斷出勤セリ徐光範モ亦無事出勤セリ○佐々木留藏ハ報知新聞ノ通信員尾崎行雄ノ子分ト自稱シ性質直シカラズ日本人ニテ之ト交ハルモノナシ同人ハ朴泳孝ニ因ッテ韓廷ニ雇ハレン事ヲ求メ痛ク斥ケラレタル爲メ深ク朴ヲ怨ミ居レリト云フ○金宏集入閣ノ件ハ内々悉カシ居レトモ朴定陽腰ヲ据ヘテ動カズ國王モ亦之ニ動スヲ好マセサル様子ニ付困マリ居レリ

어제 9일 발신한 이노우에(井上) 공사의 전보 두 통 접수하였음. 본관은 처음부터 朴派가 과격수단을 취하는 것을 제지하느라 매우 고심하였음. 고문관 중에도 오늘날에 와서는 朴派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음. 단, 朴氏가 도망하는 날 민간에서 격분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이것 역시 방지하였으니 안심하시기 바람.

2) 갑신정변 전 박영효가 거주한 곳은 경운동 88번지와 니동 일대임에도 안국동 8번지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 朴의 잔당인 李圭完·申應熙는 도망하고 기타는 여전히 출근하였으며 淺山·恒屋도 같이 출근하고 있음. 徐光範도 역시 무사히 출근하고 있음.
- 佐佐木留藏은 報知新聞 통신원 尾崎行雄의 부하라 자칭하고 성질이 곧지 못함. 일본인으로 그와 교제하는 사람이 없음. 同人은 박영효에게 부탁해서 조선 조정에 고용되기를 바랐으나 통렬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朴을 몹시 원망하고 있었다고 함.
- 金宏集이 入閣하는 건에 대해서는 은근히 모두 수궁하고 있었지만 박정양은 좌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국왕도 역시 그를 이동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 하는 김세이므로 곤란을 받고 있음.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 등 그 후 動靜報告 件

문서번호 : 兵發秘第160號의 2

발 송 일 : 1895년 7월 11일

발 송 자 : 兵庫縣知事 周布公平

수 신 자 : 外務大臣 侯爵 西園寺公望

박영효 등의 그 후의 동정을 아래와 같이 들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1895년 7월 11일

兵庫縣知事 周布公平

外務大臣 侯爵 西園寺公望 殿

目下當部內滞在ノ朴泳孝ハ京城小安洞在留恒屋盛服トハ常ニ書信ノ往復ヲ爲シ居候處恒屋ニ於テハ朴泳孝ノ家族ヲ庇護シ居レリトノ聞込モ有之候ニ付右事實ナラハ單ニ夫等ニ關スル通信ニモ可有之候ヘ共多分ハ同國政治上ニ付氣脈ヲ通スルノ媒介ヲ爲スモノナラント想像致候右ハ當方視察上大ニ參考ト可相成義ニ付恒屋カ時々通信スルハ如何ナル事柄カ又朴泳孝ヨリハ何等ノ事ヲ通信シ居ルカ恒屋ノ舉動等トモ御内偵ノ上御報煩度此段及照會候也

2.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박영효는 경성 소안동에 거류하는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³⁾와는 자주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생각전대 주로 본국의 동정을 탐지하고 본국 동지들과 기맥을 통하는 데 그 사람을 매개로 삼은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박영효의 가족은 지금 현재 츠네야의 비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후략)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在韓中인 恒屋盛服과 朴泳孝와의 交渉探偵 依頼

문서번호 : 兵發秘第一六四號ノ三

발 송 일 : 明治二十九年七月十三日 (1896년 7월 13일)

발 송 자 : 兵庫縣知事 周布公平

수 신 자 : 外務大臣 侯爵 西園寺公望

京城駐在領事ヘ別紙之通リ致照會候條此段申報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十三日

兵庫縣知事 周布公平 印

外務大臣 侯爵 西園寺公望 殿

○ 別紙

[內田領事에게 보낸 公文]

3) 박영효의 지인으로 그의 추천에 의하여 관보국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兵發秘第一六四號ノ二

目下當部内滞在ノ朴泳孝ハ京城小安洞在留恒屋盛服トハ常ニ書信ノ往復ヲ爲シ居候處恒屋ニ於テハ朴泳孝ノ家族ヲ庇護シ居レリトノ聞込モ有之候ニ付右事實ナラハ單ニ夫等ニ關スル通信ニモ可有之候ヘ共多分ハ同國政治上ニ付氣脈ヲ通スルノ媒介ヲ爲スモノナラント想像致候右ハ當方視察上大ニ參考ト可相成義ニ付恒屋カ時々通信スルハ如何ナル事柄カ又朴泳孝ヨリハ何等ノ事ヲ通信シ居ルカ恒屋ノ舉動等トモ御内偵ノ上御報煩度此段及照會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十三日

兵庫縣知事 周布公平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1895년 6,7월 중 朝鮮王宮 호위병 交替事件으로 宮中과 內閣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끝내 사건이 일변하여 朴泳孝가 그 職에서 罷職당하고 체포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日記

문서번호 : 機密第71號

발 송 일 : 1895년 7월 12일

발 송 자 :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수 신 자 : 外務大臣代理 侯爵 西園寺公望

初メ國王ハ新官制實施ノ結果トシテ君主ノ權力ハ內閣ニ奪去ラレタル者ト誤了シ何卒シテ之ヲ恢復セン事ヲ希望セラレ陰ニ近侍ノ人々ヲ魯米等ノ公使館ニ派シ其助力ヲ懇求セラレタル事ハ追々漏聞シタル所ナリ當時內閣諸大臣ノ内ニモ朴内部大臣ヲ始メトシテ深ク之ヲ憂慮シ密議ヲ凝セン上第一舊護衛兵ヲ廢シテ新訓練兵ヲ以テ之ニ代ラシメ第二常ニ宮中ヨリ各館ニ往來スル二三ノ宮内官吏ヲ轉任若クハ廢黜シテ以其禍根ヲ絶タン事ヲ計畫シ先ツ近衛兵交代ノ事ニ着手シタルハ蓋シ本年六月二十二三日ノ事ト聞キヌ軍部大臣代理李周會ハ朴氏崇拜ノ一人ナルガ其主務ノ事トテ國王ノ好マセラレザルニモ拘ハラス近衛兵入替ノ事ヲ毎日奏上シテ凡ソ三日程打續ケタル處國王ニハ痛ク不快ニ感セラレ最後總理大臣ヲ呼フベシトノ御沙汰アリタリ依テ同月二十五日 朴總理參内シタル處國王ニハ激怒シテ近衛兵入替ノ事ハ朕ノ好マザル所ナルニ內閣ガ強テ之ヲ請フハ不都合ナリトノ御沙汰ヲ受ケ朴總理ハ歸閣シテ御沙汰ノ趣ヲ傳ヘタル處內閣大臣ノ内ニ深ク之ヲ咎責スルモノアリテ總理ハ恰モ板挾ノ姿ト爲リ終ニ辭表ヲ奉呈セリ是ニ於テ各大臣ノ氣大ニ阻喪シ發議者タル朴内部ノ氣色常ニ似ストノ報ニ接セリ

同二十六日 本官ハ右ノ報告ニ接到シ且ツ兼テ近狀探聞シタル廉モ有之ニ付早朝齋藤岡本ノ兩顧問官ヲ招キ内々打合セヲ爲シ翌二十七日ヲ期シ各顧問官ヲ會スル事ト爲セリ是日李圭完及ビ淺山顯藏ヲ招キ政府ノ内情并朴氏ノ懷ケル善後ノ方案ヲ尋ネタルモ其要領ヲ得ザリシ

同二十七日 各顧問官ヲ會シ相談ノ上穩和的手段ヲ以テ現內閣ヲ援助スル事ニ略ホ談決シ

同二十八日 再ビ之ヲ會シ各自執ル可キ手續ヲ談決シ先ツ淺山ヲ以テ朴氏ガ我々依頼スル心アリヤ否ヤノ意向ヲ探ラシメタルニ當時朴氏ハ激憤ト憂悶ノ心交々相發スル様子ニテ當方ノ勸告ヲ傾聽スル色ナキ旨翌二十九日朝來報セリ右現內閣援助ノ方案ハ當時電報シタレバ茲ニ之ヲ略ス

同二十九日 午後俄米兩公使來館シテ朴氏ノ身上ニ付勸告的ノ談話アリ委細ハ機密報告ノ通リナリ依テ其趣ヲ齋藤氏ニ內報シ明早朝朴氏ニ面會ヲ得度旨申入レタル處齋藤氏モ稍驚キタル様子ニテ其夜十二時過キ協議ノ爲メ來館セリ

同三十日 前七時頃田中賢道ヲ招キ朴氏等萬一過激手段ヲ執ル様ノ事アリテハ甚タ不得策ナレバ自己ノ意見トシテ忠告ス可キ旨ヲ依囑シ置キ同九時頃本官朴氏ヲ尋ネ「俄米兩公使勸告ノ次第モアレバ此際熟考ヲ要ス可キ時ナリ決シテ輕舉大害ヲ招致ス可カラザル旨」ヲ極メテ穩ニ忠告シタル處朴氏モ稍々耳ヲ傾ケ「拙者モ昨夜來熟考スルニ此際過激手段ヲ執ルハ得策ニアラザル事ヲ悟リタレバ暫ク手ヲ緩ム可シ乍去今一步ヲ退クトキハ忽チ敵ニ乗ゼラル可ケレバ唯是レノミ掛念ニ堪ヘズ」ト申スニ付本官「其レニハ相當ノ防禦法アル可キニ付追々御相談ニ及フ可シ」ト相答辭シ去レリ是日午後宮内官吏李夏榮來リテ井上公使ノ來否ヲ尋ネタ刻又

宮内大臣秘書官鄭萬朝來リテ同様ノ問ヲ爲シ且ツ宮内大臣代理金宗漢氏ノ來會ヲ約シテ立去レリ本日井上公使ノ來電ニ接シタルニ付明朝ヲ期シ朴氏ノ來館ヲ促セリ又本日三田育種場持主水口某ノ招キニ應ジ朴泳孝以下朝鮮人數名外ニ日本人數名網引ノ爲メ龍山ニ赴ケリ本官ハ辭シテ之ニ應セザリシ

七月一日 朝星氏來館シテ「竊ニ聞ク所ニ據レバ朴氏等ハ近衛兵交代ヲ斷行ス可シ其手段ハ先ツ訓練隊ヲ入レテ宮殿ヲ守リ舊衛兵ヲ逐出ストノ事ナリ其際萬一ニモ國王ニハ俄館ニ潛幸セラレテハ一大事ナレバ國王ノ潛幸ヲ豫防スルハ我急務ナラン」トノ密話ニ付本官ハ「左様ノ掛念ハ斷シテ可有之筈ナシ若シ之レアラバ朴氏ハ余ヲ欺ク者ナリ加之金外部魚度支申軍部ノ三人深ク余ノ說ニ贊成ヲ表シ必ス閣議ヲ改メテ穩和手段ヲ執ル可シト申居レバ(昨日國分書記生ヲ外部度支ノ兩大臣方ニ派シ過激手段ヲ執ルノ不可ナル事ヲ忠告シタル處右二大臣ノ外申軍部モ深ク同意ノ趣ヲ聞ケリ)斷シテ斯カル輕舉ニ及フ可キ筈ナシ」ト相答置キ尙ホ其說ノ出處ヲ尋ネタルニ恒屋盛服ガ前夜ニ語リシト云フ事相分リタルニ付直チニ同氏ヲ招キタリ右談話中齊藤仁尾岡本氏等來館引續キ石塚武久氏モ來館セリ依テ之ヲ齊藤氏ニ問フニ斷シテ斯カル輕舉ノ企ナシト云ヘリ同日晝頃朴氏來館ニ付之ヲ一室ニ引キ竊ニ星氏來談ノ事實ヲ質問シタルニ全ク傳説ノ誤謬ニ出テタルモノト推定セラレタリ依テ重テ過激手段ヲ執ル可カラザル旨相戒メ「若シ訓練隊ハ王室ニ向テ暴舉ニ及ブトキハ時宜ニ因リ我守備隊ヲ以テ之ヲ打拂フ可シト」申入レタル處朴氏ハ「決シテ斯カル非舉ニ及ハザルニ付御安心アレ」ト申出ニ尋テ恒屋來館ニ付風說ノ出處ヲ尋ネ果シテ其誤傳ニ出タル事相分リタルモ本官念ノ爲メ守備隊長ヲ招キ近狀ヲ話リ注意ヲ與ヘ置キタリ此夜金宗漢鄭萬朝ノ兩人來館ニ付今回興リタル衝突ノ原因ト宮中ノ模様トヲ尋ネ略々其要領ヲ得タリ

同二日 本日ノ閣議ニテ近衛兵交代ノ議ハ當分見合セル事ニ議決シタル旨洩レ聞キヌ是日ハ外間ノ景況大ニ治リ民情漸ク靜謐ニ向ヘリ

同三日 午後本官參内内謁見ノ時國王ヨリ「近日ノ事ハ卿モ熟知セシナラン兎ニ角無事ニ治リタルニ付朕ハ大ニ安心セリ」トノ御沙汰アリタリ

同四日 昨日來外間ノ景況益々靜謐ナリ其後探聞セシ所ニ據レバ朴氏ヲ仆サントシタル計畫ハ本日其端緒ヲ開キ朴氏隱謀ヲ企居ルトノ事兪吉濬ヨリ先ツ金宏集ニ告ケ且ツ沈相薰洪啓薰等ト沈或ハ洪ノ宅ニ會シ密議シタリト云フ(事ノ興リシ順序ニ付種々ノ說アレトモ大同小異ナリ委細ハ別ニ報告ス可シ)

同五日 無事

同六日 午後四時金宏集參内其前國王ヨリ宮内官吏ヲ城外ノ別邸ニ派シ之ヲ招カレタリ同五時兪吉濬已下内部官吏及雇日本人等多數齊藤顧問官ノ宴會ニ招カレ同八時頃退散其歸途兪吉濬ハ召ニ應ジテ直チニ參内シタリ同九時過キ朴氏ハ齊藤氏寓ニ來リ「形勢切迫到底見込ナシ且ツ本日金宏集參内シタリト聞ケバ必ス異變アル可シ如何ニ進退シテ可ナラント相談アリシモ齊藤氏ハ別ニ意見ヲ述ベズ明朝マデ熟考ス可キ旨相答凡一時間計モシテ朴氏辭去レリト云フ是夜朴氏免職ノ辭令ト朴泳孝陰圖不軌云々ノ詔勅ヲ發セラレ夜半該詔勅ヲ城内各處ニ貼附セシメタリト云フ同夜金宏集特進官ニ任セラレタリ

同七日 昨夜來屢々警務使李允用ヲ招カレタルモ同氏恐ヲ懷キ參内セザルニ付急使ヲ宏嗣壽ノ宅ニ遣シ其參内ヲ促サレタリ然ルニ同氏始メハ遲疑シテ立タス再三使ヲ受ケ漸ク午前二時頃ニ及ンデ參内シ御前ニ進ミタル處直チニ警務使ニ任セラレ前總理金宏集ノ命ヲ受ケテ事ニ從フ可キ旨併セテ御沙汰アリシト云フ是時金宏集氏ト共ニ座ニアリシ重ナル人々ハ朴定陽、金宗漢、兪吉濬、沈相薰、洪啓薰等ナリト同四時過安嗣壽警務廳ニ到リ朴氏逮捕ノ準備ニ取掛リ(準備甚々緩慢ナリ彼等深意ノ所在ヲ推知スルヲ得可シ)五時頃ニ及ンテ先ツ探偵ヲ朴氏ノ邸ニ派シタル處其前四時少シ過クル頃前警務使李允用ハ駢越シニ朴氏ヲ招キ逮捕ノ事ヲ密告シタルニ付(朴邸ト李邸ト裏合セナリ)朴氏ハ急ニ衣ヲ整ヘ驢馬ニ跨リ泥岨(日本人ノ多く居留スル處)ヲ指シテ其邸ヲ出テタリ同四時半頃ニ及ンテ本官ハ突然外部大臣來館ノ報ニ接シタルニ付何事ナラント急キ起床シ衣ヲ調ヘ官舎ヨリ公使館ニ赴キ接見シタル處同大臣ヨリ「朴泳孝ハ陰圖不軌ト云フ事ニテ昨夜各大臣ヲ宮中ニ召サレ逮捕ノ命下レリ同人ハ日本ノ知人多キニ因リ逮捕ノ際或ハ之ヲ妨害スルモノアランモ難計ニ依テ豫メ取締アラシム事ヲ大君主ノ勅命ニ依テ貴下ニ希望ス」トノ依頼有之候ニ付本官ハ委細承知セリト相答居ル處ニ朴氏其席ニ飛入り變事興リシ由ヲ告ケ金外部ト二三ノ言語ヲ交ヘタル後外部ハ直ニ辭去レリ引續キ李圭完申應熙外朴氏一派ノ日韓人六七名來館頻リニ逃亡ノ協議ヲ爲セシニ付本官ハ先ツ岡本・齋藤・星ノ三氏ヲ招キ協議セシニ

此際朴氏ノ希望ニ任スル外致方ナカル可シトノ議ニ一決シ同六時過キ朴氏一行ハ本館裏門ヲ出テ間道南大門ニ至リ龍山ニ向ヒ夫ヨリ小汽船ニテ仁川ヘ逃レタリト云ヘリ朴氏在館中朝鮮巡查本館門前マデ來リシ趣ナルモ強テ彼等ノ逃路ヲ遮リ之ヲ捕縛セントモ爲ササリキ其日國王ヨリ各大臣ヲ宮中ニ召サレ同晝頃ニハ徐法部大臣ヲ除キ孰モ參内シタリ尤モ徐法部モ同九日參内御前會議ニ列席シタリト聞ク其他朴派ト稱セラル、人々ハ孰モ出勤シ朴氏ノ邸宅并家族皆無事ナリ

右ハ本年六月二十五日朴總理辭表以後ニ係ル事歷ノ大要ニ有之候此ニ由テ之ヲ觀レバ朴氏ハ內閣ノ協同ヲ以テ押シテ近衛兵ノ交代ヲ圖ラントシタルノ外所謂王妃弑害ノ陰謀アリシトハ少ク思慮アルモノハ何人モ信セザル所ニ有之候尤モ朴氏ハ國王ノ御承諾ナキニモ拘ハラス強テ近衛兵ヲ交代セシメント圖リ國王々妃ヲシテ恐懼ノ念ヲ興サシメタルハ事實ト聞コルニ付反對ノ人々ハ或ハ其間ニ乘ジテ之ヲ除カント欲シ陰ニ兩陛下親近ノ人々ト相結托シ遂ニ彼ニ蒙ラシムルニ「陰圖不軌」ノ四字ヲ以テシタルニアサラルカ果シテ然ラバ則全ク黨派上ノ爭鬭ニテ實ニ惡例ヲ開キタルモノト存候

猶ホ詳細ノ事ハ取調ノ付キ次第追々御報可及候

右及內報候也

明治二十八年七月十二日

臨時代理公使 杉村濬

外務大臣臨時代理 文部大臣 侯爵 西園寺公望 殿

당초 국왕은 新官制 실시의 결과로 군주의 권력을 내각에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회복시키기 바라 몰래 近侍人을 러시아·미국 등 각국 공사관에 파견하여 그들의 助力을 懇求하게 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차차 알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朴 内部大臣을 비롯한 내각 여러 대신 중에서도 깊이 이것을 우려하여 密議를 거듭한 끝에 첫째, 舊 護衛兵을 폐하여 新 訓練兵으로 교체하고 둘째, 일상적으로 궁중으로부터 각국 공사관에 왕래하는 2~3명의 宮内府 관리들을 轉任 또는 廢黜하여 그 화근을 단절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먼저 近衛兵을 교체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 아마도 올해 6월 22,23일의 일이라고 들었다. 또 軍部大臣代理 李周會는 박씨를 숭배하고 믿는 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관하는 일이라 하여 국왕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위병 교체의 일을 매일 上奏하여 거의 3일간을 계속하였던바 국왕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최후에 총리대신을 부르라는 분부가 있었다. 이에 따라,

6월 25일 朴 總理가 參内하였던 바 국왕이 격노하여 "근위병을 교체하는 일은 朕이 좋아하지 않는 바임에도 내각이 굳이 이것을 주청하는 것은 패썹하다."라는 분부가 계셨고, 이 분부를 받은 朴 총리는 내각에 돌아와 그대로 전하였다. 그랬더니 내각대신 가운데 크게 이것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리는 흡사 틈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었으며, 끝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각 대신들의 사기는 크게 沮喪되었고 발의자인 朴 내부의 기색도 평소와는 같지 않았다는 보고를 접하였다.

6월 26일 본관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고 또한 전부터 근황을 탐문한 바도 있었으므로 아침 일찍 齋藤과 岡本 두 고문관을 불러 남몰래 미리 상의하고 다음날인 27일을 기하여 각 고문관들을 회동하게끔 하였고, 또 이날 李圭完 및 淺山顯藏을 불러 정부의 속사정에 관하여 박씨가 품고 있는 善後策을 물어 보았으나 요령부득이었다.

6월 27일 각 고문관들을 만나 상담한 끝에 온화한 수단으로 현 내각을 원조하기로 대략 결론이 났다.

6월 28일 재차 고문관들을 만나 각자가 집행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먼저 淺山을 시켜 박씨가 우리에게 의뢰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의향부터 탐색하게 하였던바, 당시 박씨는 격분과 번민의 심정이 격발한 모양이어서 이쪽의 권고를 경청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고 다음날인 29일 아침에 淺山이 알려왔다. 위와 같은 현 내각 원조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보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한다.

6월 29일 오후 러시아와 미국 공사가 공사관에 와서 박씨의 신상에 대하여 권고적인 담화가 있었고 그 상세한 내용은 기밀보고 드린 그대로이다. 그리하여 그 취지를 齋藤 씨에게 비밀히 알리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박씨와 만나주기 바란다는 말을 전했더니 齋藤 씨도 약간 놀란 모양으로 그날 밤 12시가 지나

서 협의를 하기 위해 와서 얘기하였다.

6월 30일 오전 7시경 田中賢造를 불러, 박씨 등이 만일 그와 같은 과격수단을 취하게 되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니 그러지 말라고 田中 자신의 의견으로 해서 충고할 것을 위촉하고 동 9시경 본관은 박씨를 찾아가서 "러시아와 미국 공사가 권고한 바도 있으니 지금은 숙고를 요할 때이다. 결코 경거망동하여 큰 해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아주 조용한 말로 충고하였던바, 박씨도 차츰 귀를 기울여 "저도 지난 밤 이래 숙고하였는데 이번에 과격수단을 취하는 것은 유리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잠시 손을 늦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걸음 물러설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니 오직 이것만이 염려된다."고 말하므로, 본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어책이 있으므로 차차 서로 의논하자."하고 헤어졌다. 이날 오후 宮內관리 李夏榮이 와서 井上 公使의 도착 여부를 물었고 저녁에 또 궁내대신 비서관 鄭萬朝가 와서 같은 것을 물었으며 동시에 궁내대신대리 金宗漢 씨의 내방을 약속하고 갔다. 이날 井上 공사의 來電을 접수하였으므로 다음날 아침에 꼭 내관하도록 박씨에게 독촉하였다. 또 이날 三田育種場 주인 水口某의 초대에 응하여 朴泳孝 이하 조선인 여러 명 외에 일본인 여러 명이 고기 잡이를 하기 위해 龍山에 갔으나 본관은 사양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7월 1일 아침 星 氏가 내관하여, "은밀히 들은 바에 의하면 박씨 등은 근위병 교체를 단행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먼저 훈련병을 들여보내 궁궐을 지키게 하고 구 호위병을 축출한다는 것이다. 그때 만에 하나라도 국왕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潛幸하게 되면 큰일이므로 국왕의 잠행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급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비밀이야기를 하기에 본관은 "그와 같은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같은 일이 생기면 박씨는 나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金 外部·魚 度支·申 軍部 등 3명은 내가 설득하는 말에 대해 깊은 찬성의 뜻을 표하였고 꼭 閣議를 다시 고쳐 온화한 수단을 취하겠다고 말한바 있었으니 (어제 國分 書記生을 외부·탁지 두 대신에게 파견하여 과격수단을 취함은 불가하다고 충고하였던바 위 두 대신 외에 申 군부도 크게 찬성하였다고 들었음.) 결코 그 같은 경거망동을 일으킬 리가 없다."라고 대답해놓았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의 출처를 물어보고 츠네야 모리노리가 전날 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음을 알게 되어 곧바로 同氏를 불렀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齋藤·仁尾·岡本 씨 등이 내관하였고 이어 石塚武久 씨도 내관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해 齋藤 씨에게 물어보았더니, 결코 그 같은 경거망동의 일을 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날 낮에 박씨가 내관하였으므로 별실로 인도하여 은밀히 星 씨가 密報한 사실에 대해 질문해보니 전적으로 와전되어 생긴 일로 추정되었다. 그래서 거듭 과격수단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약 훈련대가 왕궁을 향하여 횡포한 거동을 할 경우에는 時宜에 따라 우리 수비대가 출동하여 이를 타도하겠다."고 말하였더니 박씨는 "절대로 그 같은 非理的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라."고 말하였다. 이어 츠네야가 내관하였으므로 풍설의 출처를 물어보고 과연 그것이 잘못 전해진 데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본관은 이를 더욱 확실히 해두기 위해 수비대장을 불러 군황을 설명해주고 주의를 시켰다. 이날 밤 궁내대신 김종한과 秘書官 정만조 두 사람이 내관하였으므로 이번에 일어난 총돌사건의 원인과 궁중의 상황 등을 물어 대략 그 요점을 알았다.

7월 2일 이날 각의에서 근위병 교체의 논의는 당분간 관망하기로 의결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날 外間의 경황은 크게 안정되고 民情 또한 점차 조용해졌다.

7월 3일 오후 3시 본관이 입궐하여 알현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근일에 있었던 사태는 卿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무사히 일이 수습되어 크게 안심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7월 4일 어제부터 외간 상황이 더욱 조용해졌다. 그 뒤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박씨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계획은 오늘날 그 실마리를 다시 열었으며 박씨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兪吉濬이 먼저 金宏集에게 고하고 또한 沈相薰·洪啓薰 등이 沈 또는 洪의 집에 모여 密議하였다고 한다. (일이 벌어지게 된 순차적인 일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동소이함.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7월 5일 무사했다.

7월 6일 오후 4시 김홍집이 입궐하였는데 이는 이에 앞서 국왕이 궁내 관리를 성박 別邸에 파견하여 그

를 불렀기 때문이었다. 동 5시 유길준 이하 내부 관리 및 고용된 일본인들 다수가 齋藤 고문관의 연회에 초대되어 동 8시경 흠어져 있는데 그 귀로에 유길준은 召命에 의하여 곧바로 입궐하였다. 동 9시가 지나 박씨는 齋藤 씨 집에 가서 "형세는 절박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으며 또한 오늘 김홍집이 입궐하였다고 들었으니 틀림없이 이번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 것인가."라는 의논을 했지만, 齋藤 씨는 별로 의견을 말하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숙고하자는 뜻으로 대답하였고 대략 1시간쯤 지나 박씨는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밤 박씨에 대한 면직 사령장과 박영효가 반역음모를 도모했다는 조칙이 발포되었고 한밤중에 그 조칙을 성안 곳곳에 붙이게 하였다 한다. 그날 밤 김홍집은 特進官에 임명되었다.

7월 7일 어젯밤부터 여러 번 警務使 李允用을 불렀지만 同氏는 겁을 먹고 입궐하지 않았으므로 급히 사람을 安駟壽 집에 보내 그의 입궐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동씨는 처음에는 주저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으나 재삼 재촉을 받고는 겨우 오전 2시경에 가서야 입궐하여 어전에 나아갔는데, 곧바로 즉석에서 경무사 임명을 받고 아울러 전 총리 김홍집의 명을 받아 일에 착수하라는 분부를 받게 되었다 한다. 이때 김홍집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주요한 인사들은 박정양·김종한·유길준·심상훈·홍계훈 등이었다고 한다. 같은 날 4시 지나 안경수는 경무청에 가서 박씨의 체포 준비에 착수하였으며(준비가 심히 완만하였으니 저들의 속뜻의 소재를 추측할 수 있음.) 5시경에 가서야 먼저 탐정을 박씨 집에 보냈는데, 이보다 앞서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전 경무사 이윤용은 담장 너머로 박씨를 불러 체포령이 내려졌음을 밀고하였으므로(박씨 집과 이 씨 집은 앞뒷집이었음.) 박씨는 급히 의복을 차려입고 나귀를 몰아 泥岷(일본인이 많이 사는 곳)을 향해 자기 집을 나왔다. 동 4시 반쯤 되어 본관은 돌연 외부대신이 내관한다는 보고를 받고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기상하여 옷을 입고는 관사로부터 공사관에 가 접견하였던바, 그 대신으로부터 "박영효가 반역을 음모하였다 하여 어젯밤 각 대신을 궁중에 불러들여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는 일본인을 많이 알기 때문에 체포 시에 혹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미리 단속해줄 것을 대군주의 칙명에 의하여 귀하에게 희망한다."라는 의뢰가 있었으므로, 본관은 모두 잘 알아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박씨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와 변고가 일어난 연유를 고하였고, 金 外部와 약 10분간 담화한 후 金 외부는 곧바로 물러갔고 뒤따라 李圭完·申應熙 외 박씨 일파의 日·韓人 6,7명이 내관하여 도망갈 일에 대해 열심히 협의하였다. 그래서 본관은 우선 岡本·齋藤·星 등 3명을 불러 협의하였던바, 이번에 박씨의 희망에 일임하는 것 외에 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동 6시 지나 박씨 일행은 本館 뒷문을 빠져나가 셋길로 南大門에 이르러 용산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小汽船으로 仁川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박씨가 공사관에 있을 때 조선 순사가 공사관 문 앞까지 왔었지만 굳이 그들의 도피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포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국왕이 각 대신을 궁중에 부르시어 그날 낮쯤에는 徐 法部大臣을 제외하고 모두 입궐하였다. 그러나 徐 법부도 동 9일 입궐하여 어전회의에 列席했다고 들었다. 그 밖에 朴派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도 모두 출근하고 있으며 박씨의 저택 및 가족들도 모두 무사하다.

이상은 올해 6월 25일 朴 총리의 사직 이후에 일어난 사건 과정의 대강입니다. 이에 따라 관찰하여 볼 때 박씨는 내각과 협동해서 억지로 근위병 교체를 도모한 것 이외에 이른바 왕비 시해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사려가 있는 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박씨가 국왕의 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근위병을 교체시키려고 꾀하여 국왕과 왕비로 하여금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반대파 사람들은 어쩌면 이 틈을 타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암암리에 두 폐하 친근자들과 결탁하여, 결국 박씨에게 "陰圖不軌"라는 4자의 반역모의죄를 덮어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곧 전적으로 당파적인 싸움으로 실로 나쁜 예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조사가 되는 대로 차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밀보고 드립니다.

1895년 7월 12일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外務大臣代理 侯爵 西園寺公望 殿

위 본문 중 극히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각사등록 - 法部來案

제 목 : 피고 김준용·정순영 등의 謀亂事件에 필요한 증인 일본인 恒屋盛服의 소환·대질을 요청

문서번호 : 照會 第十七號

발 송 일 : 建陽二年七月三十一日(1897년 7월 31일)

발 송 자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高

수 신 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閔種默 閣下

高等裁判所 檢事 李徽善의 報告를 刻接호은즉 被告 金俊龍 鄭淳榮等の 亂을 謀호던 事件에 對호야 小安洞에 寓住호는 日本人 恒屋盛服이가 必要호 證人인줄 裁判場에 現露호았스즉 該人을 招質後에야 此案을 可以 公決이옵기 茲에 報告等因이온바 准此仰佈호오니 貴部로서 日館에 知照호야 該人을 招待質辨케 호심을 爲要.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高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閔種默 閣下 建陽二年七月三十一日

■ 각사등록 - 法部來案

제 목 : 謀亂被告事件의 증인 일본인 恒屋盛服의 고등재판소 출두에 동역 일본인을 동반한다고 알림

문서번호 : 照覆 第九號

발 송 일 : 建陽二年八月十日(1897년 8월 10일)

발 송 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閔種默

수 신 자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高 閣下

曩에 貴照會를 接호은즉 高等裁判所檢事 李徽善의 報告를 據호야 日本人 恒屋盛服을 日館에 知照호야 招待 質辨케 호라 호신바 此를 准호야 查호니 該恒屋이 係是平民云 則日本領事の 管轄인 故로 漢城府判尹 李采淵의게 訓飭호야 日領事の게 轉照호야 該恒屋으로 裁判所에 來到호야 暫作證明케 호라 호았더니 昨日酉刻에 該覆를 接據호은즉 內開에 貴第五號訓令을 承准호와 日館에 照會호았더니 卽接來文호은즉 內開에 貴國人 金俊龍 鄭淳榮等 謀亂被告事件에 關호야 本邦人 恒屋盛服의 證言을 爲要之事로 該人을 貴高等裁判所에 出場케 호라신 事로 去五日 貴照會 第三十一號로써 知照호심을 閱悉호와 右意를 本人의게 訓飭호았더니 明十日 午後一時에 該裁判所에 出頭호깃단 意로 申稱호은 本人는 貴國語에 未熟호고로 別노히 貴國語知호는 我國人 一名을 添附호야 同伴호터이니 以此照諒호시기를 爲호야 回答等因이온바 此를 准호와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심을 爲望等情 此를 據호야 茲에 照覆호오니 照諒호오서 高等裁判所에 訓知호심을 要호.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閔種默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高 閣下 建陽二年八月十日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爆彈 投下 事件 續報

문서번호 : 往63

발송일자 : 1899년 6월 14일 오후 1시 발신

발 송 자 : 日置 代理公使

수 신 자 : 青木 外務大臣

連夜各所ニ爆裂彈ヲ投スルモノアリ城内ノ人心稍々不穩ナルノ際昨日午後七時過小安洞舊朴泳孝邸內ニ同居スル金俊龍方ニテ右爆裂彈製造中誤ッテ爆發シ二人ノ卽死者ヲ出スヤ其筋ニテハ直ニ巡檢ヲ派シ之ヲ檢證セシメ該構內ニ居合セタル男女十四人ヲ拘引シ竝ニ書類其他一切ノ證據物ヲ沒收シタル由ニテ右書類中ニバ朴泳孝トノ往復書類モアリ又拘引者中男女共朴泳孝一族ノモノ多數加ハリ居ル由ニテ其口供ニ據レハ朴泳孝ト連絡アリシ事實明也トノ事又同家ニハ本邦人恒屋盛服居住シ且邸宅ノ全部カ同人ノ管理スル處ナルヲ以テ是亦關係者ノ一人ト認メラレタルモノ、如シ本件ニ關シテハ已ニ秋月領事ヨリ詳細電報シタルニ付此ニ概略電稟ス本官ハ這回ノ出來事ニ關シテハ韓皇帝及韓政府ハ疑團ヲ釋ク爲メ最モ公平ナル處置ヲ執ルヲ利益ナリト考フ

밤마다 각 곳에 폭탄을 던지는 자가 있어 성 안의 인심이 다소 불온할 즈음 어제 오후 7시를 지나 소안동의 옛 박영효 저택에 동거하는 김준용 방에서 위의 폭탄을 제조하던 중 잘못 폭발하여 두 명이 즉사하자 당국에서는 즉시 순검을 보내어 이를 검증시켰으며 그 집안에 있던 남녀 14명을 구인하고 아울러 서류 기타 일체의 증거물을 몰수했음. 이 서류 중에는 박영효와의 왕복 서류도 있고, 또 구인자 중 박영효의 일족인 남녀가 다수 끼어 있었음. 그 자백에 의하면 박영효와 연락이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 또 그 집에는 일본인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가 거주하고 또한 저택 전부를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관련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같음.

본건에 관해서는 이미 秋月 領事가 상세히 진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개략만을 電稟함. 본관은 지난번 사건에 관해서는 韓國 황제 및 한국 정부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도 가장 공평한 조치를 취함이 이익이라고 생각함.

6월 14일 오후 1시 발신

日置 代理公使

青木 外務大臣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家 火藥爆發事件으로 把守하던 日巡查 撤收要求

문서번호 : 照會第55號

발 송 일 : 1899년 6월 14일

발 송 자 :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

수 신 자 : 大日本 臨時代理公使 日置益

大韓外部大臣朴齊純

爲照會事照得本日接到我內部大臣來文內開據警務使南命善報稱本月十三日下午五時間爆藥忽發於北署小安洞顛覆家屋三間傷損人命二口該屋宇係前日朴泳孝所住處轟爆根因由於搗成火藥不容不另查處辦該家居接男女十五人一併拿致并將搗藥木臼提到本廳現方嚴嚴端緒掀露貯存之藥物理應搜索有日本巡查八名把守該家我警察官吏不得攔入等情據此照會請即知照日本公使亟撤巡查等因准此查該犯等自可究覈置法惟火藥係危險之物亟應搜聽總其禍根我警察官吏自行其所有之權貴國巡查未必攔阻相應備文照會貴臨時代理公使請煩查照轉飭該巡查等即行撤回俾便搜索可也望切見覆須至照會者

右照會

外部之印

光武三年六月十四日

大日本 臨時代理公使 日置益 閣下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은 조회합니다.

오늘 접수한 우리 내부대신(內部大臣)이 보내온 공문에 개진한 것에 의하면, “경무사(警務使) 남명선(南命善)이 그의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이달 13일 오후 5시에 폭약이 북서(北署)에서 폭발하여 소안동(小安洞)의 가옥 3칸이 전복되었고 두 사람의 인명이 손상되었는데 전복된 가옥은 전에 박영효(朴泳孝)가 거주 하던 것으로서 폭발 원인은 화약을 찢어 만들 때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남녀 15인을 일괄 연행하고 그 화약을 찢던 나무절구를 본청(本廳)에 가져다 지금 엄중하게 그 단서를 조사하고 있다. 쌓아둔 약 물이 불쑥 나타났으니 당연히 수색해야 하는데 일본 순사 8명이 그 가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 관리들이 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 조회를 통하여 요청하오니 즉시 일본공사에게 알려 빨리 파수하고 있는 순사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라.”고 한 것을 접수하였습니다. 생각하여 보건대, 그 범인들은 자체에서 법에 따라 조사구명해야 하나, 화약만 위험한 물건과 관계되니 시급하게 수색하여 그로 인한 화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 관리들이 자주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귀국 순사들이 꼭 이들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書面 照會하여 貴 臨時代理公使에게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조사하셔서 다시 그 순사들에게 즉시 철회하도록 조치하여 수색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이 답서가 貴使의 案下에 이르기를 빕니다.

위와 같이 조회합니다.

外部之印

1899년 6월 14일

大日本 臨時代理公使 日置益 閣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爆裂彈 投入에 관한 件

문서번호 : 機密第47號

발 송 일 : 1899년 6월 15일

발 송 자 : 日置 臨時代理公使

수 신 자 : 青木 外務大臣

去ル八日午後十時過キ 閏然暗ヲ破ツテ一發ノ彈聲響キ渡リ引續キ十一時過キト翌日午前零時五十分頃ト三回發響セリ第一回ハ水標橋附近ニアル朴宮內府特進官(定陽)第二回ハ倉洞ニアル申參政第三回ハ蘭洞ニアル朴掌禮院卿(箕陽)ノ邸宅ニ爆裂彈各一個ヲ投入シタルモノアルニ之レ依ル申參政ノ宅ニ於テ家僕一名輕傷ヲ負ヒタル外其他ノ二ヶ所ハ僅々ノ破壞ニ止リ被害者ラハ差シタル損害ヲ蒙ラサリシモ當國皇帝陛下ニハ一方ナラス狼狽セラレ夜半頃別入侍閔泳極等ヲ從ヘ英館ト米館トノ間ニアル宮殿ノ北隅ナル書籍庫ニ避ケサセラレ拂曉事ノ真相相分リタルニ及ヒ還宮セラルニ至リタリ然ルニ其翌九日ノ夜半ニ又趙中樞院議長(秉式)及其他ニ投入セリ依テ當京内外人ノ臆測ハ下ノ如ク傳ヘラレタリ第一申參政趙秉式等ハ寧ロ頑固派トモ稱スヘキモノ故今回ノ出來事ハ其反對派即チ舊獨立協會ニ係緣アル歟又ハ亡命者ニ一味アル歟ノモノヽ手ヨリ起リタルナラント第二否ナ朴定陽如キハ却テ協會派等ニハ因緣アリ朴箕陽如キハ可不可ナク從來兩黨ノ關係ナキモノ故彼等ノ住家ニ投入スル以上ハ何ニ歟別意味ヲ有スルモノヽ手ヨリ出テタラント第三亡命者若クハ協會派ノ手ヨリ出ルモ其嫌疑ヲ避ケン爲メ故サラニ同派ニハ因緣アル朴定陽等ニ反對ノ狀ヲ表シタルモノナラント然ルニ申參政ハ頃者外國人ノ注意ヲ惹キ其勸告ヲ受ケタル程ノ連坐法ヲ復活セントノ議ヲ政府議會ニ提出シテ亡命者若クハ協會派ノ骨角ヲ恐慌セシメツヽアル場合ナレハ該投入者カ如何ナル手段ヲ取ルトスルモ其人物ハ必ス第一說ノ外ニ出テサルナラント揣摩セラレタレ共兎ニ角事隱微ニシテ查問ニ未タ其端緒ヲ見出サヽルニ至ラス韓廷ノ大臣等ノ如キハ殊ニ危懼警戒ヲ重ネ十日ニ至リ申參政ヨリ上奏シテ警察ノ事務ハ最モ慎重ヲ要スルモノナルニ一昨夜砲響遠近ニ轟發シ昨夜又是變アリ壞ラルノ者ハ皆宰臣ノ家ナリ此事前ニ無キ所ニ係ル之レヲ尋常ノ盜匪ニ歸スヘカラス而初メヨリ之レヲ未然ニ防ク能ハス又事後ニ譏調スル能ハス兩夜ヲ經テ查トシテ捕拿審覈ノ舉ナシ況ンヤ(中略)苟モ能ク常時操筋スレハ則チ寧ロ此等ノ變アラシヤ溺穢ノ責免レ難キ所ニアリ警務使元禹常ノ本官ヲ免セン云々ト疏陳シタリシニ陛下ハ特ニ之ニ對シ三日ヲ限リ現警務使ヲシテ捕縛ノ實ヲ舉ケシメントノ批示ヲ下サレタリ同日夜ニ入り又李鍾健(前キニ警務使竝ニ贊政ヲ歷任シ現任宮內府特進官)ノ邸ヲ轟壞ス十一日ニ至リ匪徒ノ蹤跡查トシテ舉ラサルヲ以テ從二品南命善(前光州地方隊長)ヲ起シテ警務使ニ任セラレタリ同夜ハ警務使カ內國人ノ夜行ヲ禁止スルノ風說頻ニ行レ往來太タ寂寞ヲ極メタリ十二日夜ハ東大門內義州府尹方漢德事十三日午前一時頃南大門內巡檢交番所近傍ニ竝ニ二時頃警務中署書記房ニ同夜夜半筆洞ニアル兵士安淙浣ノ邸宅ニ發彈シ方府尹ノ處ニテ小兒等ヲ負傷セシメタリ 8일 오후 10시를 지나 갑자기 어둠을 깨고 한 발의 탄성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11시 지나서, 그리고 또 이튿날 오전 0시 50분경의 세 차례 폭탄이 터져 울렸습니다. 제1회는 水標橋 부근에 있는 朴 宮內府 特進官(定陽), 제2회는 倉洞에 있는 申 參政, 제3회는 蘭洞에 있는 朴 掌禮院卿(箕陽)의 저택에 폭발탄 각 1개씩을 투입한 자가 있어서, 이로 인해 申 參政 宅에서 家僕 1명이 경상을 입었고 그 밖에 두 곳에서는 약간의 파괴에 그치고 피해자들은 이렇다 할 만한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국 황제 폐하께서는 크

게 당황하셔서 한밤중 別入侍 閔泳極 등을 따라 英國 공관과 美國 공관 사이에 있는 궁전 북쪽 구석의 書籍庫에 피신하셔서 새벽녘에야 사건의 진상을 알고 환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9일 밤중에 또 다시 趙 中樞院 議長(秉式)과 그 밖의 집에도 폭발탄이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서울 내외 사람들의 억측은 아래와 같이 전해졌습니다.

첫째 “申 참정, 조병식 등은 오히려 완고파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므로 이번의 사건은 그 반대파, 즉 獨立協會에 인연이 있거나 또는 망명자의 일당과 관계가 있는 자의 소행일 것이다.”고 하는 설, 둘째 “아니다. 박정양 같은 이는 오히려 협회파 등에게는 인연이 있고 박기양 같은 이는 가타부타할 것 없이 종래 양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에 투입한 이상은 무엇인가 만 뜻을 가진 자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설, 셋째 “망명자나 협회파의 소행이라면,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同派와 인연이 있는 朴定陽 등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申 참정은 지난번에 외국인의 주목을 끌어 그들의 권고를 받았을 정도인 連坐法을 부활하려는 의안을 정부, 의회에 제출해서 망명자 혹은 협회파의 골수분자를 당황하게 한 자입니다. 이런 때이므로 그 투입자가 어떠한 수단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인물은 반드시 제1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추측되지만 어쨌건 사건이 은밀해서 査問에서 아직 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신들은 특히 危懼心과 경계를 거듭했고, 10일에 이르러 申 참정이 上奏해서, “경찰의 사무는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그저께 밤에 포성이 원근에 울려 터졌고, 어젯밤에 또 이런 변이 있었는데 파괴된 것은 모두 재상의 집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에 없던 바이라 이것은 평범한 도적의 소행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미연에 막지 못하고 또 사후에 조사하여 밝혀내지도 못한 채 이틀 밤이 지나도 묘연하여 체포, 심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中略), 만약 평소에 잘 조련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변이 있었겠습니까.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警務使 元禹常의 본직을 면하소서. 운운.”이라고 상소하였는데, 폐하께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3일을 한정해서 현 경무사로 하여금 체포하는 실적을 올리라는 批示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李鍾健(전 경무사 및 贊政을 역임하고 현임 宮內府 特進官)의 저택을 폭파했으나 11일에 이르러서도 비적 무리의 종적이 묘연하여 검거하지 못했으므로 從2品 南命善(전 光州지방대장)을 기용해서 경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경무사가 내국인의 야행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왕래가 매우 적막했습니다. 12일 밤에는 東大門 안 義州 府尹 方漢德의 사건, 13일 오전 1시경 南大門 안 순검과출소 근방, 그리고 2시경에는 경무 中署 서기방에, 다시 밤이 이슬하여 筆洞에 있는 병사 安淙浣의 저택에서 폭탄이 터져서 方 부윤의 처소에서는 어린이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尋テ十三日午後七時半頃ニ於テ小安洞舊朴泳孝ノ留守宅ヨリ突然爆裂彈自發金俊龍カ僑居シタル房屋二棟之レカ爲ニ破碎揚シ韓人二名即死セリ間モナク韓國ノ警務官河相驥先ツ來リ邸内ニアル男女十五人ヲ拘拿シ證據品ヲ押收シ事實取調ニ着手シ朴泳孝ノ留守引受人恒屋盛服又其邸内ニアルヲ以テ秋月領事ハ其事ノ起ルト同時ニ巡查ヲ派出シテ事實調査セシメタル趣ナリ之ト同時ニ韓國巡檢等カ恒屋房屋内ヲモ取調ヘシ事ヲモ要請シタル共同人ハ我カ邸内(朴泳孝邸ヲ自分ノモノニ書換セシヤ否未タ明了ナラス)ハ外國人タルノ故ヲ以テ相當ノ手續ヲ履ムニ非サレハ搜索セシムル能ハストテ謝斷シタルトノ事之ト掛ケ違ヒ翌十四日未明外部ヨリ公文ヲ以テ我巡查八名該家ヲ把守シテ攔入ヲ得サル趣ヲ以テ巡查ノ引揚ヲ請求シ來リタルニ付直チ秋月領事ニ移陳シテ適宜ノ處置ヲ爲サシメタリ將又金俊龍ナルモノハ其早朝出家シタル儘ニテ未タ歸宅不致其妻ハ老母一名ヲ殘置キ二名ノ娘ヲ帶同シ同時ニ逃走未タ縛ニ就カサル趣ニ候其他ノ情況ハ秋月領事ヨリ詳報アリタル事ト存候ニ付茲ニハ贅陳不致尙又本件ニ關シテハ昨日電措置ヲ執ル事ヲ得策ナリト思料致候ニ付反對ノ御訓令ナキ以上ハ此方針ヲ以テ諸事ヲ協辦スルノ考ヘ有之候間大略之顛末不取敢致稟報申進候 敬具

이어서 13일 오후 7시 반 경에 소안동 옛 박영효의 빈집에서 돌연 폭발탄이 자연 폭발하여 김준용이 거처하던 가옥 2동이 이 때문에 파괴되어 한인 2명이 즉사했습니다. 즉시 한국의 경무관 河相驥가 와서 집안에 있던 남녀 15명을 구금하고 증거품을 압수하여 사실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박영효의 빈집을 인수한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 역시 그 집에 있었으므로秋月 영사는 그 일의 발생과 동시에 순사를 파견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순검 등이 츠네야의 집 안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집 안은(박영효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꿨는지 여부는 아직 명백치 않음)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색을 밟지 않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사절했다고 합니다. 이와 엇갈려서 다음 날 14일

새벽 외부(外部)에서 공문으로 우리 순사 8명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들어갈 수 없다며 순사의 철수를 청구하여 왔으므로 즉각 秋月 영사에게 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준용이란 자는 그 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채로 아직 귀가하지 않고 그의 아내는 노모만 홀로 남겨 두고 딸 두 명을 데리고 함께 도주하여 아직 포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타의 정황은 秋月 영사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므로 여기에는 장황하게 진술하지 않고 또한 본건에 관해서는 어제 전보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므로 반대의 훈령이 없는 이상은 이 방침으로 제반사를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에 우선 대략의 전말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敬具.

1899년 6월 15일

日置 臨時代理公使

青木 外務大臣 殿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朴泳孝의 집 爆發事故 當時 日本巡查 把守說의 해명

문서번호 : 第59號

발 송 일 : 1899년 6월 15일

발 송 자 : 日置 臨時代理公使

수 신 자 : 外部大臣 朴齊純

以書翰致啓上候陳者貴照會第五拾五號接到被見致候御申越ノ要旨ニ據レバ本月十三日午後五時頃爆藥忽發於北署小安洞顛覆家屋三間傷損人命二口該屋宇係前日朴泳孝所住處轟爆根因由於搗成火藥不容不另查處辦該家居接男女十五人一併拿致并將藥木臼提到本廳現方嚴覈端緒掀露貯存之藥物理應搜索有日本巡查八名把守該家我警察官吏不得攔入等情(中略)惟火藥係危險之物亟應搜驗絕其禍根我警察官吏自行其成有之權貴國巡查未必攔阻相應備文照會貴臨時代理公使請煩查照轉飭該巡查等即行撤回俾便搜索可也云々依之查スルニ我巡查八名朴泳孝ノ舊邸ヲ把守シ貴國警察官吏ノ出入ヲ攔阻シタリトノ事實ハ毫無之事ト信シ候何トナレハ右爆發ノ當時我警察官吏ハ該附近ニ本邦人ノ居住者アルヲ以テ直ニ現場ニ出張シタル次第ニシテ果シテ其爆發ハ本邦人恒屋盛服ノ住所ノ南側ナル家屋ナルコトヲ發見シ即恒屋ノ住所ニ臨テ必要ノ職務ヲ行ヒタル事實ニ有之決シテ此他何等貴國巡檢ノ行爲ニ對シ妨害ヲ加ヘタル事實アルヲ認メス候得共兎モ角御來文ノ趣旨ハ本邦人ノ住所ハ爆發ノ場所ト同一構内ナルニ付一應該構内ノ房屋ヲ周ク搜索致度トノ儀ニ過キス且又右ハ事神速ヲ要スルヲ以テ此等事實ノ行違ヨリ貴我往復ヲ重ヌルハ貴方ニ於テモ御得策ニ非ラスト思料致候ニ付本官ハ厚意上不取敢本案ヲ我領事ニ移牒シ該館書記生ヲ派シ事實齟齬ノ點ニ關シ詳細説明ニ及フト同時ニ我警察官吏ト貴國警察官吏ト相會同シ該家ニ就キ充分檢證相成候様便宜ノ措置ニ及ヒタル次第ニ有之候右ハ已ニ閣下ニ於テ御承知ノ儀ニ可有之候得共猶此ニ回答旁御説明及置候 敬具

明治三十二年六月十五日

日置 臨時代理公使

外部大臣 朴齊純 閣下

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貴 照會 제55호에서 말씀하신 요지에 의하면 “이달 13일 오후 5시경에 북서(北署) 관할 소안동(小安洞)에서 갑자기 폭약이 터져 가옥 3칸이 전복되고 2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 가옥은 전날 박영효(朴泳孝)가 살던 집인데 폭발 원인은 화약을 제조하다가 그랬다 하니 특별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겠기에 그 집에 살고 있는 남녀 15명을 모조리 구인하고 약과 목구(木臼) 등을 본廳으로 운반하여 현재 엄히 조사하여 단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저장하고 있는 약물을 수사하여야 하는데 일본 순사 8명이 그 집을 파수하고 있으면서 우리 경찰관이 밀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생각해보면 화약은 위험물이라 빨리 수검하여 화근을 없애야 할 것이라서, 우리 경찰관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귀국 순사가 저지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문서로 조회하니, 貴 臨時代理公使의 查照를 청하는 바이니 그 순사들에게 轉飭하여 즉시 철수하여 수색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운운하고 알려 주셨습니다. 이 공문 내용에 의하여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순사 8명이 박영호의 구저(舊邸)를 지키고 있는데 귀국 경찰 관리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약이 폭발 당시 우리 경찰 관리들은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곧바로 현장에 출장 갔을 뿐이었는데, 그때 마침내 폭발물이 터져 우리나라 사람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의 주소지 남측 가옥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츠네야 모리노리의 주소지에 가서 필요한 임무를 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 결코 이것이 다른 어떠한 귀국 순검의 행위에 대하여 방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내오신 조회문의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 주소가 폭발 장소와 동일 구내에 있었으므로 일단 그 구내의 가옥 내부를 수색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 사건이 신속을 요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서로 엇갈려서 貴我 간에 설왕설래를 거듭 하는 것은 귀국 측에서도 득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官은 후의(厚意)로 우선 本案을 우리 영사에게 이첩하여 영사관 서기생을 파견 사실이 어긋나는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 경찰 관리와 귀국의 경찰 관리와 서로 회동하여 그 집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한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이미 각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이에 회답을 겸해서 설명을 하여 둡니다. 敬具

1899년 6월 15일

日置 臨時代理公使

外部大臣 朴齊純 閣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韓國의 爆彈 投下 事件의 真相 報告]

문서번호 : 往75

발 송 일 : 1899년 6월 27일 오후 5시 10분 발신

발 송 자 : 林 公使

수 신 자 : 青木 外務大臣

爆裂事件ハ民會殘徒ノ所爲ニ出テ其目的ハ守舊派タル韓廷要路ノ者ヲ脅嚇シ尙場合ニ依テハ混雜ヲ來シ彼等及彼等ト同趣味ノモノニ權力回收ノ機會ヲ作ラント僥倖シタルニアルモノ、如シ

右爆裂藥ハ當地ニ於テ製シタルモノナルガ十三日朴泳孝留守宅構內ニ於ケル爆發ノ爲メニ製藥者二名自ラ斃レ家主及本件ニ關係アリタル民會殘徒四名ノ內三名ハ何レカ逃走シ殘リ一名ハ兩三日前縛ニ就ケリ右就縛者ハ拷問ニ堪ヘズシテ多クノ關係者ノ名前ヲ自白シタリト云ヒ左ナクトモ當國ノ常態トシテ今後本件ニ關聯シ多少ノ疑獄等發生スルコトナキニハ限ラザレトモ要スルニ事後ノ處分タル性質ニ屬シ事件ソノモノハ之レニモ結果ヲ告ケタルモノト見テ可ナラン

本件ニ付恒屋盛服ハ同構內ニ住ヒ居タルヲ以テ多少關係ノ疑ナキニアラサルモ判然タル證據ナキユエ領事ニ於テ論旨退韓ヲ命セリ其他本邦人中ニハ關係アリト認ムヘキモノナシ韓廷ニ於テモ右等ノ事情明白ナリ隨テ近々安堵シ來リタル模様ナリ就テハ我渡韓規則モ時機ヲ見計ヒ廢撤相成ルモ可然但シ亡命者ノ關係ハ明瞭ナラズ韓廷ニ於テハ依然トシテ大ニ之ヲ疑ヒ居ル際ニモアリ旁々彼等ニ對スル取締リハ十分嚴密ナランコトヲ必要ナリト思考ス

폭탄 사건은 民會의 殘徒가 한 소행인데, 그 목적은 수구파로 韓國 조정의 요로에 있는 자를 협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혼잡을 초래하여 그들 및 그들과 같은 동조자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려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요행을 노린 데에 있는 것 같음.

이 폭약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13일에 박영호의 집 구내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제조자 2명이 자폭하고 가주(家主) 및 본건에 관계하던 민회(民會)의 잔도(殘徒) 4명 중 3명은 어디론가 도주하고 나머지 1명은 이삼일 전에 체포되었음. 이 체포된 자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관계자의 이름을 자백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국의 常態로서 앞으로 본건과 관련하여 다소의 疑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음. 요컨대 사후에 처분할 성질에 속하며 사건 그 자체는 이것으로 결론이 난 것

으로 보아도 좋을 것임.

본건에 대해 츠네야 모리노리(恒屋盛服)가 이 집 구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혐의가 없지 않으나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사가 한국을 떠날 것을 명하였음. 그 밖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는 없음. 한국 조정에서도 이상의 사정이 명백하자 따라서 근래에 들어 안도하는 모양임.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渡韓規則도 적당한 시기를 보아 철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다만 망명자의 관계는 명료하지 않음. 한국 조정에서는 여전히 이를 크게 의심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니 아울러 그들에 대한 단속은 충분히 엄밀할 필요가 있음.

6월 27일 오후 5시 10분 발신

林 公使

青木 外務大臣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韓國의 폭탄 투하 사건 鎮定으로 渡韓者團束 勅令 撤廢 可能 件]

문서번호 : 往96

발 송 일 : 7월 24일 오후 3시 30분 발신 (1899-07-24)

발 송 자 : 林 公使

수 신 자 : 青木 大臣

爆裂事件ニ關スル報告書ハ既ニ着セリト思考ス尙目下ノ狀況ヲ聞クニ嫌疑ヲ受ケテ拘留セラレタルモノ數名ハ既ニ放免セラレ朴泳孝家族モ放免セラルベシト云フ又本月二十一日日本官カ韓國皇帝ニ謁見ノ際陛下ハ爆裂事件ニ開シ帝國政府ノ厚意ヲ謝セラレ更ニ疑惑ヲ抱カル、ノ模様ナカリシ現狀右ノ如クナルヲ以テ渡韓取締ニ關スル勅令ハ速ニ御撤回相成リ差支ナシ

폭탄 사건에 관한 보고서는 이미 도착한 것으로 생각함. 역시 현재의 상황을 듣건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 몇 명은 이미 석방되고 朴泳孝의 가족도 석방될 것이라고 함. 또 이달 21일 본관이 韓國 황제를 알현할 때 폐하는 폭탄 테러 사건에 관해 日本 정부의 후의에 사례하고 또 의혹을 품으시는 모양은 없었음. 현상이 위와 같기 때문에 渡韓團束에 관한 칙령은 빨리 철회하셔도 지장 없음.

IV

서북철도국 관련

■ 고종실록 40권 - 1900년(광무 4) 9월 3일

布達第六十三號 宮內府官制中增置件。【內藏院次，增置西北鐵道局，掌西北鐵道所關一切事務，直轄處辦。總藏一人，勅任；局長一人，勅任或奏任；技師一人，奏任；主事技手各二人，判任。】頒布。

포달(布達) 제63호, 〈궁내부의 관제 중 증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增置件〕〉을 반포하였다. 【내장원(內藏院) 다음에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을 증치하고 서북 철도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여 직할(直轄)하여 처리한다. 총재(總裁)는 1인 칙임관(勅任官)이 맡고, 국장(局長)은 1인으로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이 맡으며, 기사(技師)는 1인으로 주임관이 맡고, 주사(主事)와 기수(技手) 각 2인 판임관(判任官)이 맡는다.】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제목 : 西北鐵道局 新設 官制公布 件

문서번호 : 機密 第84號

발 송 일 : 1900년 9월 15일

발 송 자 : 林 公使

수 신 자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本月三日宮内府官制中改正ノ件ニ關シ布達第六十三號ヲ以テ宮内府所屬內藏院ノ所管内ニ新ニ西北鐵道局ナル者ヲ置キ其官制ヲ公布セリ(九月五日官報)右ハ既ニ宮内府所管内ニ鐵道院ノ設アルニ對シ頗フル奇異ノ感有之候處全クハ內藏院卿タル李容翊ノ勢力近來漸ク挽回セラレタルノ結果同人ノ考案ニ出タル趣ニテ同人カ親シク本件ニ付本使ニ説明スル所ニ依ルニ西北鐵道ハ重ニ京義及京元線ヲ意味スル者ニテ近來當國人中電氣鐵道ノ延長電燈事業其他貨幣制度改革等ノ爲メ外資輸入ノ計劃ヲ目論見以上二鐵道ノ敷設權ヲ抵當トナセントノ底意ヲ抱キ切リニ外國人間ニ運動シツヽアリ右運動ハ或ハ意外ニモ進歩シ來ラン歟ノ憂アルカ爲メ兎モ角モ該二鐵道ヲ內藏院ノ下ニ置キ運動者ノ欲望ヲ防クノ必要ヲ生シタルカ爲メ陛下ニ奏上シ斯克ハ布達ノ發布ヲ見ルニ至リシナリ云々

이달 3일 궁내부(宮内府) 관제 중 개정 건에 관하여 포달(布達) 제63호로 궁내부 소속 내장원(內藏院)의 소관 내에 새로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이라는 것을 두어 그 관제를 공포했습니다(9월 5일 官報). 그런데 이미 궁내부 소관 내에 철도원(鐵道院)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매우 기이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내장원경(內藏院卿)인 이용익(李容翊)의 세력이 근래 겨우 만회된 결과 동인이 고안해서 나온 것입니다. 同人이 직접 본건에 대하여 本使에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서북철도는 주로 경의선과 경원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래 당국 사람 중에 전에 쓴 철도의 연장, 전등 사업, 기타 화폐제도 개혁 등을 위하여 외자(外資) 수입을 계획하고 철도 부설권을 저당으로 삼으려는 저의를 품고 외국인들에게 운동하는 자가 있는데, 이 운동이 의외로 진보될 것을 염려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이 두 철도를 내장원 아래 두어 운동자의 욕망을 막을 필요가 생겨서 폐하께 상주해서 이처럼 포달(布達)을 발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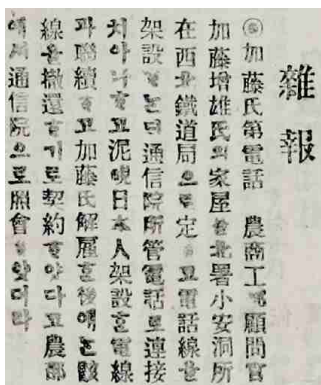
이상 보고합니다. 敬具.

1900년 9월 15일

林 公使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殿

■ 황성신문 - 1902년 11월 22일 - 加藤氏第 電話



農商工部 顧問官 加藤增雄氏의 家屋을 北署 小安洞 所在 西北鐵道局으로 定호고 電話線을 架設호는디 通信院 所管 電話로 連接치 아니호고 泥峴 日本人 架設호 電線과 聯續호고 加藤氏 解雇호 後에는 該線을 撒還호기로 契約호았다고 農部에서 通信院으로 照會호았더라

■ 고종실록 44권 - 1904년(광무 8) 8월 9일

布達第一百二十二號, 宮内府官制中, 西北鐵道局。 合付於鐵道院件。 頒布。

포달(布達) 제122호, 〈궁내부 관제 중 서북철도국 철도원에 합치는 일에 관한 안건〔宮内府官制中西北鐵道局合付於鐵道院件〕〉을 반포하였다.

■ 고종실록 45권 - 1905년(광무 8) 2월 28일

布達第百二十五號, 宮内府官制中鐵道院及西北鐵道局廢止件。 頒布。

포달(布達) 제125호, 〈궁내부 관제 중 철도원과 서북철도국을 폐지하는 일에 관한 안건〔宮内府官制中鐵道院及西北鐵道局廢止件〕〉을 반포하였다.

■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 1853년~1922년】인적사항

1877년 외무성에 들어가 네덜란드·이탈리아·러시아 등의 공사관에 재직하다가 1894년 부산주재 일본영사가 되었다. 1896년 서울주재 일본 영사와 임시대리대사로 부임하였고, 1897년 2월에는 조선 주재 일본변리공사(日本辦理公使)가 되어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고종의 환궁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경부 철도 부설권 획득에 진력하였으며, 1897년 7월 한국 정부에 목포·남포의 개항, 1898년 5월 마산포의 개항을 요구하여 허락받았다. 11월 고종에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건의하였고, 12월 특명전권 공사로 승진하였다.

1899년 5월 전권공사에서 면직되어 귀국했다가 1902년~1907년 대한제국의 궁내부 고문(宮內府) 고문(顧問)과 농상공부(農商工部) 고문관(顧問官)·수륜원(水輪院) 부총재(副總裁)를 겸임했다. 또 1904년 9월에는 훈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황실제도정리국(皇室制度整理局) 의정관(議政官)과 관제교정소(官制校正所) 의정관(議政官)을 겸임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고종의 신뢰가 두터웠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의사 소통의 역할을 하였는데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반해 군대해산과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서임하는 일에 반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황성신문 - 1902년 2월 20일 - 加藤來期

朝鮮新報를 據하 則 宮內府顧問으로 雇聘된 加藤增雄氏가 來二十三四日頃에 日本東京에서 起程來韓하 豫定 이라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5월 10일 - 加藤三增入京

日本人 加藤增雄氏가 宮內府顧問으로 來韓하 今은 已報하얏거니와 氏가 玄海丸을 搭하 且 昨日에 到仁하야 昨日 入京하얏다하 曩日歸國하얏던 駐漢城 日領事 三增久米吉氏도 同船에 到仁하야 即日入京하얏다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5월 15일 - 加藤請見

本月九日 仁港으로 入城하 日本人 加藤增雄氏가 日昨 陛見을 請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6월 28일 - 加藤氏獻策

朝鮮時報를 據하 則 加藤增雄氏가 皇上陛下의 御書 諮詢하심을 蒙하야 財政救治策을 呈하얏는디

(一) 貨幣制度를 改革하 本位貨幣와 補助貨幣의 區別을 明白히하야 價格의 激變을 防하 漸次貨幣統一하 方策을 講하야 經濟上便宜를 圖하 事

(二) 兌換制度를 設하 嚴格하 規定으로 監督하야 商業賣買에 便케하 事

(三) 貨幣鑄造條例를 設하야 度支部及典鑄局의 關係와 典鑄局及內外銀行의 關係와 並히 互相聯絡하 規式을 定하야 貨幣濫造及私鑄를 嚴禁하 事

(四) 交通機關을 發達케하야 商品集散에 便케하 同時에 此方法을 設하 事

(五) 內地 各港間에 商業上의 聯絡을 嚴密히하야 滯積하 物品의 放散을 圖하 事

(六) 收稅制度를 改革하야 國稅、道稅、郡稅의 三種에 分하 各一定하 稅를 定하야 地方官의 不法收稅를 禁하 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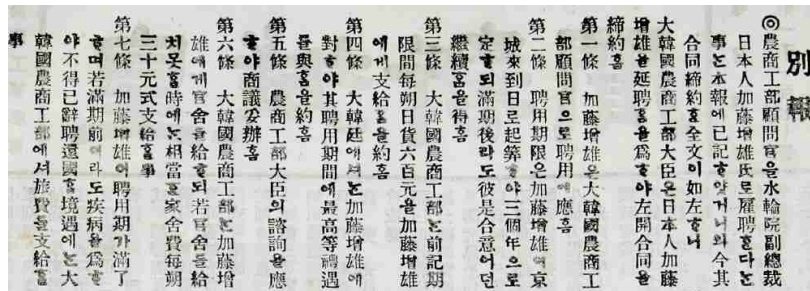
(七) 外國貿易을 發達케하기 爲하야 商業上密接하 關係가 有하 諸國에는 財費를 辦出하 限度에서 貿易事務官을 設置하 事

(八) 會計檢査院을 設하야 收入支出의 均衡과 出費의 正否를 監督케하야 國家의 濫費를 抑制하 事

(九) 各稅關과 度支部의 區別을 明白히하 且 其收入支出은 互出知照하 必要가 有하야도 彼此 混淆가 無케하 事

(十) 度支部大臣은 時時로 官吏를 派遣하야 地方收稅法을 視케하 事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7월 30일 - 別報



農商工部顧問官을 水輪院 副總裁 日本人 加藤増雄氏로 雇聘한다는 事는 本報에 已記했거니와 今其 合同締約을 全文이 如左하니 大韓國 農商工部大臣은 日本人 加藤増雄을 延聘함을 爲하야 左開合同을 締約함

第一條 加藤増雄은 大韓國 農商工部 顧問官으로 聘用에 應함

第二條 聘用期限은 加藤増雄이 京城來到日로 起算하야 三個年으로 定하되 滿期後라도 彼是合意어던 繼續함을 得함

第三條 大韓國 農商工部는 前記期限間 每朔 日貨 六百元을 加藤増雄에게 支給함을 約함

第四條 大韓廷에서는 加藤増雄에 對하야 其聘用期間에 最高等禮遇를 興함을 約함

第五條 農商工部大臣의 諮詢를 應하야 商議妥辦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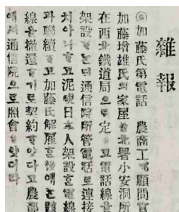
第六條 大韓國 農商工部는 加藤増雄에게 官舍를 給하되 若官舍를 給치 못할 때에는 相當한 家舍費 每朔 三十元式 支給함 事

第七條 加藤増雄이 聘用期가 滿了하며 若滿期前이라도 疾病을 爲하야 不得已 辭聘 還國할 境遇에는 大韓國 農商工部에서 旅費를 支給함 事

■ 황성신문 - 1902년 9월 3일 - 顧官定所

農商工部顧問官 加藤増雄氏의 處所는 該部內 前彫刻師 宇津盛氏의 居接하던 處로 定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11월 22일 - 加藤氏第 電話



農商工部 顧問官 加藤増雄氏의 家屋을 北署 小安洞 所在 西北鐵道局으로 定하고 電話線을 架設하느니 通信院所管電話로 連接치 아니하고 泥岷日本人架設한 電線과 聯續하고 加藤氏解雇後에는 該線을 撤還하기로 契約하얏다고 農部에서 通信院으로 照會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11월 26일 - 使院移照

農商工部 顧問官 加藤増雄氏 私邸에 日本電話 架設사로 農部에서 契約을 定하고 通信院에 照會한 事로 相詰된은 本報에 已記했거니와 外部에서 該事案의 未妥함을 轉聞하고 通信院에 照通하야 電話一款으로 照會하라 하고 日公館에 照會하되 該事件을 本政府에서 認許치 못하깃다 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2년 11월 27일 - 撤案拔桿

加藤増雄氏 私邸에 電話線 架設사로 通信院及外部에서 農部大臣 閔種默氏가 電線契約을 所管部に 通知치 아니하고 自意定限함을 駁詰함은 已報했거니와 再昨日에 閔大臣이 勢不得已하야 加藤顧問과 訂期한 事案을 一并繳還케하고 該私邸로 始하야 豎立한 電話線木을 拔去하라 함이 加藤氏曰再昨日下午五時까지만 延期하면 方便이 有하다하더니 五時가 過하야도 別般措處가 無함으로 農部에서 鍾路까지 加設한 該電桿木을 一切拔去하야 鍾街上에 積置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3년 1월 12일 - 電話事又照

小安洞住 加藤顧問官家에 電話線 架設事案으로 日公使代理 萩原氏が 我廷에 屢照하얏거니와 已往京仁

間商店에도 承認架設호얏슨 則 今獨撤去가 未妥호 事라고 日昨에 又照호얏더라

■ 황성신문 - 1903년 3월 4일 - 日使照請

日公使 林權助氏가 農商工部顧問官 加藤增雄氏로 宮內府最高等顧問官으로 更聘하라고 日昨 我廷에 照請 하얏더라

■ 황성신문 - 1903년 3월 5일 - 促撥館舍費

農商工部에서 度支部로 照會하되 日昨 政府會議에 取決된 本部 顧問官 加藤增雄의 旅館費와 家舍 修理費 合 三千元을 預備金中 支撥하라 하얏더라

■ 대한매일신보 - 1905년 1월 13일

○ 중간 건물
상공부고문관으로 고빙후에 가옥비 도합 삼천원을 예산에
가옥비도합삼천원을 예산에
발하기로 작정하여 작년도에
원만영수하였거고 이천원은
중간건물이므로 작년도에
상공부에서 서로 상지중이라
라

중간 건물

가등중용씨가 농상공부 고문관으로 고빙후에 가옥비 도합 삼천원을 예산에
지발하기로 작정하여 작년도에 지발하였는데 가등씨의게는 일천원만 령슈 호얏고
기여 이천원은 중간 건물이 된 고로 탁지부와 농상공부에서 서로 상지중이라더라

■ 대한매일신보 - 1907년 10월 2일

● 전별호는 작쳐 궁척부고문
관 가등중용씨가 일전에
고되어 귀국할터인고로
부 일반관들이 돈 소환식
을 각기 슈렴하여 작업에
별호는 잔치를 호얏다더라

● 가등씨론락 가등중용씨가
궁척을 허산호일파 일인으
로 한국 관리를 서임호는
일에 터하야 이등 중감을
론박하야 골으터 나호
삼년을 한국에서 류련호
스되 궁척부에 모든 스
을 아지 다 숨히지못호
거든 홀물며 중감부 관
호는 한국에 건너온지
지못호는 엿지 다 숨
리오 궁척을 허산호일
인으로 관리를 서임호
이크게 평화의 목적이
니오 다만 혼단만 나리
호얏다더라

VI 박영효 2차 망명에서의 귀국 직후 거주 관련

■ 황성신문 - 1907년 5월 16일 - 朴氏歸國說

日本에 滞在호 朴泳孝氏가 未久에 歸國한다 함은 已爲揭報어니와 近日 巷說을 聞호 則 日間 還國호 더
인디 居處호 家屋은 宮內府顧問 加藤增雄氏家로 指定호고 該顧問은 嚴俊源氏家로 遷移 한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 1907년 6월 6일

● 加藤氏搬移
宮內府顧問 加藤增雄氏는 參將 嚴俊源氏家로 移接호고 現接호 家屋은 日本에
滞在호 朴泳孝氏가 來接한다 함은 已揭어니와 該顧問은 前報와 如히 移接호얏고
該家屋은 現今 修理호는 中이라더라

加藤氏搬移

宮內府顧問 加藤增雄氏는 參將 嚴俊源氏家로 移接호고 現接호 家屋은 日本에
滞在호 朴泳孝氏가 來接한다 함은 已揭어니와 該顧問은 前報와 如히 移接호얏고
該家屋은 現今 修理호는 中이라더라

■ 황성신문 - 1907년 6월 7일 - 朴氏果來否

日本에 滞在호 朴泳孝氏가 將次 還國한다 함은 本報에 累累已揭호얏거니와 該氏가 再昨日에 入城호야

泥岨某處에 現今 留連한다는디 小安洞에 所在한 加藤增雄氏가 駐接했었던 家屋으로 日間 移接한다는 說이 有하다

■ 황성신문 - 1907년(광무 11년) 6월 20일 - 朴氏入城

● 朴氏入城
錦陵尉朴泳孝氏가 昨日 下午 九時에 舊日 所住하던 安洞 私邸에 入來하였다

錦陵尉 朴泳孝氏가 昨日 下午 九時에 舊日 所住하던 安洞 私邸에 入來하였다

■ 황성신문 - 1907년(광무 11년) 6월 22일 - 李總理周訪

總理大臣 李完用氏가 再昨日上午十時에 統監官邸에 訪問했다가 十一時에 農商工部大臣 宋秉畯氏私邸에 訪問했다가 同十二時에 宮內府大臣 李載克氏와 巴成鎰에 前往하여 錦陵尉 朴泳孝氏를 訪問했다

■ 고종실록 48권 - 1907년(광무 11) 6월 23일

二十三日。宮內府大臣李載克奏：“錦陵尉朴泳孝，今既敍用矣。永惠翁主房折受，依例磨鍊，而現今各宮房折受，皆以王家秩祿施行。今亦依定式，令制度局添入何如？”允之。又奏：“永惠翁主祠版，在於楊州郡平邱地云矣。不可不還安，而該宮時無所在處，何以爲之乎？”制曰：“賜第一區。(후략)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가 지금 이미 서용(敍用)되었습니다. 영혜옹주방(永惠翁主房)에 대한 절수전(折受田)은 규례대로 마련하였으나, 현재 각 궁방 절수전은 모두 왕가의 품계와 녹봉으로 시행합니다. 이번에도 정식(定式)에 따라 제도국(制度局)에서 첨가해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혜옹주의 사판(祠版)이 양주군(楊州郡) 평구(平邱)에 있다고 합니다. 환안(還安)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해궁(該宮)에 현재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집 한 채를 하사하라.”

하였다.

■ 황성신문 - 1907년(광무 11년) 6월 27일 - 朴氏賜第說

皇帝陛下게옵서 錦陵尉 朴泳孝氏에게 賜第一區하실 터인디 園洞에 所在한 李址鎔氏의 家屋은 低陷하다 하여 嚴俊源氏의 家屋을 擬議하시다는 說이 有하다

■ 대한매일신보 - 1907년(광무 11년) 7월 10일 - 雜報 - 집값을 내리심

● 집값을 내리심
● 김릉위 박영효씨가 삼작일에 교동 민영찬씨 들었든 집으로 이접하였는디 집값은 일백삼십만량을 즈내로 하스

집값을 내리심

김릉위 박영효씨가 삼작일에 교동 민영찬씨 들었든 집으로 이접하였는디 집값은 일백삼십만량을 즈내로 하스했다

VII

민영주의 집 반환 청원 및 소송 관련

■ 황성신문 - 1909년 4월 15일 - 閔氏起訴

閔氏起訴 前判書閔泳雨氏는伊來勢力과家産이漸衰하야貰家에僅接하야朝夕을難繼라더니既往에北部小安洞家屋을還推하기로裁判所에起訴得訟하얏다

前判書 閔泳雨氏는 伊來勢力과 家産이 漸衰하야 貰家에 僅接하야 朝夕을 難繼라더니 既往에 北部 小安洞 家屋을 還推하기로 裁判所에 起訴 得訟하얏다는 說이 有하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 1909년 10월 6일 - 집값주어

집값주어 쇼안동에 잇는 민영우씨의 집값이 타지부로 획급하라신 처분이 논리셋는디 타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지발치 아니하논데고로 민씨가 지방판사로 지난 토요일 디방지판소에 기소엿다더라

쇼안동에 잇는 □□□ 민영우씨의 집값□ 타지부로 획급하라신 처분이 논리셋는디 타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지발치 아니하논데고로 민씨가 지방판사로 지난 토요일□ 디방지판소에 기소□엿다더라

■ 황성신문 - 1909년 10월 6일 - 家價無乃太高

家價無乃太高 前判書閔泳雨氏는小安洞에在호家舍價를每間一百二十圖式財産整理局에서推尋次로地方裁判所에起訴하야去土曜日에裁判하랴다가更히延期하얏다

前判書 閔泳雨氏는 小安洞에 在호 家舍價를 每間 一百二十圖式 財産整理局에서 推尋次로 地方裁判所에 起訴하야 去土曜日에 裁判하랴다가 更히 延期하얏다

VIII

김용달, 한성은행, 조동윤 관련

■ 윤치호일기 7권 - 1918년 6월 3일자

3rd. Monday. Beautiful—Cool.

Y.M.C.A. as usual.

Second cousin 致昭 came to see me about 5 p.m. Informed me that he had just concluded a bargain for the big Korean house which 金容達 had built or rather improved(180Kan) in 小安洞. That house was originally built or owned by 閔泳雨 (민망난 or 민부처). It was given to Prince Pak (朴泳孝) by the then Empress in 1894. After Prince Pak quit the house to save his life in the summer of 1895, the house was occupied by 恒屋成服, Mr. P's Japanese confidant. After Mr. 恒屋 left Seoul, Mr. 加藤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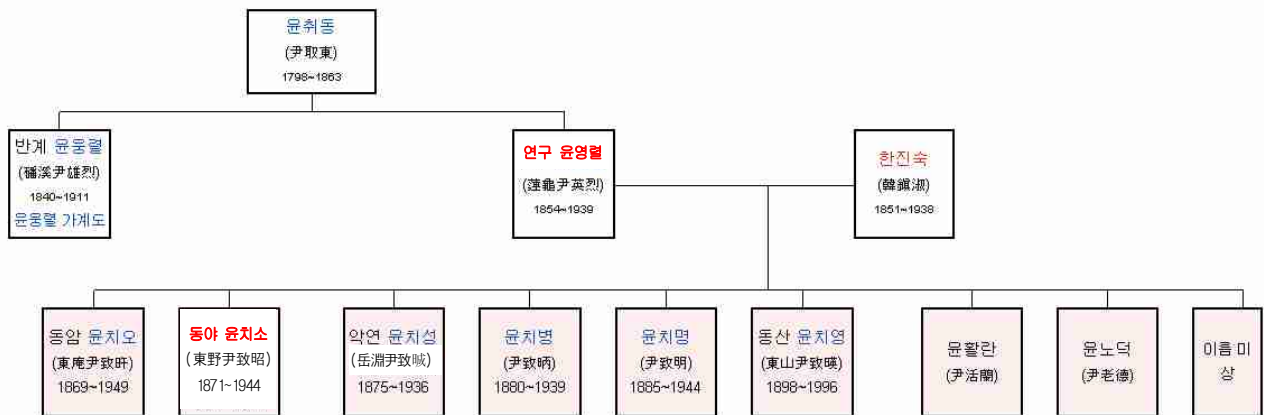
雄 lived in it.

Then 金容達 the notorious spendthrift bought it, and improved it to such an extent as to make the house reputed being the finest Korean house in Seoul. Then the 漢城銀行 took it over for a debt which 金 owed to the Bank. Lately Baron 趙東潤 bought it for his concubine. His concubine was told by a sorcerer that the house was unluck, so Baron 趙 decided to sell it. My cousin bought it for ₩12000. I didn't fancy the house. So big with no decent styles leading to it. Cousin may see money in it.

오후 5시경 사촌동생 치소가 찾아왔다. 그는 김용달이 안동에 짓거나 개보수한 거대한 한옥(180칸)에 대한 계약을 지금 막 마무리지었다고 알려주었다. 당초에는 민영우(閔泳雨 : 민망난 혹은 민부처)가 이 집을 짓거나 소유했다. 1894년 당시 왕후가 금릉위 박영호에게 이 집을 주었다. 그 후 1895년 여름 박영호가 목숨을 건지려고 이 집을 떠난 후 박씨의 절친한 일본인 친구 츠네야 모리노리(恒屋成服)가 이 집에서 살았다. 츠네야 모리노리가 서울을 떠난 후에는 가토 마스오(加藤増雄)씨가 이 집에서 살았다. 그 후 돈 헤프 게 쓰 기 로 이 름 높 았 던 김 용 달 (金容達) 이 이 집 을 사 서 서 울 에 서 제 일 가 는 저 택 이 라 는 명 성 을 얻 을 정 도 로 중 전 을 했 다 . 그 런 다 음 한 성 은 행 (漢城銀行) 이 김 용 달 이 동 은 행 에 진 빚 대 신 에 이 집 을 인 수 했 다 . 최 근 에 는 조 동 윤 남 작 이 자 기 첩 에 게 이 집 을 사 주 었 다 . 그 런 데 그 의 첩 은 한 점 쟁 이 에 게 서 이 집 에 마 가 졌 다 는 애 기 를 들 었 다 . 그 래 서 조 남 작 은 이 집 을 팔 기 로 마 음 먹 었 다 . 내 사 촌 동 생 이 12,000원 을 주 고 이 집 을 샀 다 . 난 이 집 이 마 음 에 들 지 않 는 다 . 엄 청 크 기 만 클 뿐 규 모 에 부 합 하 는 근 사 한 스 타 일 은 아 니 다 . 내 사 촌 은 아 마 도 돈 이 될 까 해 서 이 집 을 산 모 양 이 다 .

IX 윤영렬·윤치소 형제·윤보선 관련

■ 윤영렬 · 윤치소 형제 가계도



■ 황성신문 - 1902년 6월 10일자 - 請褒義捐

→ 1902년 윤치소가 천안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사함

天安郡報를 據호 則 本郡居 前叅奉 尹致昭 葉二千五百兩金先達奎鉉正租十五石土人朴常來葉一萬兩을 義捐호야 該附近洞을 賑施호얏스니 并奏稟褒獎호라호얏더라

■ 윤보선, 『구국의 가시밭길』, 韓國政經社, 1967

제1장. 청운의 계절

1. 幼年時節의 回想

구한말 광무 1년, 즉 1897년 8월 2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향이며 한국 개화당인 김옥균씨의 고향이기도 한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나는 집안이 부유하였고 선대(先代)는 대대 벼슬을 해 온 집안이었기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유년시절을 지냈다.

서울에도 집이 있어 집안 형편에 따라 아산과 서울에서 번갈아 살아왔는데 내가 가장 오랜 기억으로는 조부께서 삼남도포사(三南盜浦使)⁴⁾라는 벼슬을 하실 때 우리는 아산서 살았다. 그 때 기억 몇 가지를 더듬어 보면 큰 나무 밑에 많은 낫쇠로 장식한 그릇 속에는 큰 철제인(鐵製印)과 인주가 들어 있고 서기가 큰 종이에다가 무엇인지 쓰고 그 인(印)을 인주 위에 두드려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을 새긴 마패에다 먹칠을 해서 찍는 것이었다.

우리 시골집은 삼남도포사의 영문(營門)이었다. 그래서 도포사의 사무는 우리 집에서 보게 되었고, 도포사에 따른 수많은 병정들은 물론 잡아온 도적까지도 우리집 부속 건물 일부를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일을 기억한다. 당시 지방 각처에는 무리를 이룬 화적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여 치안이 극도로 문란했었다. 이를 크게 우려한 조정이 조부를 삼남도포사로 임명하였다. 조부께서는 도적을 진압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저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이루게 하니 충청, 전라, 경상도 등 3남지방에서 조부의 명성은 높았다. 죄인들은 기다란 두 개의 나무 틈에 가로구멍을 파서 죄인의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된 착고에 묶여 있었다. 착고에 묶인 화적떼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는 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집에 선생을 두고 한문을 익혔다.

2. 개국공신을 꿈꾸며

그런 중에도 가끔 우리는 조부 곁에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런 때는 조부께서는 충(忠)과 효(孝)의 도를 가르치시고 삼국지 얘기를 들려주셨다. 유비의 의로움과 관운장의 전공치적에 아울러 그의 충의에 큰 감동을 받았던 나는 은연중에 이분들을 흠모하게 되었고 막연하나마 장차 커서는 그분들처럼 정치가나 개국공신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부께서는 4대조가 약주에 과하여 가세를 기울이셨다 하며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훈계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래서 젊어서 객지를 다니던 때는 물론이요, 정계에 투신한 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은 유시(幼時)에 조부로부터 들은 것이 가슴 깊이 박힌 까닭인가 한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7·8세 되던 해에 서울서 내려온 신문을 읽으며 주고 받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국채를 갚기 위하여 국가 재정이 딸리므로 국민의 헌금을 바란다는 것이 보도된 후로 국민 전체가 그 헌금을 위해서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내 어린 마음으로 헌금운동에 참여하고자 점심을 절식(絶食)하여 그 값을 돈으로 타 낼 작정을 하였다. 그 얼마 동안의 단식이 몇 푼의 돈을 만들었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돈은 줄테니 제발 밥은 먹어라’고 타이르던 조모님과 자친의 수습에 잠겼던 얼굴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열 살 때에 가내(家內)가 서울로 이주하게 되자 집 근처에 있던 교동(校洞)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초립 쓴 어른들과 함께 처음으로 신학문에 접하게 되었다.

3. 중국혁명에 자극받고

그리하여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조약이 조인되어 나라를 잃고 민심은 어지러울 때 나는 당시 4년제이던 교동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고개(지금의 충무로)에 일인(日人) 거류민들이 설립하였던 일출(日出) 소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 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일출소학교를 졸업한 후 동경으로 유학을 가 경응의숙(慶應義塾) 의학부에서 두어 학기를 하다가 예비 학교인 정칙(正則) 학교에서 2년을 못 다 배우고 귀국하게 되었다.(후략)

■ 윤보선,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11. 유년시절과 인생행로

조부의 크신 뜻

나는 구한말 광무 1년, 즉 1897년 8월 26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향(童鄉)이며 개화당을 이끌었던 김옥균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고 대대로

4) 1904년(광무 8) 삼남집포사령(三南戢捕司令)에 임명된 것을 말한다.

벼슬을 해 온 집안이었기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중략)

당시 충남 아산의 우리 집안은 300석을 하는 부농(富農)으로 그 때만 해도 300석이라면 대농(大農) 집안이었다. 조부께서는 그 큰 살림을 모두 나의 선친께 맡기시어 관리하도록 하셨다. 선친은 형제를 비롯, 그들의 자손 등 윤씨 집안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셨다, 이를테면 집안의 재무부장관 역할을 하셨다. 그럼에도 내 기억으로 누구 하나 불평 불만이 있거나 재산으로 인한 다툼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중략)

내가 여덟살 때⁵⁾ 우리 집안은 모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온 나는 집 근처에 있던 교동(校洞) 보통학교(지금의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다.(후략)

■ 통감부문서 - 皇室有馬蹄銀ニ關スル件

○ 문서번호 : 警秘第六八號

○ 발 송 일 : 隆熙二年二月五日(1908년 2월 5일)

○ 발 송 자 : 警視總監 丸山重俊 印

○ 수 신 자 : 統監 公爵 伊藤博文 殿

目下拘禁中ナル嚴俊源ノ口供ニ基キ同人保管ノ皇室有馬蹄銀處分ニ關シ調査スル處アリ左ニ

一. 中署校洞住前中樞院議官尹致昭 (三十八年) ナル者昨元年七月末馬蹄銀四百個ヲ嚴俊源ヨリ受取り之ヲ西署住問屋業趙學元ニ賣却方ヲ依頼シ其代金日貨三萬貳百餘圓ヲ收受シタリ

該馬蹄銀ナルモノハ五六年前嚴俊源カ太皇帝陛下ヨリ自宅保管ヲ命セラレタル總數四百二十六個中二十六個ハ嚴ニ於テ恣ニ消費シタリト云フ故ニ嚴ハ四百個ノミ保管ヲ繼續シツゝアリシ

然ルニ昨年六月頃尹致昭ノ實弟尹致賊カ侍從武官トシテ宮中ニ在リシ際實兄尹致昭及其父ハ牙山ノ住人ナリシモ地方暴動ノ爲メ其居ニ安スル能ハス家ヲ閉チ家族ヲ携帶シテ京城ニ避難シ來リ適當ノ家屋ナク住居ニ困難ヲ極メツゝアリタリ

實弟尹致賊ハ君側ニ近ツクヲ奇貨トシ其父兄一家ノ窮狀ヲ皇帝陛下 (今ノ太皇帝) ヘ訴ヘ聖恩ニ浴センコトヲ懇請スルコト三回初回及第二次迄ハ憫然ナレトモ手許ニ金ノ融通ナシ外ニモ金無クシテ困ル者多シトテ目的ヲ達セス第三回ニ及ヒ然ラハ氣ノ毒ナリ救助スヘシ住家ヲ購フニ何程ノ金ヲ要スルヤトノ下問アリ尹致賊ハ李根澤在來ノ住家ナル中署校洞ノ邸宅 (李根澤ノ兇害ニ遭ヒシ家) ハ目下放賣ニ付セリ此家コソ父兄ノ住家ニ適スヘク其價格ハ三萬圓ナリト奏ス

此ノ時陛下ハ手許ニ現金ノ與フヘキモノナシ幸ヒ嚴俊源ニ保管セシメタル馬蹄銀アレハ之ヲ汝等一家ニ與フヘシ宜シク賣却シテ居所ヲ求メヨトテ馬蹄銀四百個ニ對スル嚴俊源保管ノ預證一通ヲ下附セラレタリ

尹致賊ハ恐惶感佩之ヲ受領シテ兄尹致昭ニ示シ之ヲ以テ吾等兄弟ノ住所ヲ需メ負債ヲ償却シ且家政ヲ整理セント議シ該銀塊ノ賣却ハ兄尹致昭之ヲ擔當シ前述ノ順序ヲ以テ之ヲ現金ニ交換シタルモノナリ

一. 今其代價三萬貳百圓ヲ費消シタル事實ヲ調査スルニ別紙尹致昭自筆ノ供述書ノ通り曩キニ陛下ニ奏セシ李根澤ノ邸宅以外ニ二三ノ家宅ヲ買取り又ハ負債ヲ償却シ或ハ日常ノ費途ニ充テタルモノナリ

以上ノ事實ハ嚴俊源ノ申立ニ起リテ尹致昭尹致賊ノ陳述ニヨリ其關係相符合スルヲ見ル蓋シ之ヲ訊問シタル主任者ハ尹致昭ニヨリテ事實ノ大要ヲ得尹致賊ニ任意出頭ヲ求メテ訊問スルニ尹致賊ハ秘密ニ拜領シ無事經過シタルモノヲ今日ニ至リ露現シタルハ慚愧ニ堪ヘサルモ事元ヨリ不正ノ目的ニ出テタルモノニアラストテ實兄ノ申立ト殆ント一致ノ供述ヲ爲シ只兄ト申立ノ相違スル點ハ兄ハ李根澤ノ家ヲ三萬圓ニテ買取り三ヶ年ニ全代價ヲ支拂フ契約ニテ差當リ一萬圓ヲ支拂ヘリト云ヒ弟ハ李根澤カ三萬圓ノ元價ヲ談判ノ末一萬參千圓ニ減額買收シ未拂ハ參千圓ナリト云ヒ又兄ハ弟カ太皇帝陛下ノ恩賜ヲ懇請シタルニヨルト云ヒ弟尹致賊ハ決シテ懇請シタルニアラスト云フニアルノミ

依テ尹致賊ニ對シ家計窮狀ノ爲メノミニ三萬圓ノ大金ヲ下賜セラルゝハ過分ニアラサルカ斯克モ破格ノ恩典ニ浴スヘキ理由ノ外ニ存スルアルカト追窮シタルニ彼ハ元ヨリ破格ナリ然レトモ時ノ皇帝陛下タルヤ屢々無

5) 윤보선 대통령 일가가 충남 아산에서 서울 교동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은 윤보선 대통령이 10살이 되던 1907년이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7년 회고록에서는 동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였다가 1991년 쓴 회고록에서는 8살이던 1905년 교동으로 이사하였다고 잘못 기술하였다.

益ナル巨額ノ運動費ヲ密撥セラルコトヲ聞キ遺憾ニ堪ヘス均シク支出セラルモノトスレハ有益ナル方面ニ撒布セラレンコトヲ希望シ當時尙ホ大ニ心算アリ即チ陸軍學校或ハ公共事業等ニ支出セラル様運動ヲ試ミル計劃アリシモ中途轉勤シテ果ス能ハサリキ要スルニ當時陛下ハ新任ノ者ヲ寵愛セラレ吾等ハ大ニ信任ヲ受ケツアリシナリ然レトモ吾等ハ他ノ惡評ヲ招クカ如キ陰謀運動ヲ爲シ聖意ヲ惑ハスモノニアラス只今日ニ於テ公ケニ尋問セラルニ至リ一己ノ爲メニ多額ノ金圓ヲ引出シタルハ窃カニ汗顔ニ堪ヘス幸ニ挾雜ノ行爲ニ出テタルモノニアラサルコトヲ諒セラレタシ云々

右爲御參考報告ス

隆熙二年二月五日

警視總監 丸山重俊 印

統監 公爵 伊藤博文 殿

현재 구금 중인 엄준원(嚴俊源)의 구술에 기초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황실 소유 마제은(馬蹄銀)의 처분에 관해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서(中署) 교동(校洞)에 거주하는 전(前)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윤치소(尹致昭, 38세)라는 자가 지난 원년 7월말 말급은 400개를 엄준원(嚴俊源)으로부터 수취하여 이것을 서서(西署)에 거주하는 도매상 조학원(趙學元)에게 매각할 것을 의뢰하여 그 대금 일화(日貨) 3만 200여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마제은이라는 것은 5~6년 전 엄준원이 태황제폐하로부터 자택 보관을 명받았던 총수 426개로, 그 중 26개는 엄(嚴)이 마음대로 소비하였다고 말하므로 엄은 400개의 보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경 윤치소의 친동생 윤치성(尹致誠)이 시종무관(侍從武官)으로 궁중에 있었을 때 친형 윤치소와 그 부친은 아산(牙山) 주민이었지만, 지방 폭동 때문에 그 주거지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가족을 이끌고 경성(京城)으로 피난 왔지만 적당한 가옥이 없어 주거에 곤란이 극심하였습니다. 친아우 윤치성은 군주 측에 가까움을 기화로 그 부형 일가의 궁상을 황제 폐하(현 태황제)께 호소하여 성운을 내려주시길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동정하였지만 수중에 돈의 융통이 없고 그 외에도 돈이 없어서 곤란한 자가 많다고 하여 목적을 달성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에 이르러 그렇다면 불쌍하다 도와주겠다고 하시며 주택을 사는 데 어느 정도의 돈을 필요로 하느냐는 하문이 있어서 윤치성은 이근택(李根澤) 재래의 집인 중서(中署) 교동(校洞)의 저택(李根澤이 兪害를 입은 집)이 현재 방매에 부쳐져 있는데 이 집이야말로 부형의 집에 적당하며 그 가격은 3만圓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때 폐하는 수중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엄준원에게 보관하도록 한 마제은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그때 일가에 주겠으니 마땅히 매각해서 거처를 구하라고 하고 마제은 400개에 대한 엄준원이 보관중인 예증 1통을 下附하셨습니다.

윤치성은 황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수령하여 형 윤치소에게 보였습니다. 이로써 그들 형제들의 거처를 구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또 家政을 정리하기를 의논하여 그 은괴(銀塊)의 매각은 형 윤치소가 담당하여 전술한 순서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던 것입니다.

1. 지금 그 대가 3만 200圓을 소비한 사실을 조사하건대, 別紙 尹致昭 자필 공술서대로 앞서 폐하께 상주한 李根澤의 저택 이외에 2~3채의 가택을 사들이거나 부채를 상환, 또는 일상의 비용에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엄준원의 제기로 일어나서 윤치소·윤치성의 진술에 의해 그 관계가 서로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이를 심문한 주임자는 윤치소에 의해 사실의 대요를 이해하고 윤치성에게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심문하였는데, 윤치성은 비밀히 배수(拜受)하여 무사히 경과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드러났음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일이 원래 부정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친형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 공술을 하였고, 다만 형과 주장이 다른 점은 형은 이근택의 집을 3만圓에 사들여 3개년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바로 1만圓을 지불하였다고 말하고, 동생은 이근택이 3만圓의 원가를 담판 끝에 1만 3,000圓으로 감액 매수하여 미지불금이 3,000圓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형은 동생이 태황제폐하의 은사(恩賜)를 간청하였음에 의한다고 말하고, 동생인 윤치성은 결코 간청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윤치성에게 “가계의 궁상 때문에 3만圓이라는 큰돈을 하사한다는 것은 과분하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은전을 입을 만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하였더니, 그는 “본래 파격적이지만 당시 황제폐하께서는 자주 무익한 거액의 운동비를 密撥하심을 들으시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하시며 어차피 지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방면에 살포되기를 희망하고, 당시 또 크게 속셈이 있었은즉 육군학교 혹은 공공사업 등에 지출되도록 운동을 시도할 계획이 있었지만, 중도에 전근하여 완수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당시 폐하는 신임자를 총애하셨는데 우리들이 크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른 이의 악평을 초래할 음모운동을 하여 성의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늘 공적으로 심문하시기에 이르러 일개인 때문에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였음은 은근히 몹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행히 험잡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참고삼아 보고합니다.

隆熙二年二月五日

警視總監 丸山重俊 印

統監 公爵 伊藤博文 殿

○ 別紙

문서제목 : 前中樞院 議官 尹致昭가 陳述한 皇室所有 馬蹄銀處分內譯 寫

발 송 일 : 隆熙二年 二月 四日 (1908년 2월 4일)

발 송 자 : 尹致昭

隆熙元年七月분에

太皇帝陛下賜馬蹄銀四百介放賣價文參萬二百餘圓으로所用如左

陸仟圓 九月분에 校洞家舍價

四仟圓 十二月분에校洞家舍價

貳仟圓 尹致昭 東京으로 歸國한 諸件報償條

參仟圓 八月분에天一銀行報償

壹仟圓 尹致昭家券典當條 十月天一銀行報償條

貳仟五百圓 桂洞尹致昭家舍價

八仟圓 十月晦鍾路上米廬家價

八佰圓 十月安洞廬四間價

貳仟餘圓 兄弟家屋用下

前記事由는舍弟尹致昭陪從武官時에太皇帝陛下下賜鄉中匪徒騷擾하와安接지 못하나京中の는無住家하와校洞李根澤家舍을三萬圓에願買하와入京하게사오니稟達하와먼니事遇을下燭하시고三萬圓代錢銀四百介을許給하는事

隆熙二年二月四日

尹致昭

[前 中樞院 議官 尹致昭가 진술한 황실소유 馬蹄銀 처분내역 사본]

1907년 7월분에

태황제폐하께서 하사하신 馬蹄銀 400개 방매가격은 文 3만 200여 圓으로 사용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6,000圓 9월분에 校洞 家舍 價

4,000圓 12월분에 校洞 家舍 價
 2,000圓 尹致昨 東京으로 귀국한 諸 件의 보상 조
 8월분에 天一銀行 보상
 3,000圓
 1,000圓 (尹致喊 집문서 전당 조, 10월 天一銀行 채무 상환 조)
 2,500圓 桂洞 尹致喊 家舍 價
 8,000圓 10월 말일 鍾路 上米廬家 가격
 800圓 10월 安洞 廬 4칸 價
 2,000여 圓 형제 가옥용 下

앞에 적은 사유는 동생 윤치성(尹致喊)이 배종무관(陪從武官)일 때에 태황제폐하께 향중(鄉中) 비도(匪徒)가 소요하여 안접하지 못하나 경성(京城)에는 살 집이 없어 교동(校洞) 이근택(李根澤)의 집을 3만圓에 사기를 위하여 입경한 것임. 품달(稟達)하여 먼저 일의 경과를 하촉(下燭)하시고 3만圓 대전은(代錢銀) 400개를 허급(許給)하는 것임.

융희(隆熙) 2년(1908년) 2월 4일

윤치소(尹致昭)

■ 통감부문서 - 尹致喊事件 調査報告 件

○ 문서번호 : 憲機第九一號

○ 발 송 일 : 明治四十一年 二月 二十二日 (1908년 2월 22일)

○ 발 송 자 : 軍務教育課長

軍務教育課長

現役陸軍騎兵副領 (中佐) 正三品 尹致喊 三十一年

右者明治四十一年二月六日警視廳ヨリ京城憲兵分隊長ヘ身柄ト共ニ事件移牒ニ依リ之ヲ受ケ取調ヲ爲シツ
 アリ其嫌疑ノ點ハ明治四十年七月中致喊カ侍從武官タリシ當時恰モ海牙密使事件ニ伴ヒ林外務大臣渡韓問題
 ニ付當時ノ皇帝 (現太皇帝) ニ該問題解決ノ爲メナリト密奏シテ馬蹄銀四百個ヲ詐取シ之ヲ其兄尹致昭ニ交
 付シ致昭ハ之ヲ三萬四百餘圓ニ賣却シ兩人ノ私用ニ費消シタリト云フニ在リ其取調進行ノ狀況如左

一. 昨年陽曆七月中致喊カ太皇帝ヨリ馬蹄銀四百個下賜ヲ受ケタルハ事實ナリ然シテ其下賜ヲ受ケタル月日
 ハ致喊ノ供述ニ依レハ七月三四日頃ナリ

二. 下賜ヲ受クルニ至リタルハ致喊カ當時牙山ニ在ル家族ノ窮狀ヲ數回奏上ノ結果京城ニ家宅ヲ購買スルニ
 充ラシメラレントシタルモノナル事ハ本人及證人等ノ主張ナリ

三. 馬蹄銀四百個ハ嚴妃ノ兄嚴俊源カ宮中ヨリ預リ保管シ居タルモノヲ太皇帝ヨリ致喊ニ與ヒラレタルモノ
 ナリ

四. 馬蹄銀ノ賣却代金三萬四百六十六圓ヲ以テ兄致昭ノ名義ニテ李根澤外五名ヨリ家屋八棟ヲ買求ム此額三
 萬千三百圓又天一銀行ノ負債致喊及長兄致昨ノ分共合計六千圓ヲ償却シ尙ホ殘金三千餘圓ハ致昭及致喊ニ於
 テ全ク費消シタリ而シテ長谷川大將ニ贈賄シタル形跡ヲ毫モ認メス又本人ハ同大將ニ對スル贈賄ヲ全然否認
 セリ

今日迄取調ノ結果ハ上記ノ如クニシテ要スルニ皇帝ヨリ馬蹄銀四百個下賜ヲ受ケタルハ事實ナリ本件中ニ於
 テ殊ニ取調ノ要目タルハ此金員取出ノ爲メ長谷川大將ノ榮譽ニ關スヘキ言辭ヲ弄シ密奏詐取シタルカ如キニ
 在ルモ其事實ハ取調ノ結果之ヲ認ムルノ證憑充分ナラス警視廳ニ於ケル本事件ノ基因ハ侍從院副卿李會九カ
 太皇帝及現皇帝ヨリ致喊カ當時上奏ノ内容ヲ近頃兩陛下ヨリ聞知シタリト謂フニ出テタルコトナルモ李會九
 其他關係者ニ調査ヲ進行シタル結果右政事の運動奏聞ノ事實ハ證憑上認ムルヲ得サル實況ナリ

審理進行ノ結果ハ以上ノ如シ而シテ韓國側ノ軍事警察ニ屬スル事件トシテ現役軍人ノ身分ヲ有スル本件ヲ警
 視廳ヨリ交附ヲ受クルニ先タチ本職ハ軍司令官長谷川大將并ニ副統監ニ對シ將來韓國側ノ軍事警察ヲ取扱フ

コトニ就キ一應意見ヲ確メ置クノ必要ヲ認メ同官等ノ意見ヲ伺ヒタルニ軍司令官ニ於テハ昨年韓國憲兵隊ノ解散當時軍部大臣李秉武ト軍司令官ノ間ニ將來韓國側ノ軍事警察ハ日本ノ憲兵ニテ取扱フコトニ口約アリシ趣ニテ此事ヲ本職ト軍司令官ト面談ノ際幸ヒ李軍部大臣モ同席セシカ同大臣モ之ヲ言明セリ尙副統監ニ於テモ右等ノ理由ニ依リ憲兵ニ於テ韓國側ノ軍事警察ヲ取扱フコトニ何等ノ異議ナキ旨ヲ以テセラレタリ

如上歴史的因由アルノミナラス昨年十一月韓國政府ヨリ統監ニ對シ韓國警察權ノ執行ニ對スル我憲兵ノ援助依頼ノ公文モ有之況ンヤ本件ノ内容中長谷川大將ニ關スル件アルヲ以テ韓國警視廳ノ本件移牒交付ニ應シ之ヲ受理スルニ至レリ

右本事件審理ノ今日迄ノ結果ヲト先報告スルニ當リ併セテ本事件ヲ警視廳ヨリ引受ケタル事由ヲモ及報告候
明治四十一年二月二十二日

軍務教育課長

현역 陸軍 騎兵 副領(中佐) 정3품 윤치성(尹致誠) 31세

위 사람은 1908년 2월 6일 경시청(警視廳)으로부터 경성헌병분대장(京城憲兵分隊長)에게 신병과 함께 사건 이첩에 따라 이를 인수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의 혐의점은 1907년 7월 중 치성(致誠)이 시종 무관(侍從武官)이었던 당시 마치 헤이그 밀사사건에 의한 하야시(林) 외무대신(外務大臣)의 내한(渡韓) 문제에 관해 당시 황제(현 태황제)에게 그 문제 해결 때문이라고 비밀리에 아뢰어 말굽은(馬蹄銀) 6) 400개를 사취하여 이것을 그 형인 윤치소(尹致昭)에게 교부하고 윤치소는 이것을 3만 400여 원에 매각하여 두 사람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말함에 있다. 그 조사 진행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작년 양력 7월 중 치성(致誠)이 태황제로부터 말굽은(馬蹄銀) 400개를 하사받았다는 월일은 치성의 공술에 의하면 7월 3~4일경이다.
2. 하사를 받게 된 것은 치성이 당시 아산(牙山)에 있는 가족의 궁상을 몇 차례 상주한 결과, 경성(京城)에 주택을 구매하는 데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는 것은 본인과 증인 등의 주장이다.
3. 말굽은 400개는 엄비(嚴妃)의 형 엄준원(嚴俊源)이 궁중으로부터 맡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태황제가 치성에게 주었던 것이다.
4. 말굽은의 매각대금 3만 466원으로 형 치소(致昭)의 명의로 이근택(李根澤) 외 5명으로부터 가옥 8동을 사들였다. 이 금액 3만 1,300원, 또 천일은행(天一銀行)의 부채, 치성(致誠)과 큰형 치오(致煦)의 것 모두 합계 6,000원을 상각하고, 또한 잔금 3,000여 원은 치소(致昭)와 치성(致誠)이 모두 소비하였다. 그리고 長谷川 大將에게 贈賂하였다는 형적을 조금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 본인은 동 대장에 대한 뇌물수수를 완전히 부인하였다.

오늘까지 취조한 결과는 상기한 바와 같으며, 요컨대 황제로부터 馬蹄銀 400개를 하사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본건 중에서 특히 취조의 요목인 것은 이 돈을 빼내기 위해 長谷川 大將의榮譽에 관한 언사를 농하여 密奏, 詐取한 듯한 일이 있지만, 그 사실은 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증빙이 충분치 않다. 警視廳에 의한 본 사건의 기인은 侍從院 副卿 李會九가 태황제와 현 황제로부터 致誠이 당시 상주한 내용을 근래 양 폐하로부터 들어 알았다고 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李會九와 기타 관계자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 정치적 운동 주문의 사실은 증빙상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리 진행의 결과는 이상과 같다. 그리고 한국 측의 군사경찰에 속하는 사건으로써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진 본건을 警視廳으로부터 교부를 받는 데 앞서 본직은 군사령관 長谷川 大將과 부총감에 대해 장래 한국 측의 군사경찰을 다루는 데 관해 일단 의견을 확인해둘 필요를 인정하여 同官 등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군사령관께서는 작년 한국 헌병대 해산 당시 군부대신 李秉武와 군사령관 사이에 장래 한국 측

6) 마제은이라고도 한다. 원(元)나라 말기부터 출현한 말굽 모양의 은괴(銀塊)로, 서양인들은 이를 사이시(syce)라고 불렀다. 말굽은은은으로 만든 50냥(1,875 g) 중량통화 중에서도 큰 거래나 저축용으로 주조된 것이었으며, 민간의 말굽은 제조점인 노방(爐房)·은로(銀爐)가 관청이나 전장(錢莊) 등의 주문에 의해 여러 작은 은 통화를 녹여서 만들었다. 주조된 말굽은은은 제조소의 인장을 눌러 사적 경영에 의한 관허감정업체(官許鑑定業體)인 공고국(公估局)에서 중량을 재고, 육안으로 순도를 판정하여 중량에 가감해야 할 수치를 계산하여 묵서(墨書)하였다. 이 판정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각기 그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의 군사경찰은 일본 헌병에서 취급하기로 구두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본직과 군사령관과 면담할 때 다행히 李 軍部大臣도 동석하였고 동 대신도 이를 언명하였다. 또한 부총감께서도 이상의 이유에 의해 헌병이 한국 측의 군사경찰을 다루는 일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뜻이었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11월 한국정부로부터 통감에 대해 한국 경찰권의 집행에 대한 우리 헌병의 원조 의뢰 공문도 있었다. 하물며 본건의 내용 중 長谷川 大將에 관한 건이 있으므로 한국 警視廳이 본건 이첩 교부에 응하여 이를 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상 본 사건 심리에 대해 오늘까지 결과를 일단 보고함에 있어 아울러 본 사건을 警視廳으로부터 인수한 사유도 보고한다.

明治四十一年二月二十二日

■ 대한매일신보 - 1908년 10월 9일자

→ 윤치소 일가의 교동 집이 '교동 22통 15호'였던 사실을 시사함

○ 유모구경은 광고
○ 희를 첫먹일 터인디 ○ 희업시와서 유모노릇하시오
와서 유모노릇하시오 교동 이십 이통 십오호
이통 십오호 윤치소 빅

유모 구경은 광고

○ 희를 첫먹일 터인디 ○ 희업시와서 유모노릇하시오

교동 이십 이통 십오호

윤치소 빅

■ 황성신문 - 1910년 9월 2일자 - 奴隸解放

尹雄烈 尹英烈 兩氏는 再昨日에 各 其該 私邸에서 一般奴婢를 會同하여 一場 說論하여 曰 現今時代에는 他人을 依賴生活하는 것이 妥合지 못하니 從今 以後로는 各其 自由生活하라 하고 一切 解送하고 奴婢文券은 沒數 燒火하였다더라

■ 조선총독부 관보 - 1911년 5월 3일자

○ 鑛業事項		鑛業、砂鑛許可取消	鑛業、砂鑛許可取消
登錄番號		鑛業所在地	鑛業者住所氏名
鑛第二九一號	同	平安北道義州府大和町十七番地	代業者 小島鐵太郎
鑛第四〇七號	同	新嘉坡常盤町六丁目三十二番地	小倉守隆
鑛第三五四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代業者 白雲敬
鑛第六六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六九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三八四號	同	平安北道義州府大和町十七番地	代業者 小島鐵太郎
鑛第五〇五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代業者 白雲敬
鑛第六〇四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六二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六七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六九〇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三〇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三三三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三八二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一九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鑛第四三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砂第一五五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砂第一五四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砂第一〇五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砂第二一號	同	京城南部上洞三十五番地	同

→ 광업법에 의해 광업 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 된 윤치소와 윤치오 형제의 주소가 중부 교동 22통 15호에서 교동 25통 12호로 변경되었음을 시사함

褒賞

(木杯下賜)朝鮮總督府ニ於テ木杯ヲ下賜シタル者左ノ如シ

(金三十圓)	(同)	國濱上殿上安面 國濱上郡清水里
(金二十圓)	(同)	草溪北節大牧洞 同松淵
(金十圓)	(同)	尹致昭 尹政祥
(各過)	(金四十圓)	同中部校瀨
(金六十圓)	(同)	趙聖九 朴宗桓
(同)	(同)	周典綱 局北軒社瀨
		石潭館
(金三圓)		同道同郡上安園 司馬司郎二友工役

[illegible]

四九 叁	一四八 叁	一四七 叁	四八 叁	一四五 叁	一四四 叁	一四三 叁	一四二 叁	一四〇 叁	三九 叁	二九 叁	二七 叁	三六 叁
二八四	三四九	三一	四二	四七	三五〇	二九	二三八	二七	一〇	八	二二	二〇
二、五、六〇〇 和泉町	三、四一〇〇	一八六〇〇	二五〇〇〇	二八〇〇〇	三、五〇〇〇	二六〇〇〇	一、二四二〇〇	一六二〇〇	六〇〇〇	四八〇〇	一〇〇〇〇	一〇〇〇〇
梁	尹	尹	全	趙	金		岩田次郎	李承烈	彭樂周	韓在鳳	姜昌熙	許元模
在	致	致	壽	重	熙							
視	昭	及	星	壽	熙							

二四	二	五〇〇	孟
二五	二	五〇〇	浩
二六	二	五〇〇	植
二七	二	五〇〇	韓一銀行
二八	二	五〇〇	金潤
二九	二	五〇〇	高漸興
三〇	二	五〇〇	李載鳳
三一	二	五〇〇	張基鴻
三二	二	五〇〇	尹致昭
三三	二	五〇〇	金應煥
三四	二	五〇〇	金應煥
三五	二	五〇〇	釘本藤次郎
三六	二	五〇〇	金元
三七	二	五〇〇	李奎炯
三八	二	五〇〇	李奎炯
三九	二	五〇〇	朱性根
四〇	二	五〇〇	黃俊植

– 52 –

■ 윤치호일기 7권 - 1917년 3월 22일자

→ 윤치호가 삼청동으로 가서 삼촌인 윤영렬, 윤영렬·윤웅렬 형제의 두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삼청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규명하기 곤란

22nd. Thursday. Rather chilly.

Y.M.C.A. as usual.

At 12 p.m. went to 三清洞 to take lunch with uncle and other members of our two families.

■ 윤치호일기 7권 - 1917년 3월 23일자

23rd. Friday. Beautiful a.m. Rain. p.m.

Y.M.C.A. as usual.

Uncle returned to country by 1 p.m. train—光善 went with him.

■ 윤치호일기 7권 - 1918년 3월 27일자

27th. Wednesday. Pale.

Y.M.C.A. as usual.

Present at the Commencement exercises of the 梨花學堂. Uncle left Seoul for 天安.

■ 윤치호일기 7권 - 1918년 6월 3일자

3rd. Monday. Beautiful—Cool.

Y.M.C.A. as usual.

Second cousin 致昭 came to see me about 5 p.m. Informed me that he had just concluded a bargain for the big Korean house which 金容達 had built or rather improved(180Kan) in 小安洞. That house was originally built or owned by 閔泳雨 (민망난 or 민부처). It was given to Prince Pak (朴泳孝) by the then Empress in 1894. After Prince Pak quit the house to save his life in the summer of 1895, the house was occupied by 恒屋成服, Mr. P's Japanese confidant. After Mr. 恒屋 left Seoul, Mr. 加藤增雄 lived in it.

Then 金容達 the notorious spendthrift bought it, and improved it to such an extent as to make the house reputed being the finest Korean house in Seoul. Then the 漢城銀行 took it over for a debt which 金 owed to the Bank. Lately Baron 趙東潤 bought it for his concubine. His concubine was told by a sorcerer that the house was unluck, so Baron 趙 decided to sell it. My cousin bought it for ₩12000. I didn't fancy the house. So big with no decent styles leading to it. Cousin may see money i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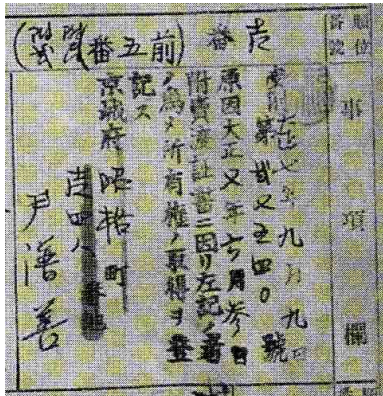
오후 5시경 사촌동생 치소가 찾아왔다. 그는 김용달이 안동에 짓거나 개보수한 으리으리한 한옥을 (180칸) 지금 막 계약했다고 알려주었다.

원래 민영우(민망난 혹은 민부처)가 이 집을 지었는데 1894년 민비가 금릉위 박영효에게 이 집을 주었다. 그 이듬해 여름에 박영효가 목숨을 건지려고 이 집을 포기한 후 박씨의 절친한 친구였던 츠네야 모리노리(恒屋成服)가 이 집에서 살았다. 츠네야 모리노리가 서울을 떠난 후에는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이 집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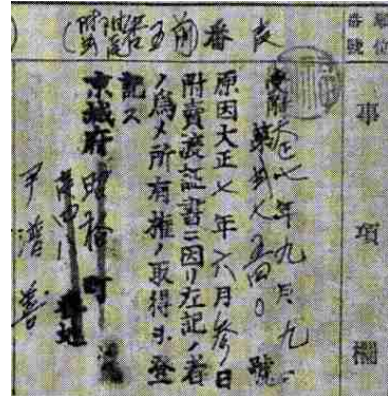
그 후 돈 헤프게 쓰기로 이름높던 김용달이 이 집을 사서 서울에서 제일가는 저택이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중전을 했다. 그런 다음 한성은행이 김씨가 갚지 못한 부채 대신 이 집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조동윤 남작이 자기 첩을 살게 하려고 이 집을 샀다. 그런데 그의 첩은 한 점쟁이에게서 이 집에 마가 쫓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조남작은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내 사촌동생이 12,000원을 주고 이 집을 샀다.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청 크기만 클 뿐 그 크기에 부합할 만한 근사한 스타일은 영 아니다. 치소는 아마도 돈이 될까 해서 이 집을 산 모양이다.

■ 구 등기부등본



▲ 구 등기부등본(토지)



▲ 구 등기부등본(건물)

안국동 8번지가 1918년 6월 3일 경성부 소격정(昭格町) 148에 거주하던 윤보선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등기부에는 원 소유자 불명시)되었고, 매도증서 확인에 따라 같은 해 9월 9일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 가능하다.

■ 『경성부지적목록(1917년·19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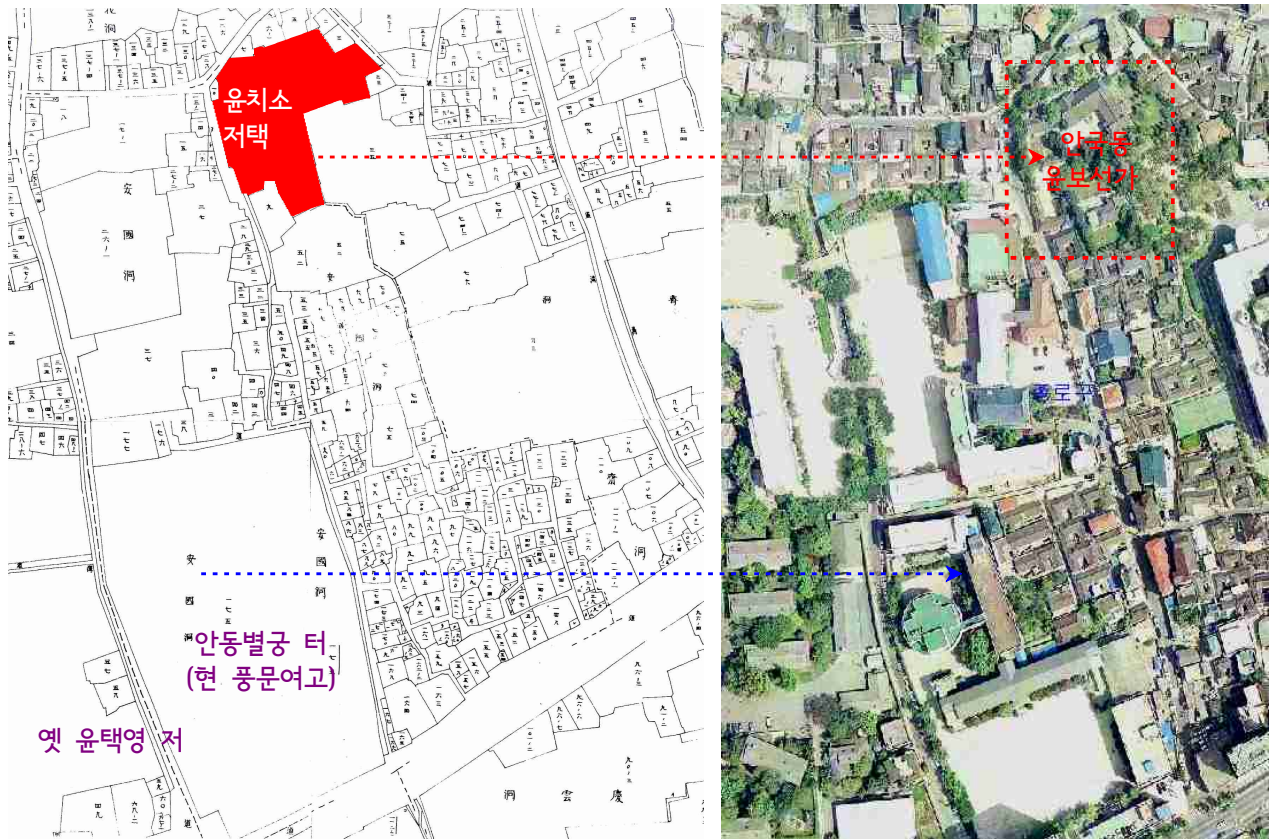
- 『윤치호일기』에 윤치호의 사촌인 윤치소(尹致昭)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안동의 김용달(金容達)의 집은 1917년 『경성부지적목록』에 김용달이 소유한 토지가 안국동에서는 안국동 8번지(1,310평) 하나뿐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1927년 『경성부지적목록』을 보면 안국동 8번지가 8-1과 8-2로 이미 분필되었으며 그 소유자가 윤치소의 아들로 소격동 148번지에 거주하던 윤보선(尹譜善)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릉위 박영효가 1894년 8월 귀국하여 1895년 7월 일본으로 망명하기까지 머물렀고, 또 망명 기간 중 그의 가족이 츠네야 모리노리의 비호 하에 거주했으며, 1899년 6월 폭발사건 후에는 김용달이 180칸으로 신·증축하고 1918년 윤치소(명의상 윤보선)가 매입한 곳은 안국동 8번지, 현재의 <안국동 윤보선가(사적 제438호)>의 대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윤치소 일가가 안국동 8번지로 이주하기 직전에는 소격동 148번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1917년 『경성부지적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대지 면적은 총 349평이었음

地番	地目	坪數	地	價	所有者住所	氏名
一	宅	五二	地	三三八〇〇		李順煥
二	宅	二六	地	一六九〇〇		徐載煥
三	宅	三六	地	一三四〇〇		柳聖煥
四	宅	一八	地	三二八五〇	嘉會洞	李順煥
五	宅	四九	地	三九〇〇〇		李承煥
六	宅	六〇	地	三九〇〇〇		李承煥
七	宅	三二	地	一〇一五〇		李承煥
八	宅	三二	地	一〇一五〇		李承煥
九	宅	一五	地	一三五〇〇		李承煥
一〇	宅	一五	地	一三五〇〇		李承煥
一一	宅	一一	地	九九〇〇	雲昌洞	朴春根
一二	宅	五	地	四五〇〇	全	朴春根

地番	地目	坪數	地	價	所有者住所	氏名
一	宅	五二	地	三三八〇〇		李順煥
二	宅	二六	地	一六九〇〇		徐載煥
三	宅	三六	地	一三四〇〇		柳聖煥
四	宅	一八	地	三二八五〇	嘉會洞	李順煥
五	宅	四九	地	三九〇〇〇		李承煥
六	宅	六〇	地	三九〇〇〇		李承煥
七	宅	三二	地	一〇一五〇		李承煥
八	宅	三二	地	一〇一五〇		李承煥
九	宅	一五	地	一三五〇〇		李承煥
一〇	宅	一五	地	一三五〇〇		李承煥
一一	宅	一一	地	九九〇〇	雲昌洞	朴春根
一二	宅	五	地	四五〇〇	全	朴春根

▲ 1917년 지적목록(왼쪽)과 1927년 지적목록(오른쪽) 상의 안국동 8번지 현황

■ 『경성부지형명세도(京城府地形明細圖)』, 川合新一郎 編, 1929년과 현재 대비표



■ 윤치호일기 7권 - 1919년 5월 14일자

14th. Wednesday. Beautiful.

來信: 郭漢泳 信來.

Today being the birthday of my uncle, went to cousin 致昭's home for breakfast. Y.M.C.A. from 10 a.m. to 4 p.m. we had the regular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오늘 숙부의 생신이기 때문에 사촌 치소의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YMCA에 있었다. 정기이사회가 있었다.

■ 윤치호일기 8권 - 1923년 4월 10일자

10th. Tuesday. Beautiful. Mild.

Seoul home. Hear that a few days ago two young men called on cousin 致昭 about 10 a.m. in his "sarang." They announced themselves 共產黨 or Communists and demanded ten thousand yen with loaded pistols pointed at cousin. Cousin gave them about ₩80.00 which he had just on his person. They left him saying that they would expect him to give the sum named inside a week.

몇 일 전 2명의 젊은 이가 사촌 치소를 아침 10시경 사랑채로 찾아왔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며 사촌에게 권총을 겨누며 만엔을 요구했다.(후략)

■ 개벽 제6호 - 1920년 12월 1일 - 庚申年의 거듭(上)

庚申 1년은 이 세계로나 또는 우리 朝鮮으로나 꽤 多事한 年이었다. 이제 이 해의 絶頂에 立하여 過程을 回想함에 多少의 感이 업지 못하다. 이제 今年 中 每月에 起한 重大事項 만을 사실 그대로 抄記하여 聊히 惜別의 情을 表하며 7월 이하의 사건은 별로 覆雜한 바 新년호에 계속 抄記코저 한다.

(중략)

朝鮮教育會創立

26일 京城 內 尹致昭씨 家에 朝鮮教育會의 創立總會가 有하얏스니 회장 李商在, 부회장 金思默, 이사 俞鎭泰씨 외 14인, 評議員 張薰, 俞星濬, 金思容씨 외 19人인 바 教育界 아니 有志人士를 殆히 網羅 하얏스며 그 목적은 우리 現下의 教育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훌륭한 바 世人은 斯에 대한 期望이 多한 동시에 同會의 有名無實에 不終하기를 切祝한다 하얏다.(후략)

■ 윤치호일기 9권 - 1925년 5월 8일자

8th. Friday. Bright. Cool.

(중략) Cousin 致昭 is building a pretentious "Sarang"—with "Palace roof". I would have preferred a more modest style of building. The squalid surroundings of the village and the lack of good supply of water make such a building look a little out of place.

사촌 치소가 궁궐 지붕 양식의 허식적인 사랑채를 짓고 있다. 나는 좀 더 소박하게 짓기를 바랬다. 불결한 그 마을의 분위기와 물 공급량의 부족 때문에 그 건물은 그곳과 좀 동떨어져 보인다.

■ 윤치호일기 9권 - 1927년 5월 15일자

15th. Sun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Uncle's 61st anniversary of his marriage. 回婚禮 is naturally a rare event in itself; but the combination of health, wealth, honor(officially) and many children plus longevity is most rare not only in Korea but anywhere in the world. Entertainment at 食道園 from 2 p.m. Over 150 guests present.

■ 윤치호일기 9권 - 1927년 5월 16일자

16th. Monday. Pretty. Cool.

Seoul home. (중략)

Entertainment at 食道園 at 4 p.m. by cousin 致昭. Nearly 200 guests.

■ 윤치호일기 9권 - 1927년 5월 17일자

17th. Tuesday. Cloud and sun. Cool.

Seoul home. Rev. 崔炳憲's funeral service at Central Y. 2 p.m. The large auditorium packed to overflowing. From 4 p.m. entertainment at 食道園 in honor of uncle's 回婚禮. Japanese officials and missionaries guests and many Koreans.

■ 윤치호일기 9권 - 1927년 6월 1일자

1st. Friday. Cloud and sun. Pleasant.

To 牙山 新村 per 11:05 a.m. train to be present at the celebration of uncle's 75th birthday tomorrow.

Seoul home. 3 p.m. Went to cousin 致昭's home to be present at the engagement ceremony between 隆熙 and 金鍾勳.

■ 중외일보 - 1927년 5월 1일

膝下엔 七男三女 - 六十一年 同居偕老 - 尹英烈氏 回婚禮

전 군부대신 윤웅렬씨의 친아우요 윤치호·윤치소 씨 등의 대인(大人)인 윤영렬씨는 금년 칠십세의 고령으로 또한 칠십칠세의 고령인 그 부인 한씨와 더불어 십오일 오전에 인세(人世)에 드물다는 희혼례를 거행하얏다는데 □□스럽고 상서로운 성거를 구경하라는 일반 사녀가 시내 안국동 그 가정에 몰려와서 집안 내외는 무려 천여명의 사람으로 웃음바다와 깃쁨의 터를 자חת다.(이하 생략)



膝下엔七男三女
六十二年同居偕老
尹英烈氏回婚禮

전주부대신(軍部大臣)尹英烈(尹英烈)의 장남(長男)인(人)尹致昭(尹致昭)와 장녀(長女)인(人)尹致昭(尹致昭)의 혼례(婚禮)가 전주(全州)에서 거행(擧行)되었다. 이혼(離婚)한 부부(夫婦)가 다시 한 가족(家族)으로 합가(合家)한 것이다. 이혼(離婚)한 부부(夫婦)가 다시 한 가족(家族)으로 합가(合家)한 것이다. 이혼(離婚)한 부부(夫婦)가 다시 한 가족(家族)으로 합가(合家)한 것이다.

■ 윤치호일기 9권 - 1928년 12월 31일자

31st. Monday. Cloud. Snow most of the day. Cold.

Seoul home. The 3rd Son of cousin 致昨, married last Friday. Today the ceremony of 見舅姑 held at cousin 致昭's home.

■ 윤치호일기 9권 - 1930년 5월 3일자

3rd. Saturday. Clear and sun. Pleasant.

■ 『별건곤』 제21호 - 1929년 6월 23일

피끓고 살맹이 뛰노는 現存 壯士 靑春時代의 冒險談, 不汗黨巢窟을 一鞭에 掃蕩한

飛虎將軍의 神威勇略

- 安城郡守 時代의 尹英烈翁 -

龜石山人

정성 종로 네거리에서 북부로 치다라서 안국동 네거리 당도하거든 동쪽으로 내다라서 別宮 동편 담을 끼고 다시 북으로 북으로만 곳장 올라가고 보면 왼편으로 안국동 예배당이 웃둑 솟아 있다. 그 예배당에서 바로 마준편으로 宏傑한 큰 대문집이 닥쳐온다. 그 압흐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 건넌 집인가? 어느 부잣집인가봐 그러?』

『누군가? 문패를 보게나 그러...』

『문패는 尹致昭라구 부터 잇네만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압다 이 사람아! 尹雄烈의 伯氏 尹英烈의 아들일세 그러!』

『윤영렬이라니? 포도대장하든 윤영렬이 말인가?』

『올치 올치 똑바로 마졌네! 마졌서...』

이러한 문답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지나간다. 이 집의 老主人 公尹英烈翁은 지금 와서는 朝鮮안에서 두 사람도 엮는 大福之人으로 (壽富貴多子孫) 세상 사람의 欽慕의 관역이 되어 잇스며 재작년에는 거액의

자금을 드려서 회혼례를 엮지나 핑장 백은 하게 치두웠든지 일본신문에서는 조선의 松方正義라고 한참동안이나 떠드러 댔다. 이러케 팔자 조흔 大福之人이지만 그의 靑少 시대에는 矢石이 雨下하는 戰場에서 劒戟이 閃閃한 살육장에서 남의 격거내기 어려운 위험과 고난을 치루워 온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玉政峙大活劇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별의별 일화가 만치만은 그의 20當年の 일화=그 중에도 安城郡守시대의 그것을 한 번 들어보면 누구나 다 大痛快를 느끼게 되며 감탄을 마지 안게 될 것이다.

넷날 郡守級에는 縣監縣令의 구별이 군의 대소에 따라서 다르며 또 다가튼 군수 중에도 군의 地勢와 人情을 딸아 文武의 구별이 잇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군은 險嶺重關을 낀 요새지임으로 무관이라야 군수를 하게 된 것이 그 때의 관제이였다. 안성이란 경기도 동남단에 잇는 雄洲이며 또한 네로부터 생산 제조업(米穀 유기 등)의 발달로 유명하야 삼남에 屈指하는 무역, 공업 시장임을 딸아 居民의 생활이 풍요한 그 우에 교통으로 보아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부로서 경성으로 통하는 咽喉之地임으로 春秋로 稅納의 運搬 上京이 이 땅을 밟게 되며 忠淸北道 鎭川과의 接界에 옥정이 入고개 (玉政峙)라는 險嶺을 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제로 安城 竹山 鎭川 陰城하는 곳은 不汗黨 (強盜團) 만키로 일음난 곳이지만 그 중에도 옥정이 入고개처럼 도적놈 만이 난 곳은 업슬 것이다. 옛젣든지 옥정이 入고개라는 데는 東京畿 北忠淸의 불한당의 총본영이엿섰다.

그럼으로 안성군수는 호반(武官)이 만히 해나려 왓섯지만 약간의 관병이나 捕校개로는 정복은 커녕 도리어 賊軍에게 포위 도망의 추태를 연출한 것이 상례였스며 때의 당국자들의 큰 두통꺼리엿섰다. 그리다가 尹英烈은 25세의 약관으로 안성군수의 印授를 차고 得意揚揚 安城 경내로 말골비를 쫓석이며 호기 잇게 부임헸다. 그는 물론 안성이 불한당의 총본영인 줄도 알고 갓슬 것이며 여기 대한 어떠한 確乎不拔한 결심이 잇섯든지 부임후 3일 만에 장교 포교 사령 등의 점검을 마친 후에 그 날로부터 晝夜兼行 군사교련에 精研 하엿다. 孫武의 병서와 제갈의 진법으로 몇 달동안 조련에 조련을 加하야 兵精精足의 戰備를 정돈한 연후에 賊窟 소탕 불한당 근절의 행군을 시작한다.

蛇蝎 豺狼가튼 強盜團은=官軍 토벌에 노련한 不汗黨들은 쉴 새 업시 신임 郡守의 인물과 작전 계획을 探偵하여서 이미 군사 교련에 전력을 기우리는 줄 미리 알은지라 저의들도 山寨를 당당히 열거노코 전술을 연습하야 일대 결전을 예비하엿다. 中國의 土匪 馬賊과 가튼 때이며 여간 조그마한 強盜團은 아니엿다.

尹은 담력이 過人할 뿐만 아니라 날내기 飛虎가티여 高樓巨閣이나 大川深溝가튼 것은 예사로 훌쩍 훌쩍 뛰어넘는 勇力이엿스며 그 우에 그의 애마는 千里駿驄이라 賊軍과 臨陣對敵할 入적에는 넷날 관운장의 적토마가 河北 名將 顏良 文醜의 밋쳐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할 겨를도 업시 칼날이 빗나는 곳에 목이 벌서 떠러지든 그러한 神足을 가졌섯다. 그럼으로 때의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飛虎 將軍이라고 일컫렀다 한다.

그의 銳氣는=그의 行陣 形勢는 대번에 바로 總本營인 옥정이 入고개를 팍 찢러 파헤쳐 버리려는 軍容이엿스며 計劃임으로 먼저 密偵을 보내어 山勢를 두로 살피고 또 피해한 良民=포로되엿든 村民을 鄉導官으로 압장을 세워 가지고 玉政峙의 주위 40리를 10중이나 포위해 노코 자기 손수가 선봉이 되어 賊窟을 돌격하는 지라 장교의 한 사람이 『귀중하신 몸을 돌보아 선봉을 讓避하시라.』고 충고해 보앗스나 『不入虎穴이면 安得虎子리요.』를 連呼하면서 그냥 그 勢頭로 單騎 습격을 시험하엿다. 이 얼마나 한 모험이갓느냐? 그러나 기개는 雲霄를 찢을 듯 용맹은 龍虎라도 집어 삼킬 듯한 精銳인지라. 그의 날넌 칼머리를 뉘 능히 막어낼 것이라! 그의 칼 창 번드기는 곳에 도적의 首級이 궁글어 떠러지고 그의 말머리 돌리는 곳에는 良民의 害敵이 戰慄懼伏하엿다. 그 험준한 山堅이지만 上上下下 東西翻覆 槍劒으로 矢石으로 醒風血雨를 무릅쓰고 數百合 대격전을 치룬 후에 賊軍이란 위낙 혼련업는 鳥合之衆인지라 弓矢발을 말어들고 창과 칼을 꺾구로 잡고 그만 36계에 走爲上策을 불으며 도망질을 첫지만 將捕校의 중위의 그를 구멍을 빠져 나아가는 者 누구이라? 일 賊도 남기지 안코서 죄다 捕繩에 묶기엿다. 이리하야 蛇蝎가튼 豺狼가튼 不汗黨! 良民으로 하야곰 위협 剝奪 살육 멸문의 가진 不安恐怖를 끼쳐 주는 凶徒惡黨의 總本山만은 飛虎 將軍 一鞭之下에 소탕되고 말엿다.

危險! 大危險!!

本窟을 뭇청 들러 빼논 뒤에는 여줄거리 불안당은 尹이 몸소 出馬를 안터라도 將捕校 몇 10명식으로도

足히 剿滅하야 1년 동안에 不汗黨이라고는 形影이 俱失되고 말었다. 그리하야 安城 一境은 물론이고 竹山 鎭川 陽城의 인근 읍까지도 백성들이 벼개를 논히 비고 밤에 문을 닫지 안코서도 安樂 태평하게 잘 살 수 잇섰다.

그런데 하로는 무슨 公事로 사오 리 밧갓테 산촌 벽지로 출장을 나갔다가 밧치 도라오지 못하고서 할 수 업시 어느 富豪家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는 아무리 도적질 하는 불의의 무리지만 워낙 사람을 만히 죽인지라 그래두 마음에 항상 무시무시 하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숙소는 남이 잘 알지 못하게 하며 또 주위에는 포교로 성벽을 찢코서라야 안심하고 숙박을 하는 것이 그의 상례이다. 이 날 밤도 그 집 행랑에는 전후 좌우할 것 업시 포교로써 철통가티 단속을 하고 자기 혼자 한 가운데 큰 사랑에서 머리밧테는 장검 단도를 세워노코 잠을 자려고 차비를 차리는 데 별안간 방문이 슬몃이 열리면서 一大漢이=키는 7척 장신 눈은 장땡을 입은 귀밧까지 쭉 짖어진 녀석이 大瀾步로 썩 드러서더니 허리 에로서 劒光이 번쩍이는 7首를 썩 빼 들고

『네가 이 놈 尹英烈이지!』

尹은 잔뜩 긴장되는 五體를 슬쩍 눕여 가지고

『그러타! 내가 尹英烈이다!』

『응!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우리 아버지가 不汗黨魁首였섯는 데 작년에 네게 잡혀 죽었스니 자식이 되어서 엇지 그냥 잇슬 것이냐! 그래서 네 목숨을 빼스랴고 1년 동안 남 모르는 가진 苦心을 하든 꼬 테 천우신조해서 오늘 밤에 여기서 만났구나! 너의 목숨은 이 시간이 마즈막이다!』

語氣가 장렬한 사형선고이였다. 지척에 밧작 드러서서 칼끝을尹의 미간에 대고서 하는 살기 넘치는 광경이라. 英雄 無用 武之地 危急 危急해야 이런 위급이 또 어대 잇스랴! 그러나 이러케 위급할수록 태연자약해지는 것이 그의 성격이다. 그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것도 그럴 듯 하다! 그런데 그래 너 혼다왔네? 여럿이 왔느냐?』

『나 혼자 왔다! 이 놈아 네 까짓놈 하나 목숨을 빼는 데 여러 사람이 올스듯 십흐냐!』

『그러? 그럼 저-네 뒤에 섰는 것은 누구냐?』

제 아무리 대담한 장사기로 서니 오기는 혼자 온 것이 분명한 데 뒤에 누가 섰다는 말을 듯고서야 마음이 온전할스것이라? 대답하게 드러오기는 왓스나尹의 警備太嚴한 줄도 아는지라 잣짓 失手나 하지 안을스가 해서 무시무시하든 끄테임으로 本能的으로 직각적으로 그만 뒤를 책 도라보았다. 그리는 동안에 벼개엽헤 세워노인 短刀를 번개가티 집어던지자 그놈의 뭇이 땅빠닥에 딱떠러지며 그 큰 好漢이 『太』자로 나잡바진다. 臨機應變! 이것이 정말 曹操 이상의 대민첩이였다.

第二次大活劇

한 번은 무슨 긴급한 불스일이 잇서서 忠淸道 鎭川邑內까지 갔다가 도라오는데 재양(長楊) 장터에 와서 저녁 참을 대노라니까 별안간 血相이 썩과래 가지고 비지땀을 흘리며 숨이 턱에 다아서 혈떡어리며 그 주막으로 달려 드러서 턱 고라지는 장사 사람이 잇섰다. 여러 사람이 달려드러 응급 手當을 해서 간신이 숨을 돌린 뒤에 자세한 연유를 무러본 즉 이제 안성장에 장을 보려갓다가 느저서 그냥 자고 오늘이야 진 천으로 도라오는데 옥정이스고개를 넘다가 홀연 양편 바위 틈으로서 튀어 나아오는 不汗黨놈들에세 사로 잡혀 등마루로 끌려가서 돈이란 돈은 죄다 빼앗기고도 소나무에 깃구로 매달려서 잇다가 그놈들의 술집으로 술먹으려 드러간 틈을 타서 그만 36計 줄행랑을 노앗다는 것이였다. 그 말을 드른 그은 무엇을 생 각 했는지 저녁밥을 재촉해 먹고서 주인을 불러 먹서리(藁席=가마니 가튼 것) 하나와 동아바(麻繩) 한 타래를 빌어 가지고 商人으로 變服을 한 연후에 捕校 불러 분부하되 『내가 떠난 지 두덩鍾쯤 잇다가 뒤를 니어 오라.』 고 일러 노코 자기는 바로 떠나 옥정이스 고개 미테 자갈 밧테(石礫)서 손아귀에 하나씩 되는 돌맹이를 먹서리로 하나 갓득 주어놋코 꺾꺾 묵거 질머지고 薄暮黃昏에 어스름 달빛을 띄고 구부렁 구부렁 올라간다. 고개를 다 올라가서 (지금도 주막집 한 집 잇지만은) 그 때는 두어 집이나 주막이 잇서서 길가는 사람의 가다 오다 참대고 노름하는 데 였다. 이 날 밤에는 도적놈들이 아마 몇 십 명 드러서 빼앗은 돈으로 술타령 노름질에 한참 흐뭇하게 노는 중이였다. 그런데도尹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려간 즉 그 때 마춤 밧게 나와 어질넝 어질넝 하는 놈이 하나 잇다가 그 꼴을 물그럼이 보

더니 아무 말 업시 방으로 쪼차 드러간다. 尹은 그냥 시침을 딱 떼고 그 고개를 넘어서 한참동안이나 내려가 노라니 고개 꼭대기로서 『이 놈! 거기 내려가는 놈 꿈쩍말고 섰거라!』 의 고함 소리가 나더니 千兵萬馬가 모라 나리는 것처럼 우루루 山꼴이 찌렁찌렁 내려 물린다. 尹은 그만 슬그머니 길가의 바위우에 먹서리를 내려 노코서 부스럭 부스럭 푸러 헛치더니 돌맹이를 두 손에 갈리쥐고 한 번 『팽!』 소리에 응하야 한 놈이 폭 곡구라진다. 그리하야 쪼차나려 밀든 놈들은 한 놈씩 한 놈씩 『팽!』 하면 이마가 『딱!』 하고 그 자리에 고라져서 뱃굴뱃굴 내려구른다. 이러케 해서 불과 몇 십 분 동안에 몇 십 명 강도단은 모라 쓰러졌다. 누가 尹의 돌팔매질 잘하는 줄까지 알었스랴? 그 強暴한 불안당의 눈에는 尹의 질머진 것이 꼭 돈(金錢)入 짐으로만 알고서 작당 추격한다는 것이 그의 돌팔매질에 죄다 모조리 곡구라져서 내 중에 따라오는 捕校들 손에 묵기고 말었다 한다. 이것이 아마 尹의 安城郡守때의 不汗黨 소탕의 長終幕이었스며 20여세 한참 혈기 방장한 때의 모험적 대분전 대활극이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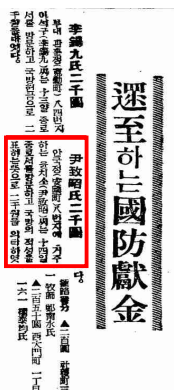
■ 폐쇄 등기부등본(건물)

1934년 본채에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고, 부속건물들이 신축되었으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936년 전 등기부에서 옮겨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채는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목조와즙(124.2평 : 410.58㎡)·목조 도단즙(13.62평 : 45.02㎡)·연와조 도단즙(6.46평 : 21.36㎡)이 혼재된 총 144.85평(478.84㎡)으로 변화하고,

부속건물은 총 6동이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신축된 부속건물은 목조와즙(29.26평 : 96.73㎡)과 목조 도단즙(15.15평 : 50.1㎡)이 혼재된 44.41평(146.8㎡), 목조와즙 16.31평(53.93㎡), 목조와즙 21.38평(70.68㎡), 목조와즙 21.84평(72.2㎡), 목조와즙 18.4평(60.82㎡), 목조와즙 1.95평(6.45㎡) 등이다.

■ 동아일보 - 1937년 8월 15일



遷至하는 國防獻金

尹致昭氏 二千圓

안국정(安國町) 8번지에 거주하는 윤치소(尹致昭)씨는 十四일 종로서를 방문하고 국방의 적성을 표하는 뜻으로 二千원을 의탁하였다.

■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제4편 결혼생활, 피난생활

1. 해위 윤보선씨와 결혼을 하다.

(전략)

나는 혼인을 했다. 서른아홉이란 성년이었지만 혼인을 하면 어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생각을 못한 채 혼인을 했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혼인을 해야 한다니까 거의 수동적으로 혼인을 한 것이다.

결혼식은 신랑 윤보선씨의 안국동 자택 대청에서 함태영 목사님의 주례로 치렀다. 때는 1949년 1월 6일, 날씨가 온화해서 마당에도 하객들이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들러리로 여섯째 시숙모가 나를 인도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나는 한신을 떠나 안국동 8번지로 귀양을 오고 말았다. 그 때 해위 윤보선씨는 서울시장이었다. (후략)

2. 시집살이와 시어머님

(전략)

우리 시어머님 이범숙씨는 전형적으로 한국의 부덕을 갖추신 훌륭한 어른이었다. 그분은 충청도 아산 태생으로 만석군의 무남독녀였다고 한다. 체구는 작달막하셨다. 무려 열일곱 번 포태를 하시고 9남매를 출산하신 건강한 어머니셨다.

어느 날 막내 아드님의 딸, 손녀와 대화중 “이 할머니는 열일곱 번 포태를 했단다.”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철없는 손녀딸은 그만 놀라서 “아이고! 할머니, 그게 사람이예요? 짐승이지” 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은 두고두고 이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곤 하셨다.

그분은 작은 키에 쉴 새 없이 포태하시어 늘 몸은 무거웠지만 무척이나 부지런하셨다고 한다. 그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차고 새벽부터 동동걸음을 하시면서 안국동 8번지를 누비며 방방이 장작이며 부엌 살림을 감독하셨다.

거기다 이 댁에는 백모되시는 분이 일본서 돌아가신 후 백부께서 4남매를 데리고 안국동에 와서 기거하고 있었다. 시어머님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분이였으나 그분들을 돌보는 데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특히 해위의 사촌형인 윤일선 박사는 폐가 약해서 음식에 특별 배려까지 해야 했다. 시어머님은 언제부턴가 폐에 뱀장어가 좋다며 뱀장어를 고아 짜서 그 즙을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은 그 후 5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 후에 그 댁 동서는 그 즙이 하도 좋아서 맛도 한 번 안 보았다며 50년을 매 일같이 뱀장어 즙을 내드리면서도 끝내 불평 한 번 하신 일이 없는 우리 시어머님을 어지간히도 감탄스러워하였다.

그 뿐 아니다. 시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나면 그 아들 딸은 어김없이 시어머님 차지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어머님은 질아(조카)들의 성격도 훤히 파악하게 되었다. 가끔 집안끼리 모이면 자연히 옛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시어머님은 질아들이 고집들이 세었다며 송(홍)을 봐 식구들이 즐겁게 웃곤 하였다.

시숙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도 유별나서 집안에서 시숙들을 제일 잘 아는 분으로도 유명했다. 근 아버지님께서 세상을 하직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께 대해서는 우리 둘째 어머니께서 너무 잘 아신다”고 윤일선 전 서울대 총장께서 말씀한 일이 있다. 그러니 그 시숙 때문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모양이었다.

윗전에는 시부모님이 계셨고 옆으로는 9남매의 시형제가 그리고 아래로는 9남매의 자녀 또 그 아래로 손녀, 손주 등 무려 70여명의 대식들이 안국동 8번지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후략)

3. 윤문가의 내력

힘이 장사였던 시조부

해위는 1897년 8월 26일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에서 윤치소씨와 이범숙씨의 6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되시는 윤영렬씨는 삼남토포사(三南討捕使)로서 동학란으로 민심이 흉흉했던 삼남지방을 관장하며 아산에서 살았다. 그 어른은 아산댁 근처에 영을 지은 후 남한 각지에서 화적떼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수용하고 그들을 먹이며 일일이 접견을 하고 회유하여 개과천선하면 노자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어른은 정말 큰 장사였다고 한다. 사촌 시누이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곤지 손가락 끝으로 옛날 큰 낫화로를 들어올린 것을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후략)

6. 6·25 동란과 피난생활

허둥지둥 피난길에 오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30분쯤 되었을 때였다. 국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다섯째 시동생 윤택 선생이 황급히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숨이 턱에 찼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형님은 어서 서울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해위는 그 때 정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있었다. 어이 없는 전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시간 별당에서 상구 아침 우유를 먹고 있었다. 시동생은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날보고도 당장 얘기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라는 거였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느냐?”며 어쩔 줄을 모르고 되묻기만 했다. 시동생은 “일이 급한 것 같으니 어찌고 어찌고 할 시간이 없다. 마침 부산에서 대한도기회사 사장 최유생 제부가 와 있으니 최사장과 같이 떠나라”고 다그쳤다.

나는 자다가 일어나 입은 옷에 세수도 하지 않고 애기 젖병은 물린 채 손 닿는 대로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얘기를 안고 나왔다. 해위는 황급히 건넌방으로 가서 아기 먹일 우유 한 박스를 가방에 쏟아넣어 가지고 나왔다. 노산이다 보니 젖이 잘 나오지 않아 두 아이를 모두 우유로 키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고 갈 차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 차는 정부에 반환한 상태고 길에 택시들은 징발된 상태라 구경할 수도 없었다. 급하니까 해위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정비서에게 ‘나가 속히 차를 잡아오라’고 소리를 쳤다. 물론 안국동 네거리에는 차 한 대 얼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차가 왔으니 빨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가 보니 대문 앞에 웬 낯선 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알고보니 그 차는 국회의원 서민호씨의 차였는데 그 차 역시 식구를 데리러 급히 가는 길이었다. 마침 정비서가 아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어 달려가 통사정을 한 모양이었다.

속히 나오라는 소리에 우리는 급히 달려나갔다. 어쩌나 황급했던지 인순이는 애기 우유병으 소독하다가 남비 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영문을 모른 채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는 아들이 사연을 말씀드리고 차를 타시라 했으나 꿈쩍도 안하셨다. “아니 나는 못 간다. 여기 많은 자녀손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다.”고 하시며 막무가내셨다. 할 수 없이 해위는 애기만이라도 속히 보내고 오겠다며 질차를 탔다. 역에는 시동생 말대로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보니 그 때 은행장 부인이 보이고 김성수 선생과 그 밖에 모모한 어른들이 이미 차를 타고 있었다. 그 분들은 해위를 보더니 함께 가야 한다며 다짜고짜 손을 잡아 차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해위는 어머니 때문에 애기나 보내고 돌아가려고 현 양복에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그만 친구들 손에 잡혀 하차도 못하고 엉겁결에 피난길에 오르곤 말았다. 생각하면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 차에 태운 것이었으리라.(후략)

7. 안국동 집에 돌아와

유엔군이 상륙,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두만강까지 진격하자 우리는 4개월여의 피난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무고하셨다. 그러나 공산당으로부터 단련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었다. 우리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는 일단 가회동에 가 계셨는데 거기서도 공산당들에게 어지간히 괴롭힘을 당하셨다는 것이다. 천하 효자로 소문난 윤보선이 노인을 두고 피난 갔을 리 없으니 있는 데를 대라고 노인을 펍도 뒹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집요한 괴롭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어 어머니는 건강을 다치지 않고 그 악몽의 때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하셨다.

집도 상한 곳이 없고 집에서 기르던 학도 잘 있었다. 단지 그동안 창덕고녀가 병원이 되는 바람에 바로 이웃해 있는 우리집을 입원실로 쓰느라 그 사이에 있는 담이 좀 헐려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 때 여자당원들이 우리집을 쓰고 있어서 내 옷가지며 귀중품이랄지 집어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 남은

것이 없었다. 없어진 물건 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품도 있고 당장 필요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 아니던가! 아마 내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정성들여 장만한 것이 아니기에 깊은 애착이 없음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른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무관심했다. (중략)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자 안국동 8번지 집에서 상구의 돌잔치를 했다. 기약없는 피난길을 떠났다가 해를 넘기지 않고 안국동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모시고 집안식구들이 별로 없이 다 모여 돌상을 차리게 되니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

이런 감격 속에서 이내 겨울이 찾아들고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겨울준비로 김장을 하였다. (중략) 그리고 우리는 그 김장김치를 다 못 먹고 1·4 후퇴를 맞게 되었다.

9. 서울로 복귀하다.

집을 지키던 학

그런대로 두 번째 피난생활을 무사히 지내고 다시 서울로 수복했다. 1·4 후퇴 때 집에 두고 가는 학을 위해 밀보리를 사서 집 이곳저곳에 뿌려두고 갔었다. 그 때 해위는 적십자 총재직을 맡고 있어 가끔 정무로 서울에 느나들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집에 들러 학을 둘러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해놓고 갔는데 수복해 돌아와 보니 학이 없어진 것이었다. 일설에는 수복 전 요란한 총소리에 놀란 학이 까악까악 거리자 그 소리에 놀란 인민군이 총으로 쏘고 그 때 무엇이나 먹는 습관을 가진 중공군이 삶아 먹었다고도 하였다. (후략)

제5편. 정치인의 아내가 되어

3. 마산사태와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한 후 해위는 자유당과 맞서 국회의원으로, 어려운 야당(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험난한 행로를 헤쳐 가며 정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비고비마다 참으로 생명을 걸만큼 위험한 일도 많았다.

마침내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감행했다. 온 국민은 분노를 터뜨렸다. 제일 먼저 마산에서 학생이 중심이 된 격렬한 시위가 분출되었다. 시위 진압에 무기가 사용되고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은 마산 시민과 온 국민을 격노케 하였다. (중략)

서울의 학생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자 마침내 자유당 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제서야 정신이든 이승만 박사는 “국민이 물러가라면 물러가야지”라며 경무대를 떠났다. (후략)

4. 야당의 정권 인수

(전략) 좌우간 민주당에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허정씨가 내각 수반을 맡아 정치 부재의 혼란한 시국을 수습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어받을 수권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더니 신문은 날마다 민주당의 친구와 간의 싸움을 들고 나왔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줄만 알았던 당내에서 친구와간의 갈등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다. (중략)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굳이 사양하던 해위는 1960년 8월 1일 다수의 지지를 받고 내각책임제하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내각책임제하에서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 그 때 개인적으로는 해위가 총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누가 더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해위는 야당 지도자로 쌓은 오랜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극성스런 신과는 내각 책임제안으로 총리 자리를 기어코 따냈고, 장면씨가 총리가 되었다.

좌우간 해위는 대통령 취임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을 떠나기로 하였다. 내각제하의 대통령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이 되다니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없는 축복이리라.

6. 짧은 경무대 생활

우리는 1960년 8월 어느날에 경무대로 이사를 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당시 나는 별로 이

사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우리집에서는 보안유지가 어렵다며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내키지 않지만 경무대로 이사를 했다. 특히 같이 정당활동을 하면서 친민한 조영규 박사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기어코 이사를 했다.

그러나 그 일은 두고두고 후회스런 일이 되고 말았다.(후략)

9. 안국동으로 돌아오다

좌우간 우리는 불편했던 1년 8개월의 경무대 생활을 청산하고 안국동 집으로 돌아왔다. 유감이 없을까마는 어렵고 무거운 큰 짐을 내려놓은 심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상황에서 무사히 안국동 집으로 돌아온 일은 감사한 일이었다.

우리는 집을 정돈하고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다. 안 그래도 해위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안국동 집으로 돌아오려고 집을 손질하던 중이어서 큰 불편없이 우리는 집에 들 수가 있었다. 그 때 우리 정부는 하도 가난해서 반도호텔에 사무실을 얻어 총리 집무실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집무실이 너무 좁아 장총리가 무척 불편해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해위는 경무대를 총리공관으로 쓰게 하고 당신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 안국동 집을 좀 손질해서 쓰겠다며 벌써부터 집을 손질하던 터였다.

우리는 이력저력 정돈을 하고 안국동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집 주위에는 10여명의 정보원이 배치되었다. 우리집을 드나드는 이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고 우리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해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그런 중에도 해위는 담담해 보였다. 그리고 곧 혼란한 정국을 걱정하며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 같았다.

제9편.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5. 집에 갇힌 해위

박정희씨는 육여사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하였다. 그렇지만 시국은 여전히 불안하고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해위는 주거제한을 받아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친척과 만나려 해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다. 전화통화도 끊긴 상태로 사실상 연금상태라 답답한 감옥 생활을 하며 지내야 했다. 코 앞에 있는 안동교회에 나가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두 번 충남 아산에 있는 선영의 묘소를 다녀오는 것 이외에 일체 외출을 못했던 것이다. 사람을 못 만나게 되니 이게 바로 감옥이었다.

이렇게 되자 해위 대신 바깥활동을 더 많이 해내야 했고 갈수록 인권 탄압이 심해지면서 가족돕기 등 교회여성연합회 일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래저래 나는 부쩍 나가 사는 일이 많게 되었다.

당국의 감시도 훨씬 심해졌다. 우리집에는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며 해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집 앞에 있는 2층 건물 집에는 사복을 입은 요원들이 들락거리며 우리집을 내려다보고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해위는 74년 7월 주거제한 명령을 받은 이래 다시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고도 계속 주거제한 상태에 있었다.

날이 갈수록 재야의 민주회복 투쟁과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니까 박정희씨는 1975년 1월 22일 유신헌법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일이었다. 해위는 김영삼씨, 김대중씨 등과 연락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부하자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국민투표가 끝나자 명분을 얻어서인지 박정희씨는 1975년 2월 15일 긴급조치 1, 4호 위반자 전원을 석방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들은 그대로 감옥에 남겨두었다.

이번 조치로 해위와 함께 형을 받은 박형규 목사 등 네 분도 풀려났다. 그러나 해위만은 계속 주거제한 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은 1975년 3월에 가서야 주거제한 취소결정을 내렸다. 해위는 거의 10개월 여 만에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V. 공덕귀를 말한다

그리운 새벽녘 벨소리

양은선(큰 며느리)

시집와서 교회에 가던 첫날이었다. (중략)

실로 아버님은 대단한 예술가이셨다. 정원이며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심지어는 그릇이나 우리집 고유의 음식 메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동서고금을 통찰한 경험과 안목을 갖추신 아버님의 창작품들이었다.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되, 서양의 합리성을 첨가시킨 동서양의 만남을 시도한 선구자였다. (후략)

■ 동아일보 - 1962년 3월 23일

下野의 날

석을 이루었으며 판저본 판아랫부분에서 성명서가 반 표의기를 발음할 때 초조하게 기다렸고 색다른 자극자가 드나들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 상오 11시 30분을 공보비서관 金澤河씨가 「프린트」원 성명서를 가지고 보도권에 다가와서 나를 데도 서로 앞을 다투어 성명서를 읽었다 시비하는 장면도 있었다

○ 한편 金澤河비서관은 尹대통령이 이날 하오(3시에서 4시 사이)에 내외가 자택과의 마지막 회견을 갖고나면 곧 서울 시내 安國동에는 尹대통령의 사저(私邸)로 알려진 안국동 8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사저의 본래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迎接準備에 奔忙 安國洞私邸

○ 대문 옆 작은 문은 두드리니 경비순경(사복)이 문을 열어주는 한편 비서실 지시라 하여 안에 들어와서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넓은 뜰을 지나 커다란 한식기와집 안채쪽에서는 집을 수리하느라 목수들의 연장다루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정원에 있는 나무와 잔디도 곱게 손질이 되어 있고 사랑채와 별당도 추녀며 기둥에 「페인트」 칠이 말끔히 되어 있었다

庭園엔 새 출입문도

정원 입구 등에는 새로 아담한 출입문이 마련돼 있어 5백80여일만에 다시 찾아오는 주인 일가를 맞을 차비가 갖춰져 있었다

下野聲明號外에 市民表情은 굳어

○ 尹대통령 사임에 관한 소식은 거리에 돌리나오자 지나가는 시민들은 저마다 약간 굳어진 표정으로 보도대자 새한 「뉴스」를 알리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 이날 상오 11시 출근에서부터 각 신문사의 호외가 길가에 두러져자 남녀 시민들은 황급히 호외를 주워들고 대대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외물이 해워 어보곤 하였다

○ 어찌다가 친구들끼리 함께 읽고 있던 젊은 남자들은 「마침내 그만두셨군...」 「성명서 내용은 호외에 있어...」 이런 말을 팔각하게 주고받으면서 심각한 표정속엔 무슨 생각이나 감을 고집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學友 죽게 한 장

넘어져 뇌출혈

【大邱發】 21일 밤 7시 반쯤 (동교상과) 하연선인 羅勇이 兎南丘대학교 운동장에서 (22) 군외수명의 학생들을

強盜에 7年求刑

【大邱發】 21일 하오 大邱지정 徐潤龍(32) 伏魔堂(一七二) 피고에 적혀 7년을 구형하였다 大邱지법 李樹源 부장판사가 합의 부당함으로 결심한 李의고는 지난 2월 2일 연세 5시 반쯤 金慶宗 大源은 花田동九四〇 金發伊씨 침실에 복면에 과도한 자극을 주고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을 내리고 합박하자 金씨가 반항하는

○ 영접 준비에 분망 - 안국동 사저

대문 옆 작은 문을 두드리니 경비순경(사복)이 문을 열어주는 한편 비서실 지시라 하여 안에 들어 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넓은 뜰을 지나 커다란 한식기와집 안채쪽에서는 집을 수리하느라 목수들의 연장다루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정원에 있는 나무와 잔디도 곱게 손질이 되어 있고 사랑채와 별당도 추녀며 기둥에 「페인트」 칠이 말끔히 되어 있었다.

○ 정원에 새 출입문도

정원 입구 등에는 새로 아담한 출입문이 마련 돼있어 5백80여일만에 다시 찾아오는 주인 일가를 맞을 차비가 갖춰져 있었다.

■ 동아일보 - 1962년 5월 24일 - 야인 윤보선씨의 요즘

60년 8월 12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지난 3월 22일 하야를 성명, 만 9개월 십일만에 대통령직에서 평민으로 돌아간 전 대통령 윤보선씨는 그후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야한 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8 자택으로 돌아간 후의 윤보선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측근자들의 입을 통해 윤씨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덕성여고 바로 뒤에 있는 구한식 주택 큼지막한 대문은 굳게 닫혀 침묵만 흐르고 대문 옆에 높직히 닫힌 「尹潑善」이란 문패엔 먼지가 끼어있다.

하야하던 그날 이 대문이 한 번 활짝 열렸다 닫혔을 뿐 그 다음엔 한번도 열려본 적이 없다. 뿐 아니라 그날 이후 윤보선씨의 모습을 대문 앞에서 본 사람도 없다. 다만 곁에 있는 조그만 사잇문으로 이따금 집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을 뿐..

○ 24일로써 하야한지 만 육십일째, 외부와 일체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측근자나 과거 정계에서 같이 손잡고 일하던 동료들도 찾아오질 않는다. 또 찾아왔다는 치더라도 「면회거절」의 장막에 막혀 전화로만 비서에게 안부를 물을 정도라고..

일요일이면 항상 나가던 안국동 교회에도 하야 후엔 발을 끊었고 면회가 허용되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뿐이다.

○ 본채에는 문이 겹겹이 닫혔고 서쪽 별채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동쪽 산정 앞뜰에는 큰 의자가 4개 호젓이 놓여있다.

우물 비슷한 연못이 있는 들에는 잔디가 푸르고 그 주위에는 향나무, 단풍 등이 우거졌고 목련, '라이락', 노란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다.

몇 백평 남짓한 정원이 하얀 후 윤보선씨가 소일하는 유일한 세계이다.



○ 아침 7시면 벌써 정원에 나와 물을 준다. 때로는 직접 가위를 들고 나와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한다. 누런 반 '코트'를 걸치고 검은 장갑을 끼고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요즘尹씨의 유일한 소일거리이다. 말끔한 잔디밭도 오랜만에 가꾸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즐겨 매만지는 것은 역시 별채 앞 정원에 있는 7백여종에 달하는 '추립'이다.

○ 아침식사가 끝나면 먼저 조간신문을 쭉 훑어보고 독서, '밋셀'이라고 부르는 입이 뾰족하고 커다란 털복숭이 개를 데리고 조용히 정원을 거닐며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스틱'을 짚고 부인과 함께 산정으로 나와 숲속을 거닐 때도 있다. 마치 어디 외출이라도 나가는 듯 말쑥이 양복과 넥타이를 단정하게 입고 -.

○ 어느날 하오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가 때마침 정원을 산책하러 나온 윤보선씨와 마주쳐 그간의 안부를 묻자

『나는 누구도 안 만나기로 했는데 어째서 찾아왔나? 어서들 돌아가게.』

하고 충충히 발걸음을 안으로 돌렸다.

이 때 윤보선씨의 모습은 펍 건강해보였다.

■ 『신동아』 2001년 8월호 - [한국의 명가 명택 11] 해위(海葦) 윤보선(尹潽善) 고택

서울 도심의 숨은 명당 '안국동 8번지'

풍수적 기운이 짙은 화강암 지반의 종로구 일대, 특히 안국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명당터. 그중 '안국동 8번지' 윤보선 고택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택이다. 한국 정치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택을 처음으로 낚날이 밝힌다.

조용헌(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서울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 선 도시다. 현재 한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이기도 하다. 시간적으로는 600년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는 1200만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

그 서울을 대표하는 명문가로 과연 어떤 집을 꼽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분야의 원로들에게 자문한 결과, 정치인 이종찬씨 집안과 윤보선 전대통령 집안을 꼽았다(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종찬씨 집안은 선조 때 인물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직계 후손으로서 8대에 걸쳐 내리 판서를 배출하였고, 대대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삼한갑족(三韓甲族)이란 소리를 들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이시영(李始榮),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최근 조명받고 있는 이회영(李會榮) 형제가 모두 이 집안 사람들이다.

또 윤보선 전대통령 집안은 단지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명문가로 지목되는 것이 아니다. 근·현대사에서 활약한 이 집안 윤씨들이 한국인명사전에 무려 50여 명이나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씨 집안은 아쉽게도 고택이 남아 있지 않고, 윤씨 집안은 다행히 고택이 남아 있다. 그 집이 바로 종로구 안국동 8번지에 위치한 해위 윤보선(1897~1990) 고택이다. 그러니까 윤보선 고택은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명택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고택

고택 풍수에 관심 있는 필자로서는 진작부터 한 번 구경해보고 싶은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 그러나 윤보선 고택은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한국의 이름난 고택들은 대체로 외부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집만큼은 예외였던 것이다. 그동안 TV 방송국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도 수차례 취재 또는 촬영을 시도했지만 집 주인의 허락이 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이 고택 안채에서 장손 가족이 살림을 하고 있으므로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살고 있는 안방 모습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집 주인은 윤보선 전대통령의 장남인 윤상구(尹尙求·53)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 장로를 맡고 있다는 간단한 신상만 밝힌다. 조용한 성품이어서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더더구나 기피한다. 사실 명문가 후손은 언론에 노출될수록 돌아오는 것은 사생활의 제약이다.

다행히 필자는 윤상구씨로부터 취재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하지 않고 고택에 대한 사진 촬영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고택 내력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은 컴퓨터 통신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필자가 이 집에 대한 참고자료로 이용한 것은 한옥 전문가인 신영훈씨가 1991년에 취재한 '한국의 종가집'이란 잡지 연재물 뿐이다.

원래 이 집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쯤인 구한말에 민씨 성을 가진 대감이 지은 집이라고 한다. 인품이 훌륭해서 '민부처'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다.

그가 장안의 유명한 도편수를 동원해서 99칸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저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임금인 고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고종이 민부처를 소환하여 “네가 대궐만큼이나 큰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반역할 의사가 있느냐”하고 추궁하였다고 한다. 이때 민부처의 답변이 걸작이었다. “이 집은 부처가 살 집입니다”라고 하였다. 부처가 살 집이라는 것은 불교 사찰을 의미하고, 사찰이라면 당연히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자신의 별명이 부처이니 자기가 살 집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의 재치있는 답변에 고종도 과안대소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전해진다.

그 후에 박영효 대감이 일본에 망명했다가 귀국하여 적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는데, 고종이 민부처를 불러 박영효 대감에게 집을 넘겨주라고 명령을 내려 박영효(1861~1939)가 얼마간 살았다고 한다.

담장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옆집은 '열하일기(熱河日記)'와 '허생전(許生傳)'의 저자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그의 손자로서 개화파의 수장격이었던 박규수(朴珪壽, 1807~1876)가 살던 집이다. 우리나라에 몇 그루밖에 없는 백송(白松)이 아직 그 터를 지키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로 바뀌었다.

개화기 역사를 보면 박영효는 갑신정변(1884)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자 일차 일본에 망명한 적이 있고, 그 후 김홍집 내각의 대신으로 있으면서 고종폐위 음모에 가담한 일로 인해 다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1907년에 귀국하여 용서를 받았다. 두 번의 일본 망명과 귀국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박영효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일차 망명에서 돌아온 1880년대 후반쯤이 아닐까 싶다. 김옥균(1851~1893)이 박영효에게 써준 편액이 이 집에 남아 있으니 두 번째 망명 이후는 아닐 것 같다.

이후로 잠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가 1910년대에 윤씨 집에서 이 집을 구입하였다. 그 이후로 윤씨 집안이 계속 살아 왔으며 종가로 유지되고 있다.

100칸이 넘는 저택이라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 때는 일가 친척 70여 명에다가 하인들까지 합쳐

모두 100여 명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바깥 행랑채, 큰 사랑채, 뜰 아래채, 곳간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문간채, 산정채, 안채, 작은 사랑채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대지 1400평에 건평 250평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大門 하나에 小門 3개의 구조

윤보선 전대통령은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의 새마을에서 태어나 10세쯤에 이 곳으로 이사온 이후 줄곧 이 집에서 살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고 대통령을 그만 둔 후에도 이 집에서 살았다.

고택의 돌담길을 따라 대문 앞에 서니 왼쪽으로 40~50cm 높이의 네모난 돌이 눈에 들어온다.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디기 위한 용도의 하마석(下馬石)이다. 서울의 전통가옥 대문 앞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하마석은 매우 희귀한 사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3개의 소문(小門)이 나타난다. 맨 오른쪽의 소문은 별채인 '산정(山庭)채'로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의 문은 작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가운데 나무 사이로 몇 미터 들어가서 여는 문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다.

큰 대문 하나에 작은 대문 3개의 구조는 셋이 모여 하나로 귀결되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구조다.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고려가 세워질 때 자주 등장하던 논리가 회삼귀일이어서 그런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를 회통과 통합의 원리로 존중해 왔다.

3개의 소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문은 산정채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다. 아주 귀엽고 아담한 문이다. 그러면서도 철제로 되어 있어 튼튼한 질감과 심플한 맛을 준다. 문의 전체 높이는 180cm, 여닫이의 높이는 1m 정도로 낮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또 문 위로는 작은 지붕이 얹혀 있는데 문이 지녀야 하는 품위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준다.

윤상구씨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는 나무로 된 문이었는데 6·25전쟁 때 부서져서 60년대 초반 해위 선생이 직접 모양을 설계하여 쇠문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예쁜 문은 해위 윤보선의 작품이다.

수많은 고택을 다녀 보았지만 이처럼 예쁘면서도 실용적이고 분명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문은 보지 못하였다. 전통의 상징성과 모던한 아름다움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문이다.

문은 무엇인가? 동양문화에서 문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聖)과 속(俗)의 경계다.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의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가 문인 것이다. 바깥에서 중심부로 들어갈 때마다 문을 하나씩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그 때마다 세속의 세계에서 좀더 성스러운 공간, 즉 중심부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마치 옷을 한 꺼풀씩 차례차례 벗는 것처럼 문을 많이 통과할수록 때를 벗고 정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찰에 들어설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일주문(一柱門)부터 시작해서 사천왕문(四天王門), 불이문(不二門), 금강문(金剛門) 등 여러 개의 문을 거쳐서 대웅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구중궁궐(九重宮闕), 구중심처(九重深處)라고 할 때 구중이라는 의미 역시 9개의 문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동양세계는 문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을 확보하려 하였다. 반면 서양에서는 실내 공간의 높이를 통해서 성스러움을 확보하려 하였다. 서양의 유명한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동양의 사찰에 비해서 천장이 유난히 높다. 천장이 높으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신성감을 주기 마련이다. 반대로 천장이 낮으면 아주 답답하다.

아무튼 윤보선 고택도 여러 개의 문을 통해 중심부로 진입하도록 배치돼 있다. 일단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산정채로 가는 작은 소문을 통과하고 다시 산정채의 출입문을 열도록 되어 있다. 문을 하나 더 통과할수록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신성하고 깊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용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철제로 된 소문(小門)의 존재는 산정채의 품격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이 많아서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생활에 너무 쫓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산정(山庭)채는 어떤 용도의 집인가? 우선 이름부터 특이하다. 뫼 산(山)에 뜰 정(庭) 자이니까 산 옆의 뜰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집 어디에 산이 있단 말인가?

산속의 별장 이미지 주는 산정채

그런데 과거의 집은 현재의 집과 전혀 달랐다 한다. 옛날에는 현재 연못 자리에서 대문쪽까지 작은 산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연못이 있었고, 연못을 건너가는 다리도 있었으며, 그 옆에 작은 동산이 있었던 것이다. 그 동산을 산으로 간주하고 산 옆에 있는 별채라는 뜻에서 산정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산정채는 집 안에 있는 별채이지만 마치 산속의 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호젓함과 한가함을 주어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나 싶다. 실제로는 집에 있으면서도 관념상으로는 산에 들어와 살고 있는 셈이다. 임천간(林泉間)에 노니는 걸 좋아했던 옛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작명이다.

산정채에는 그 풍류에 걸맞은 현판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유천희해(遊天戲海)’라는 글씨가 바로 그것인데, 하늘과 바다 위에서 노닐고 춤춘다는 뜻이다. 하늘과 바다에서 놀 수 있어야 진짜 노는 것 아니겠는가. 그 호탕함이 부럽다. 산정채에 드나들던 선비들이 가슴에 품었던 호방한 기개가 그대로 묻어 있는 글씨체로 보인다.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니 추사의 친필이라고 한다.

정면이 4칸, 측면이 2칸 통의 크기인 산정채에는 이 현판 글씨 외에 조그만 편액이 하나 더 걸려 있다. ‘태평만세(泰平萬歲)’라고 새겨진 편액이다. 그런데 그 편액의 모양이 특이하다. 동행한 사진작가 권태균씨의 설명에 의하면 편액의 모양은 박쥐를 본뜬 것이라고 귀띔한다. 그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가 살았던 장춘의 궁궐에서도 박쥐 모양을 한 편액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빨래를 두드릴 때 쓰던 다듬이 돌의 양 옆에도 박쥐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박쥐인가? 서양에서는 박쥐가 악마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반대로 오복(五福)의 상징으로 본다. 박쥐를 한문으로 복(蝠)이라고 쓰는데, 박쥐 복 자가 복 복(福)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같은 의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신구에도 박쥐 문양을 새겨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산정채는 한국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윤상구씨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후 1932년 여름 귀국한 해위 선생이 1945년 광복될 때까지 13년 동안 일체의 바깥 활동을 삼가면서 칩거하던 곳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인 한국민주당의 산실이었고,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야당의 회의실로 쓰이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산정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젊었을 때부터 여기를 드나들던 멤버이다.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해위 선생이 당시 야당의 양대 거물인 김영삼, 김대중씨를 이곳으로 불러서 야당후보 단일화를 당부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해위 선생의 공식적인, 마지막 정치행위였다. 산정채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곳이다 보니 TV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무대로 눈독을 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산정채에서 눈여겨볼 장치 하나는 ‘양실(洋室)’이라고 불리는 햇볕가리개다. 산정채의 한쪽 면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가 되면 석양이 낮게 깔려 실내로 깊숙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고택 가운데 이러한 햇볕가리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강릉의 선교장, 해남 녹우당, 그리고 비원의 연경당과 산정채라고 한다. 그런데 산정채의 햇볕가리개는 다른 곳과는 달리 러시아 양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구한말 개화기 때 러시아 사람들이 제작하였다는 설이 있다.

녹색의 잔디와 붉은 베고니아 꽃을 배경으로 고요한 중후함 속에 서 있는 산정채. 한국적인 격조와

품위가 배어 있는 건물임에 틀림없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건물 한 채라도 아직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시골도 아니고 1200만 인구가 북작거리는 서울에서 이처럼 품위 있는 건물을 유지하려다 보니 함부로 집을 개방할 수 없는 집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

이번에는 안채를 보자. 이 집의 안채는 다른 고택의 안채와는 달리 누마루가 있다. 대개 누마루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랑채에 달려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집은 안채에 누마루가 달려 있어서 다른 집의 안채와 같이 여성 전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건물 크기도 산정채보다 훨씬 크고 높아서 안채 특유의 아늑함은 적고 대신 당당한 위엄이 풍긴다.

윤보선 대통령이 집무하던 안채

이름은 안채이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한때 여기서 집무를 하였던 것이다. 4·19혁명 이후 내각책임제 하에 장면씨가 총리에 취임했으나 거주할 사무실이 마땅히 없어서 반도호텔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당시는 경무대)는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세 총리가 처한 상황을 감지한 윤대통령은 그림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장면 총리에게 자신이 머무르던 청와대에 와서 살기를 권유하였다.

윤대통령의 인품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윤대통령 자신은 안국동 집의 안채에 들어와 살면서 동시에 대통령 집무도 겸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5·16에 이은 대통령직 하야로 인하여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대통령이 집무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안채의 구조를 일부 바꾸었기 때문에, 일반 고택의 안채와는 다른 당당한 분위기를 가진 건물로 변한 것 같다. 안채의 ‘국태민안(國泰民安)’ 현판이 한때의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는 장남인 윤상구씨 가족이 안채에 살고 있다.

안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마당에 깔린 모래다. 마당에는 흰 모래가 깔려 있어서 정갈한 느낌을 준다. 한옥에서 모래는 빛을 반사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낮이라 해도 방안의 조도(照度)가 낮아 아무래도 약간 어둡기 마련인데, 이것 보완하기 위해 모래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였다. 모래는 빛을 받으면 반사하게 마련이고, 그 반사된 빛이 방안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즉 마당의 흰 모래는 일종의 간접 조명장치였던 셈이다.

흰 모래는 이러한 실용적 용도 외에 감춰진 미학이 있다. 바로 정갈함과 고요함이다. 모래에 담겨 있는 정갈함과 고요함을 맛보려면 절 마당에 가보아야 한다. 방문객이 오기 전인 새벽녘이 좋다. 행자 스님이 대빗자루로 쓸어놓은 절 마당에는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한 대빗자루의 흔적이 물결처럼 남아 있다. 방문객의 등산화 발자국이 찍히기 전의 꼭두새벽에 그 대빗자루의 선명한 흔적을 바라보노라면 정갈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적(禪的) 희열(喜悅)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특히 일본 사찰에 아침 일찍 가보면 이와 같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한 마당의 모래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필자가 오전 10시 쯤 방문했음에도 이 집 안채 마당에는 가지런한 빗자루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후략)